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776

2016년 8월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논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지 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Activities Involving Use of Clay and Natural Objects on th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지 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서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나 지 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지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주성 (인)

위 원 동강대학교 교수 박미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현 (인)

2016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5

C. 용어의 정의 ····· 5

Ⅱ. 이론적 배경 ····· 7

A. 자연물 ····· 7

B. 점토 ····· 11

C.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 ····· 20

D.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 25

E. 선행 연구 ····· 39

Ⅲ. 연구 방법 ····· 46

A. 연구 대상 ····· 46

B. 실험 설계 ····· 46

C. 연구 도구 ····· 47

D. 연구 절차 ····· 59

E. 자료 처리 ····· 7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72
A.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72
B.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73
C.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외현적 문제, 내면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 ·····83

Ⅴ. 논의 및 제언 ·····98
A. 논의 및 결론 ·····98
B. 제언 ·····108

【참고문헌】 ·····110
【부록】 ·····1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자연물 재료의 종류와 특성 ····· 8
<표 2>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과 평균월령에 따른 집단 구성 ····· 46
<표 3> 실험설계 ····· 47
<표 4>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용 ····· 48
<표 5> 보육 교사용 사회·정서 측정 도구(ITSEA) 영역별 항목 ····· 49
<표 6> 영역별 문항구성 및 Cronbach의 α 계수 ····· 52
<표 7>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관찰 평정척도의 예 ····· 53
<표 8> 영역별 문항 번호 및 점수 ····· 53
<표 9> 점토활동 1차 구성안 ····· 55
<표 10> 점토활동 2차 구성안 ····· 56
<표 11> 점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수 매체 유형 1차 ····· 58
<표 12> 점토활동 활동화를 위한 교수 매체 유형 2차 ····· 58
<표 13> 연구 절차 ····· 59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 61
<표 15> 재료에 따른 실험집단의 점토활동 ····· 64
<표 16> 실험집단의 활동안 예시 ····· 66
<표 17> 비교집단의 활동안 예시 ····· 69
<표 1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비교 ····· 70
<표 19>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2
<표 20>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 73
<표 21>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4
<표 22>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 74
<표 2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5
<표 24>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대한 공분산 분석 ····· 76
<표 25>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7
<표 26>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대한 공분산 분석 ····· 77
<표 27>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8
<표 28>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대한 공분산 분석 ····· 79
<표 29>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79
<표 30>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대한 공분산 분석 ····· 80
<표 31>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 8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2>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대한 공분산 분석 ·····81
<표 3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82
<표 34>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공분산 분석 ·····83
<표 35>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84
<표 36>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84
<표 37>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85
<표 38>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86
<표 39>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87
<표 4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87
<표 4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88
<표 4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89
<표 43>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90
<표 44>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90
<표 45>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91
<표 46>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대한 공분산 분석 ·····92
<표 47>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93
<표 48>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대한 공분산 분석 ·····93
<표 49>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94
<표 5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대한 공분산 분석 ·····95
<표 5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96
<표 5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9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목차

[그림 1]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교수·학습 모형 ····· 66
[그림 2]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73
[그림 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75
[그림 4] 순종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 76
[그림 5] 주의집중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78
[그림 6] 모방 및 놀이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79
[그림 7] 동기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0
[그림 8] 감정이입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2
[그림 9]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3
[그림 1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5
[그림 1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6
[그림 12] 활동·충동성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8
[그림 13] 공격·반항성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89
[그림 14]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91
[그림 15] 우울·위축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92
[그림 16] 일반적인 불안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94
[그림 17] 분리불안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95
[그림 18]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 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Activities Involving Use of Clay and Natural Objects on th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Na, Ji-in

Advisor: Prof. Seo, Hyun, Ed. D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tivities with clay accompanied by the use of natural objects on th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and through this, to reconsider the role of teacher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In other words, this study involves letting infants broadly experience activities with clay by utilizing natural objects, instead of an activity that is limited to a specific approach to clay, and providing infants eco-friendly toys and experience working with objects obtained from nature. For this purpose, we set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are the effects of activities with clay accompanied by the use of natural objects on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2. What are the effects of activities with clay accompanied by the use of natural objects on the posi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3. What are the effects of activities with clay accompanied by the use of natural objects on the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i.e., externalizing problems and internalizing problems)?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 selected the 2 year old classroom of G daycare center in city G;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31, consisting of 17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 infants in the control group. For the testing tool, we used the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 developed by Briggs-Gowan & Carter (2001) and adapted and modified by Shin J Y (2004). Subcategorizes of social-emotional behavior include positiv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ocial-emotional behavior,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s), and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a pilot study, the pilot experiment/pilot test, examiner (teacher) training, pre-test, experimental treatment, post-test, and data processing. In the pre-test on social-emotional behavio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us, we confirmed that the two groups were homogeneous. Experimental treatment was conducted twice a week (i.e., Mondays and Wednesdays) for 6 weeks from August 10 to September 16, for a total of 12 sessions.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d natural objects and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activities with clay based on the theme of daily lif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d natural objects on the infant's social-emotional behavior,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for the pre- and post-tests, and an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performed as well.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interpret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ants' social-emotional behavior. This is becaus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on the subcategories of social-emotional behavior, i.e., posi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s), and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us, it can be confirm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infants' social-emotional behavior.

Seco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infants' posi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This is because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on the subareas of posi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i.e., obedience, imitation and play, motivation, empathy, and pro-social peer relationships; thus, it can be confirm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a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infants' posi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Third, it can be interpret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reducing the infants'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This is because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on the subareas of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s) and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s), i.e., activeness-impulsiveness, depression-withdrawal, separation anxiety, and resistance to new things. Thus, it can be confirmed that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infants' negative social-emotional behavior.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at activities with clay accompanied by the use of natural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bjects improve th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activities with clay that utilize natural objects can be valuable in a childcare setting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use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infants' social-emotional behavio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은 오늘날 강조되는 새로운 교육의 화두로, 자연 친화교육이나 생태교육과 같이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이명환, 2003; 임재택, 김은주, 2007; Gostev & Weiss, 2007, Stewart, 2005), 자연이 교육의 원천이라는 자각을 통해 자연물 역시 훌륭한 교육 매체로써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Bickel, 2001).

전통적으로 유아교육에서 자연의 교육적 경험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해온 John Amos Comenius(1592~1670), Johann Heinrich Pestalozzi(1746~1827), Friedrich(Wil- helm August) Froebel(1782~1852), Henri Rousseau(1844~1910), John Dewey(1859~ 1952)등의 교육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주변 환경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어린 시기에 자연을 경험하게 될 경우 인지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인 충족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ilson, kilmer와 Knauerhase(1996)는 생애 초기인 영아기에 대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 속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시기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연과의 포괄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생의 초기를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자연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유아들은 매일 새로운 사물을 탐구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직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명환, 2003),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은 영아의 발달에도 적합하며 친숙하게 다가가기에도 용이하다. 자연물의 장점은 환경호르몬이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인공적인 놀잇감보다 영아들의 건강에 좋고 주변의 자연환경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영아들이 편안해하고 익숙해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연물의 감촉은 영아들을 편안하게 하여 정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여 영아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다(노희연, 박찬옥, 2012).

한편, 자연물의 일종인 점토는 영유아가 미술재료로 활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점토는 가소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가소성이란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이 가해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로써 점토는 가소성이 가장 많은 물체에 속한다. 즉, 점토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는 마치 젖은 카드의 덩어리가 밀린 것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해 주기 때문에(이부연 외, 1999), 만지는 대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영유아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감각적으로 포근함을 주어 유아가 마음껏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 칠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된다. 또한 점토를 가지고 주무르고, 굴리고, 짓이기고, 손가락으로 꾹 찔러보고, 냄새도 맡으면서 원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적인 활동 속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게 한다(오정현, 1986).

점토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영유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미적정서와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신체적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정란, 2002; 김미경, 2004; 석지연, 1998; Lowenfeld & Brittiain, 1975/1995). 이처럼 점토활동은 영유아가 능동적으로 변형의 과정을 거쳐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미술영역에서의 점토놀이로, 어린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감각활동자료로써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유경숙, 2000). 또한, 점토활동을 할 때 주제에 대한 뚜렷한 목적만 있을 뿐 재료를 즐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회가 부족하고, 교사가 점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토활동은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에 맞게 점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최윤지, 구효정, 2009).

구체적으로 만 2세 표준보육과정 지도서(2013)의 점토활동을 살펴보면 6가지 영역 중 '예술경험영역'에 속하며 탐색과 감각활동 위주의 밀가루 점토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물조물 반죽놀이, 싹뚝! 밀가루 반죽, 색반죽을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에 동물 모양 찍기 틀로 찍어보기, 삼색 밀가루 케이크(생일파티놀이), 삼색 밀가루로 요리하기, 모양 반죽으로 놀아요.'로 주로 밀가루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탐색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다.

영아교육에 있어서 점토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연령에 따라 범주화 할 수 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만 1세 영아의 점토와의 상호작용 연구(김준아, 2012)가 있으며, 2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점토활동에 나타난 영아의 표상과 도구 사용 방법의 미시 발생적 변화(한영주, 2012),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이미영, 2014),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경험과 교육적 의미 탐색(김민정, 이미영, 2014), 이야기 나누기를 활용한 점토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문지현, 2012), 만 2세 영아의 점토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조형숙, 이은형,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점토활동은 영아의 발달과 욕구에 매우 적절하며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창의성, 표현력 발달 등을 향상시켜 영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토만으로 다양한 조형작품을 제작하고 실생활에 사용해 보는데 제한적이며, 점토놀이만을 통한 영아의 조형 감각 계발은 한계점이 있어 점토이외에 다른 조형재료와 함께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김남영, 2000; 안명자, 1995; 조윤경, 2005).

따라서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놀아보는 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아기의 감각 탐색과 관련하여 자연물에 대한 거론이 대두되고 있다. 산책과 바깥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다양한 자연물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는 경험은 영아들의 감각 탐색 뿐 아니라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하정연, 이숙희, 엄순정, 2008; Clouder & Nicole, 2008)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활동을 만 2세 표준 보육과정 지도서(2013)에서 살펴보면 영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물을 탐색하며 만지며 느껴보는 활동, 즉 실내와 실외 활동을 병행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가을을 주제로 한 실외 활동에서는 나뭇잎을 채취하여 왕관을 만들고 확장활동으로 왕관을 쓰고 놀이하는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의 효과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풍부한 감성, 감각 발달, 두뇌발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발달,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강인구, 최경, 2006)을 돕는데 있다.

자연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거기서 얻어진 자연물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는 경험들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한 찰흙, 점토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간능력(임춘연, 2005)에 미치는 효과,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김기영, 201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학습태도 및 자아 존중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강명숙, 2009)가 있다. 그러나 영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만 2세 영아기는 영아의 자아개념과 자아 존중감 및 소유개념이 발달하고 주양육자에게 형성하였던 애착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사회적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므로(정옥분, 2006), 만 2세 영아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촉진을 위한 초기 자극 매개체는 리듬타악기 및 음악 감상활동(김경은, 2011), 음악 활동(남옥선, 2007), 전래 놀이(김정희, 유효순, 2011), 전래 놀이 동요(최양윤, 2010), 음악을 통한 그림책 읽기(류승희, 이승우, 2012), 또래간의 신체활동(박유미, 최인숙, 김은아, 2010), 표현 예술놀이(주현주, 2010), 그림책(김지현, 2010)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한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와 영아와의 관계(김수정, 2009; 이옥임, 주봉관, 2006; 정미라, 2014), 보육교사와 영아와의 관계(김인숙, 2010; 박선화, 2013; 안문실, 2013), 또래 관계(김은아, 2009; 안지영, 2015)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질과 애착(김지선, 2009; 나양균, 2006; 신지연, 2004)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그 중 자연물을 활용한 연구로는 김슬기(2013)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실외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의의가 있으나 자연물에만 국한되어 진행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점토활동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 미술활동을 연구했으며,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소수이다. 그 중에서도 영아기가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점토활동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여러 가지 점토를 동시에 실시한 연구, 자연물과 병행하여 사회·정서적 효과를 진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재고 즉, 점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점토로만 제한된 활동이 아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좀 더 폭넓게 점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연 속에서 얻어진 자연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인 놀잇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및 자아 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감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촉진하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외현적 문제, 내면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C. 용어의 정의

1. 자연물

사전적 의미로써의 자연물은 인공으로 된 것이 아닌 자연계에 있는 유형물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이라고 보았으며(표준국어대사전, 2011), 대개의 경우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자연법칙에 의하여 발생되며 유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주변 환경, 길거리나 운동장, 근처 공원, 자연과 접한 정자, 산책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점, 선, 면, 부피, 가루 재료로 구성)로 즉 씨앗들, 나뭇가지, 나뭇잎, 풀잎, 꽃잎, 꽃, 모래와 채소와 과일, 각종 조개껍데기 등을 자연물로 지칭한다.

2. 점토

점토란 크기가 1/256㎜보다 작은 암석 부스러기 또는 광물 알갱이, 주로 작은 알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로 이루어진 퇴적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차진 흙(국립 국어원, 2008)이며, 빚는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Lowenfeld, 1957).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점토활동에 부합하는 색점토, 밀가루 점토, 지점토, 찰흙, 아이클레이의 5가지 종류를 지칭한다.

3.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본 연구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란 자연물과 여러 종류의 점토를 표현 재료로 이용하여 구성해 내는 활동이다. 즉 점, 선, 면, 부피, 가루의 특성을 가진 자연물과 색점토, 밀가루 점토, 지점토, 찰흙, 아이클레이 5가지 종류의 점토를 오감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탐색하면서, 영아 주도적인 자유로운 점토활동을 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마음껏 표현해내는 활동이다.

4. 사회·정서적 행동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적 행동을 타인(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으로 그 유형을 나눈다(Briggs-Gowan & Carter, 2001).

a. 긍정 행동

긍정 행동이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순종, 주의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유발,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를 포함한다.

b. 부정 행동

부정 행동이란 가정이나 기관에서 표출하는 부적응 행동 또는 타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부정행동은 외현적 문제(활동·충동성, 공격성·반항)와 내면적 문제(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로 구분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A. 자연물

1. 자연물의 개념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교육, 생태교육이 강조 되고 있으며(임재택, 김은주, 2007),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물은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되며, 자연에서의 오감각을 활용한 정서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전통적으로 유아교육에서 자연의 교육적 경험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해온 John Amos Comenius(1592~1670), Johann Heinrich Pestalozzi(1746~1827), Friedrich(Wilhelm August) Froebel(1782~1852), Henri Rousseau(1844~1910), John Dewey(1859~1952)등의 교육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Stanley Hall(1844~1924)이 생각한 최고의 유아교육기관은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놀이하고 자연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류를 중시하였고, 대부분의 놀잇감의 주를 이루는 것이 자연물이었다.

Monroe(1953)는 자연이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환경으로써 자연이란 물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자연으로써 식물, 동물, 흙, 해, 달, 별 등이 있으며(민성길, 2001), 자연물은 자연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1차원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Cobb(1975)는 모래, 돌, 나뭇가지 같은 자연 세계의 소재들은 유아들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세상을 조형해 나가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연과 자연물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자연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써의 자연물은 인공으로 된 것이 아닌 자연계에 있는 유형물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이라고 보았으며(표준국어대사전, 2011), 자연물은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로 인해 발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자연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물체나 대상으로써, 특정한 공통의 법칙에 따라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실체들의 묶음으로 정의 된다(Quine, 1969; Schwartz, 1977). 이에 인간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사물과는 차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연물은 인공물이 아닌 자연계에 있는 유형물이며, 자연 범주에 속하는 물체나 대상으로써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1차원적 산물이다.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교육, 생태교육 등 자연물은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자연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는 사상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자연물의 종류와 특성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자연법칙에 의해 발생되며 유지되는 자연물은 생명성에 따라 생물과 무생물로 나뉘며 생물은 다시 동식물로 나뉠 수 있고, 무생물은 천체나 기상에 관련된 대상, 지구 구성 물질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물의 범주들은 더 하위의 범주들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이렇듯 비 자연물에 비해 자연물은 범주 위계가 복잡하고 범주별 지식의 내용도 범주에 따라 상이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 간에도 외양과 그 속성에 있어 차이점이 매우 크다(최진승, 김지영, 1998). 자연물의 재료를 점, 선, 면, 부피, 가루 등으로 분류하여 그 재료의 종류와 특성을 제시하고, <표 1>과 같다.

<표 1> 자연물 재료의 종류와 특성

구분	재료 명	재료의 특성
점으로 된 재료	씨앗 · 곡식류, 도토리, 밤, 상수리, 대추, 감씨, 호박씨, 수박씨, 꽃씨, 탱자, 은행, 수수, 강낭콩	· 모양이 둥글고 색깔이 아름답다. · 색이 곱고 아름답다. · 작은 입자는 구멍을 뚫거나 연결하기 어렵다.
선으로 된 재료	볏짚류, 나뭇가지, 풀줄기, 싸리, 수숫대	· 재질이 곧은 성질이 있는 것과 쉽게 휠 수 있는 것이 있다. · 줄기의 질감과 독특한 색채가 아름답다.
면으로 된 재료	넓은 나뭇잎, 옥수수 잎, 풀잎, 새의 깃털, 나무껍질	· 모양이 아름다워 잘 말려서 나뭇잎 그대로 사용한다. · 여러 가지 농촌풍경 풀밭분위기를 내는데 사용한다. · 질감이 뚜렷하고 잎은 연결하기 좋고 색상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질하면서도 다양하다.
부피 재료	채소, 돌, 조개껍질, 달걀 껍데기, 조랑 박, 과일, 자갈	· 채소나 과일은 모양과 색상이 다양하나 쉽게 상한다. · 자갈과 돌은 구한 장소에 따라 표면의 재질감이 다양하다.
가루 재료	톱밥, 모래, 흙가루	· 까끌까끌한 성질이 있으며 물감흡수가 좋다. · 흙은 부드러우며 물감 흡수에 좋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연물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으며 비 자연물에 비해 하위 범주위계가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점, 선, 면, 부피, 가루로 된 재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동을 구성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가변적이고 종류와 수에 있어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3. 자연물의 가치

자연물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풍부한 감성, 감각 발달, 두뇌발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발달,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을 돕는다고 했다(강인구, 최경, 2006).

자연 범주에 속하는 자연물은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가변적이고 무한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물의 가치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자연물의 표현재료로써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 가능한 재료로써의 자연물로 다양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에서도 가변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가변성은 내재되어 있는 유아들의 창의성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료를 통한 발상을 가능케 하는 자연물로 같은 재료를 통한 다양한 발상을 가능케 하는 재료로써 자연물이 가진 각기 다른 독특한 형태와 색, 무늬 등을 가지고 있어 연상작용을 통해 유아들로 하여금 쉽게 표현하고자하는 대상을 발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해하지 않은 재료로써의 자연물로 대부분의 자연물은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인공적인 재료보다 활동재료로 안정적이다. 넷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재료로써의 자연물로 미술활동을 위해 많은 재료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입된 재료들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힘들어 또 다시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물은 우리 주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무한대로 그 재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섯째, 생동감이 있는 재료로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자연물로 자연에서 만난 재료들은 변화무쌍한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주적 질서의 순환원리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며 모습을 바뀌므로 매순간 생동감의 연속을 느낄 수 있다(오원선, 2008).

김선아(2006)는 유아들에게 자연물이라는 매체는 자발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동기를 주고 더 적극적인 관찰과 탐색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였다. 함영숙, 유영옥(2009)은 자연물이라는 새로운 자연재료는 기존의 획일적인 인공재료들과는 달리 유아들에게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하여 유아 스스로 재료 탐색을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또한 표상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아들의 자연재료 탐색을 통한 의미 부여와 자신의 의도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써 내면적인 표현이 밖으로 드러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고의 형성과 태도에도 변화를 미친다고 하였다.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첫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유아의 적응행동을 돕는다. 유아가 독립적으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며, 다양성을 제공하고 도전하게 하며, 동기부여를 해준다. 둘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심미감이 발달된다.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을 키우며 감상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셋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인지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돌의 단단함, 나무의 든든한 뿌리, 사과 껍질의 매끈함 등을 직접 만져보고 조작해보면서 이러한 사물들의 특성을 배운다. 넷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의사소통기술을 발달시켜 준다. 자연은 무궁무진하게 대화의 주제를 제공함으로 의사소통의 기술의 발달을 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 다섯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감각운동 발달에 도움이 된다. 넓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경험들을 통해서 감각 운동적 학습을 촉진시켜 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자유를 제공해 줄 때 유아의 성장과 감각운동 측면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자연물을 통한 체험은 사회 · 정서 발달을 돕는다. 자연에서의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증진시켜주며, 실외의 환경은 개인적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어 발견을 통한 학습을 돕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상과 같이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은 그 특성으로 인해 자연물의 가치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자연물을 미술활동 표현재료로써 활용 했을 때의 가치, 매체로써의 자연물의 가치, 자연물을 통하여 체험 했을 때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으로 영아의 내면세계를 표현해 내고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데 사용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점토

1. 점토의 개념

점토는 자연물의 일종으로써, 자연과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써의 점토는 입자크기가 작고 무른 흙이다. 국제토양학회나 미국 농무성 규정에 의하면 입경이 0.002mm 이하인 흙이며 비교적 점토입자를 많이 함유한 점성이 많은 세립토로써 가늘고 긴 형상을 가진 흙을 말하며, 특히 0.001mm 이하는 콜로이드(colloid)라 부르며(Daum, 백과사전), 크기가 1/256mm보다 작은 암석 부스러기 또는 광물 알갱이, 주로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퇴적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차진 흙(국립 국어원, 2008)이며, 빚는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말한다(Lowenfeld, 1957).

임무근(1992)은 점토는 한 덩어리의 흙으로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이나 정서에 밀착되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였으며, 인류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온 가장 오래된 예술 재료 중의 하나이며, 흙으로 만든 조형물로는 토성, 토담과 같은 구축물로부터 시작해서 전, 붉은 벽돌, 하수관, 술병, 주전자, 사발, 접시, 찻잔, 뚝배기 같은 생활용기와 토우, 테라코타를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조형작품에 이르기까지 글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래, 흙, 돌, 물이 만나 구성된 자연물의 일종인 점토(粘土)를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끈끈하고 점성을 지닌 흙이다. 점토를 또 다른 말로 찰흙이라고도 하며(최윤지, 구효정, 2009), 인류사의 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열려있는 표현재료이다.

2. 점토의 종류 및 사용법

영아는 자신을 둘러 싼 환경에서 다양한 촉감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받아야 하는데, 촉감의 탐색이 곧 언어의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이다. 영아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재료 선정을 할 때 밀가루, 지점토, 찰흙 등의 촉감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심영옥, 2004).

영아가 점토를 활용하고 탐색을 시작 할 수 있는 시기는 12개월을 전후하는 시기로 난화기의 시작과 함께 점토의 탐색 또한 함께 진행되어질 수 있다. 다만, 12개월을 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후한 시기는 영아들이 재료를 입으로 가져가는 빈도가 강한 시기이므로 제공 되어지는 점토 또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점토류는 땅콩버터를 이용한 점토나 식빵점토, 밀가루 점토, 전분점토 등 음용하여도 해가 되지 않는 점토류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이 후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현상이 없어지는 18개월 전후의 영아들은 점토 활용의 폭이 더욱 넓어져 일반적인 찰흙이나 지점토, 휴지죽, 톱밥점토, 고무점토 등 다양한 점토의 제공이 가능해진다(조윤경, 2005).

이외에도 아이클레이, 색점토, 커피점토, 유점토, 폴모, 브론즈점토, 빵가루 점토, 종이점토, 플라스틱점토, 브론즈 점토 등 다양한 점토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찰흙, 지점토, 밀가루 점토, 아이클레이, 색점토 5가지 종류의 점토에 대해 사용법 및 재생방법을 소개하고자한다.

a. 찰흙

찰흙의 특징은 첫째, 만든 그대로 건조시킨 것은 부서지기 쉽다. 둘째, 도자기로 구워 낼 때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 셋째, 장식품, 수예적인 작품 등 실용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보존과 사용법은 첫째, 즉시 건조하여 굳어지므로 비닐자루와 폴리에틸렌 주머니에 넣어 보관한다. 둘째, 건조한 점토는 물속에 담가서 재생 할 수 있다. 셋째, 지점토와 마찬가지로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점토의 질이 다른 것은 잘 뒤섞여서 반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재생 방법은 첫째, 잘 건조시켜 부순 다음에 물을 섞어 넣어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점토 속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죽한다. 둘째, 비닐 자루 안에 물을 넣고, 점토를 담가 놓고서 반죽을 해도 좋다.

b. 지점토

지점토의 특징은 첫째, 종이섬유(펄프)에 풀을 섞어서 만든 점토이다. 건조가 빠르고, 마르면 굳어져 가벼워진다. 둘째, 병과 플라스틱 등 가까운 주변의 소재를 심재로 사용할 수 있다.

보존과 사용법은 첫째, 1시간 ~ 수 시간 지나면 표면이 건조하여 딱딱해진다. 둘째, 단기간의 보존은 젖은 수건으로 싸 놓으면 된다. 셋째, 비닐봉지에 밀폐해두면 어느 정도 보존은 되지만, 금방 굳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개봉한 것은 한 번에 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얼면 너덜너덜하게 부숴 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생 방법은 첫째, 딱딱하게 굳어 버린 것은 물에 적신 헝겊으로 말아 싸서 찐 후에 잘 반죽하면 좋다. 둘째, 비닐 자루 안에 물을 넣어서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다.

c. 밀가루 점토

밀가루점토의 특징은 첫째,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다. 영아는 손과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손으로 떼어보기, 길게 만들어 보기 등 결과와는 무관한 단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손에 묻지 않으며, 질감이 부드럽고, 입에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으며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원색에서 혼색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

보존과 사용법은 첫째,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용기에 넣어둔다. 둘째,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2시간 전에 꺼내둔다. 셋째, 무더운 여름에는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알맞다.

재생 방법은 첫째,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하기 2시간 전에 꺼내어 주물러 준다. 셋째, 냄새가 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만드는 방법은 밀가루 2컵, 물 반 컵, 소금 1컵, 식용색소를 잘 섞고, 색을 넣어 반죽하고 덩어리가 없도록 계속 주무른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첨가해서 윤기를 주며 이는 작은 덩어리로 떼어낼 때 유용하다. 식용색소 대신에 시금치, 당근, 포도 주스 등 인체에 무해한 염료를 사용하여 색을 낼 수도 있다.

d.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의 특징은 첫째, 색이 매우 잘 섞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공작용 재료이다. 둘째, 많이 주무를수록 매끄러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부드럽고 가볍다, 넷째, 색상이 밝고 선명하다. 다섯째, 탄성재료라 공을 만들었을 때 통통 튀기는 느낌이 재미있다.

사용법은 첫째, 사용할 분량만 꺼낸 후 뚜껑을 잘 닫아 보관한다. 둘째, 작품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소량 묻혀 반죽하면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실온에서 자연 건조되므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구울 필요가 없다. 넷째, 만들다 망쳤을 경우 뭉쳐서 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다섯째, 반죽을 하던 손에 묻어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우, 반죽을 계속 하면 다시 점토로 뭉쳐서 손이 깨끗해진다.

e. 색점토

색점토의 특징은 첫째, 색의 혼합이 자유로워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예쁜 칼라로 재미있고 다양한 공작물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영아의 색감을 풍부하게 발달시키며 창의력발달이나 EQ를 개발시킨다. 넷째, 밀가루가 주원료인 점토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하게 굳어지고 갈라진다.

이와 같이 점토는 어린연령부터 사용가능하지만 안정성에 유념을 두고 이용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점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토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로 인해 사용법, 재생방법도 조금씩 상이하므로 잘 파악하여 점토 활동 시 유념해두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점토의 특성

점토는 그 소재의 특성인 가소성 및 내연성이 있으며 점토의 점력은 영아들이 만지기에 적당하므로 가장 보편적인 조형 활동 재료 중의 하나이며 입체적 양감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조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이면서 조형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이러한 점토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촉감성이다. 피부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다(신영선, 2000). 점토활동은 직접적인 활동으로 유아들은 손을 통해서 주무르고, 떼고, 비비고, 문지르고 하는 등의 활동으로 감각적, 촉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점토는 함수율에 따라 부드러운 감촉과 거친 감촉 등 다양한 촉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둘째, 가소성과 가변성이다. 가소성은 빚는 대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다. 점토는 가소성이 커서 부드럽고 쉽게 집고, 짜내고, 말아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유아가 직접 손으로 주무르고 만지며 조작하면서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지표는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었다가 다시 녹는 등의 풍화작용에 의해 점차 바위에서 돌멩이로 변화하며, 다시 돌멩이는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은 점토가 된다. 동시에 화학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따라서 점토는 지표가 지질학적·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이루어진 산물이다. 이러한 산물인 한 덩어리의 흙은 부드러워서 손으로 쉽게 다룰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가소성이라는 점토의 특성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이러한 가소성으로 인하여 점토를 통한 집고, 짜내고, 말아보기도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형을 갖고 있는 점토에 힘을 가하면 그 형태가 변하며 손이나 간단한 도구에 의해서도 변형이 가능하다(유경숙, 1999). 가변성은 어떠한 작품을 만들더라고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재료의 변화 없이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생각이 바뀌면 어제든지 바뀌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며 실패나 좌절을 맛보지 않고 찍기에서 말기로 말기에서 쌓기로 쌓기에서 자르기 등으로 다양한 활동의 변형이 가능하고, 작품을 수정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다.

셋째, 수정성이다. 점토는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만든 점토 작품의 수정이 쉽게 이루어진다. 어떠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재료의 변화 없이 만들 수 있다.

넷째, 표현성이다. 점토는 평면 표현도 가능하지만, 실제 세계와 같은 입체 표현이 가능하다. 신영선(2000)에 의하면 점토의 입체표현은 다양한 기법을 통한 재료의 구성효과에 따라 무한한 변화와 깊은 내적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체적 변화에 따라 공간적인 효과와 더불어 생명감을 느끼게 해주고 특히 덩어리감은 동세의 표현이 쉽도록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접착성이다. 점토는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점토 자체로 결합과 접착이 가능하여(신영선, 2000), 다른 재료에도 접착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운동성이다. 점토활동을 할 때 유아들은 손 근육을 계속 해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일어서서 점토를 두드리다 보면 몸 전체의 근육을 다 움직이게 되어 대·소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 운동을 하게 된다(신영선, 2000).

일곱째, 보관성이다. 물에 축인 점토는 그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공기에 노출되어 마르게 되면 쉽게 부서진다. 마른 점토를 다시 사용하려면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마른 점토가 물을 흡수할 때, 점토 사이의 입자들은 헐거워질 뿐만 아니라 점토들이 완전히 축축해져 있을 때에는 서로 서로 달라붙어 안 떨어진다.

여덟째, 다양성이다. 점토의 종류는 다양하다. 점토의 형태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조건이 다양함에 따라 화학적 구성성분과 물리적 구조가 다른 여러 점토가 만들어졌다. 전문적인 점토로는 고령토(자연 상태에서는 희귀하지만 순수한 백자기나 도자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됨)와 볼클레(철분이 많으며 실질적이며 작업하기 쉬운 점토), 내화 점토, 토기점토가 있고, 비전문적인 점토로는 일반 점토, 유토(일반 점토보다 손에 덜 묻고, 만질수록 손의 열에 의해 가소성이 더욱 좋아짐), 칼라점토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홉째, 입체성이다. 입체표현은 3차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길이, 넓이뿐만 아니라 둘레와 공간까지도 알 수 있다(Topal, 1983). 또한 유아는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움직이고, 놀이하기 때문에 3차원의 입체표현활동은 미술표현에서 형태 개념이 풍부해지고 세밀해지고 상관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자연적인 표현 경로가 된다. 입체 표현은 내적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효과와 생명감, 동세, 시간성을 느낄 수 있다. Lowenfeld(1957)는 점토가 입체감과 유연성을 갖고 있어 유아들의 개념이 융통성 있게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점토는 원초적인 감각경험과 즐거움을 주며 3차원적 매체가 줄 수 있는 입체적 조형 활동을 제공해 준다.

열째, 흥미성이다. 아이들은 점토를 손으로 만지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된다. 점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실수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그것은 작품을 완성하는데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될 수 있다(Wood, 1981). 점토활동은 흥미지속 시간이 길며, 작품을 만들면서 다른 것과 연관을 지어서도 생각을 하게 하였고 다른 점토들과도 섞을 수 있고 망가졌다면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점토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 특성을 살펴보면, '변형 가능성' 즉 자유자재로 형태변형이 가능한 재료이다. Clemens(1991)은 점토는 만지는 대로 형태가 이루어지고, 점토를 만지고 탐색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재료라 하였다. 이러한 점토의 변형 가능성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어, 영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교수매체인것이다.

4. 점토 표현의 발달 단계

아이들의 점토표현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 그 발달 양상이 다르므로 연령별로 특징을 범주화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범주화한 점토표현 발달단계(Lowenfeld, 1964; 이은학, 1999; 이길종, 1981; Schirrmacher, 2006; 염태진, 199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Lowenfeld(1964)는 약시 아동이나 맹아의 조형 활동을 조사 연구하고 정상아동과의 조형을 비교하여 7단계 조형 활동 연구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1단계, 난화기(the scribbling stage, 2~4세), 2단계, 전도식기(the preschematic stage, 4~7세), 3단계, 도식기(the schematic stage, 7~9세), 4단계, 또래 집단기(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ang age, 9~11세), 5단계, 의사실기(the pseudo-naturalistic stage, 11~13세), 6단계, 결정기(the period of decion, 13~17세), 7단계, 청소년기(adolescent art)로 구분된다. 이러한 단계 구분 중 난화기와 전도식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난화기(2~4세)는 목적 없이 점토를 주무르고 점토로 둥근형과 막대형을 만들며 만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여 가지고 놀이한다. 2단계 전도식기(4~7세)는 점토로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표현양식을 변화시키며 세부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분들을 첨가시켜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작품을 만든다. 그러나 조윤경(2005)은 미적 표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 영아들의 발달단계가 Lowenfeld의 발달단계에 비하여 빠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은학(1999)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자공예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이전 연령의 점토발달 특징에 따른 교육방법을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세 이전 유아는 형태에 대한 지각이 형성되는 시기로 대개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기 어려운 시기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도자공예에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도자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도가 적당하며 제작 방법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직선, 곡선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붙여보는 작업과 도장 찍기, 점토 쌓기, 재미있게 주물러보기 등 점토작업에 대한 흥미를 더해주는 작업방법이 바람직하다. 만 5세~만 6세의 유아는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연령이다. 막연한 작업보다는 계절별, 월별로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동기유발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다. 성형방법은 주물러 만들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아동들은 가래성형 방법을 이용하여 작은 그릇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길종(1981)은 3~5세 맹목적 조형기는 어깨와 팔의 운동과 손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형체를 만들어내고 목적 없이 점토를 주무르는 행위에서 손끝에 닿는 점토의 촉감을 즐기는 단계이며, 5~7세 경단기는 점차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 발달하고 점토를 만지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공 모양을 만들며 점토나 기타 재료를 손과 손 사이에 놓고 굴리거나 쌓는 과정으로 경단을 만들고 만든 것에 이름을 붙여 만족감을 갖는 단계라고 하였다.

Schirrmacher(2006)은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탐색활동으로 2세 정도의 유아는 오 감각을 활용하여 점토를 만져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점토를 다룰 때 나는 소리를 듣는다. 즉, 유아는 점토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오 감각을 동원하여 점토를 만져보고 던져보고 튕겨보는 등 물리적 행동을 한다. 2단계는 궁리단계로 탐색단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바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세 정도의 유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점토를 다루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토의 물리적 속성을 알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의도는 없지만 우연하게 간단한 모양들(공, 케이크, 뱀)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활동을 반복해 나가며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 3단계는 제작단계로 4세 정도 유아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며 자기가 만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 제작 단계는 5세 정도의 유아는 미리 무엇을 만들지 계획한 다음 제작에 들어간다. 이시기의 유아는 점토가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의 재료임을 알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염태진(1996)은 연령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무의미 단계(만 2~4세)로 목적 없이 점토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재료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행동을 하면서 유아는 재료의 특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점토놀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우연성이 강하며, 유아는 만든 작품의 결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2단계는 상징의 단계(만 3세~4세)로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에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의 단계'이다. 이단계의 초기에 유아는 만들어진 것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든지 간에 그때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고 즐거워한다. 또 '토끼'라고 이름 붙였던 것을 다시 '강아지'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 단계의 후기에는 무의식적인 활동이 점차 의식적으로 발전한다. 또한 조형능력이 나타나고 간단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반복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의 단계인 무의미 단계의 만들기 행동과는 달리 이미 의식적인 만들기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3단계는 창조활동의 단계(만 4세~5세)로 대상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단계 유아는 관심이 있는 것, 흥미 있는 것을 크게 과장해서 만들고 관심이 없는 것, 흥미가 없는 것을 작게 만들거나 생략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나 통일성이 없는 작품이 되기도 한다. 또 유아는 무엇을 만들 때 손만으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떠한 용구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때 용구 사용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용구 사용 기능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점토표현 발달단계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점토를 가지고 주무르고, 굴리고, 짓이기고, 손가락으로 꾹 찔러보고, 냄새도 맡으면서 원시적인 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감을 느끼며 감각적인 단순한 활동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모양과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시키고 마음껏 표현하며 구성해 나가는데 사용 할 것이다.

5. 점토활동의 교육적 가치

점토활동은 영아의 욕구나, 흥미, 창조의 본능을 자극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작하는 기쁨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며, 만지는 대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들의 표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매체이다. 점토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점토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크게 열까지 측면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 점토활동은 영아들의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만 2세 영아 다섯 명의 점토활동을 질적으로 분석한 조형숙, 이은형(2010)은 영아들이 점토로 만든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모습을 보고 창의적 표현과 연결시켰다. 점토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양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부분과 전체를 떼었다 붙이는 것이 용이하여 새로운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점토활동은 영아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점토의 부드러운 촉감으로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반복적인 활동과 자유자재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긴장을 해소하도록 돕는다(한영주, 2012).

셋째, 점토활동은 영아에게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영아들이 점토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나 자신이 만들고 있는 행동들을 혼잣말 혹은 교사나 또래 영아들에게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며(조형숙, 이은형, 2010), 점토를 매개로 나타난 영아의 말과 몸짓, 행위에 대한 시선의 교류는 만 1세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김준아, 2012).

넷째, 점토활동은 영아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 문지현(2012)은 점토활동 전과 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만 2세 영아의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를 향상시킨다.

다섯째, 점토활동은 영아의 인지발달을 향상 시킨다. 같은 수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공간과 도형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기, 분류하기를 통해 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김민정, 이미영,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섯째, 점토 활동이 영아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를 다룬 연구들은 점토의 특성이 영아의 발달과 욕구에 매우 적절하다. 색점토는 영아들의 흥미를 끌고 동기를 유발하고, 색깔과 관련한 대상을 떠올리게 돕는다(김희진 외, 2004a). 영아들은 점토활동을 통해 감각을 활용한 탐색이 가능한데(조형숙, 이은형, 2010), 주로 손 전체를 사용하여 점토를 탐색하고 형태를 만들며 도구를 사용한다. 또한 영아들은 점토로 다양한 사물을 표상하면서 또래 및 성인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점토는 상상놀이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일곱째, 점토활동은 영아의 운동발달을 촉진한다. 영아는 대·소근육을 활용하여 점토활동을 하며 이는 대·소근육 운동 연습 및 발달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촉감이 발달하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게 된다(김윤경, 1999; 한영주, 2012).

여덟째, 점토활동은 영아의 개인차를 수용하는데 유용한 재료이다. 영아기의 발달은 개인차가 커서 동일한 만 2세 학급의 영아들이라 하더라도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발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을 나타낸다. 점토는 이러한 발달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활용이 가능하며 영아들은 동일한 점토활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점차 점토를 다루는 기술과 사용법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희진 외, 2004b).

아홉째, 점토활동은 영아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점토는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아가 뭉치고 만들고 다시 뭉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할 수 있다. 영아는 부분적으로 만든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합치거나 떼어낼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것을 쉽게 수정할 수 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한영주, 2012).

열째, 점토활동은 영아들이 입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점토는 두께와 무게를 지닌 재료이기에 평면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공간과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한영주, 2012).

결론적으로 점토활동은 영아의 발달과 욕구에 매우 적절하며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창의성, 표현력 발달 등을 향상시켜 영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

1.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의 개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아들은 무한한 표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 주변 생활환경에서 수시로 접하고 있는 발밑의 흙, 화단에서 주운 나뭇가지, 들녘에 피어있는 꽃과 잎 등 유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훌륭한 표현 대상이자 재료이다. 그러나 무한한 표현 욕구를 가진 유아들에게 현재 행해지고 있는 미술활동은 너무나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획일적이고 상품화된 재료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표현 공간 역시 교실 안으로 제한되어 있다(함영숙, 유영옥, 2009). 유아의 창의적 표현력은 새로운 재료나 기법을 경험하게 하거나 제시 활용하게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으며(이경희, 2001), 주변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체험 활동은 미술을 표현하는 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찾아보고 개선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김소령, 2007).

이렇듯 자연물을 활용한 활동은 유아들에게 새로운 표현 재료와 매체, 수업환경 자체가 신선한 자극이 되어 생동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적극적인 표현 동기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함영숙, 유영옥, 2009).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에 대한 개념을 선행연구에서 고찰해보면, 강명숙(2009)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란 친숙하고 다양한 자연 재료를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화하고 아름다움을 직접 표현하고 제작하는 학습활동이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관찰하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각과 정서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순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임춘연(2005)에 의하면 점토는 만지는 대로 형이 이루어지므로 유아의 의식 세계를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고, 물렁물렁하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저항을 느끼지 않고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그리고 자연물을 이용함으로써 벼, 땅콩, 깨, 돌, 조개, 야생화 등을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촉감을 느끼면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유아가 자연물의 원천에 대해 그리고 벼, 돌, 조개, 들 꽃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유아는 자연스러운 자연과의 만남이 된다. 이렇듯 자연물을 이용해서 점토활동을 한다면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들며 흙, 꽃, 풀등에서 느끼는 감성들은 더 커지리라 본다. 또한 자연물의 색과 모양은 감수성과 감각을 기르는 자원으로 이를 점토활동에 이용 할 때 색, 선, 구성, 모양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 즉, 자연물과 점토는 원초적인 감각 경험과 즐거움을 주며 입체적 활동기회를 주며, 자연과의 동일시와 창의적인 표현력이 향상되고 표현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는 미성숙하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 탐색하고 만져보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하나씩 알아가는 적극적인 주체자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에는 영아를 단지 어린 아이 즉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 하였지만, 현재는 각 개인마다 개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주체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영아기는 생애에 있어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예민하고 분주한 시기이다. 또한 모든지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존재이면서 스스로해보고 싶어 하는 자율성이 커지므로 영아의 발달에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해야 한다. 영아의 발달에 적절한 놀잇감 중 영아의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자연물'이다. 인위적인 장난감에 비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연물을 구할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자발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동기를 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관찰과 탐색이 이루어지게 한다(김선아, 2006).

만 2세 표준 보육과정 지도서(2013)에 제시된 다양한 자연물 놀이 활동을 살펴보면 그릇에 모래를 담아보기, 물 페인트 놀이를 해보기, 모래 속에서 보물찾기, 하늘을 보아요, 나뭇잎베개와 꽃잎 베개 만들기, 과일 씨로 마라카스 만들기, 조개와 소라껍질을 살펴보기, 모래로 집을 지어보기, 동물 색모래 그림, 알록달록 가을 나무 꾸미기,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낙엽 살펴보기, 숟가락으로 열매 옮기기, 나뭇잎으로 징검다리 건너기, 나뭇잎에 그림 편지 쓰기, 단풍잎(은행잎)방석 탐색하기, 나뭇잎 왕관 만들고 왕관 쓰고 놀이하기, 나무 악기 연주하기, 콩 주머니 던지기, 자연물(탐색)그림책, 조각 천 염색하기, 열매와 나뭇잎 소꿉놀이, 솔방울에 색깔 입히기, 춤추는 씨앗(큰북으로 두드리기), 흙으로 놀기, 알록달록 색 소금 만들기, 눈에 물감 뿌리기, 겨울바람 소리듣기, 솔방울을 굴려보기, 각종과일 탐색하고 먹어보기 활동 등 영아의 오감을 자극하고 자연물을 만지며 느껴보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영아기 발달단계에도 자연물을 활용한 활동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란 어린이집 주변에서 채취 할 수 있는 친숙하고 다양한 자연재료인 자연물을 활용하여 접착성이라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점토에 자연물을 아울러서 놀아보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에 색점토, 밀가루 점토, 지점토, 찰흙, 아이클레이의 점토 5가지 종류를 활용하여 점토의 단단함, 무르기 등 점토의 성질에 대해 알아가며 오감으로 다양하게 탐색해 보면서, 영아는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하여 자연물에 내재되어있는 미적요소인 선, 면, 색채, 형태, 질감, 공간 등의 초보적인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직접 표현해 보면서 느껴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의 필요성

영아기는 신체, 언어, 사회, 인지, 정서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장영희(2001)에 의하면 영아기는 일생 중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 과업을 수행해가며 전 생애 발달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희연(2005)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표준보육과정에 맞추어 0세~5세까지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관련 자료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관계로 영아보육 현장에서는 유아를 위한 활동을 단순화시켜 영아들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Albrecht & Miller, 2001; Greenman & Stonehouse, 1996). 영아기 발달을 원만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적적한 활동으로 미술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이정욱, 임수진, 2003; Alvono, 2000; Peggy, 1998; Schirrmacher, 2006), 미술활동이 속해있는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살펴보면, 예술경험영역으로 '심미적 탐색,'예술적 표현', '예술감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있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한편, Llyold와 Howe(2003)는 사용하는 활동 자료의 종류가 유아들의 활동유형과 사고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위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특성의 교수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개방형 놀이 자료는 유아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며, 유아들의 놀이 확장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영아에게 적합한 미술활동 재료로 찰흙이나 점토를 제안할 수 있다.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재료 선정을 할 때 촉감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다양한 촉감을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받아야 하는데, 촉감의 탐색이 곧 언어의 발달이나 인지적 발달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이다(심영옥, 2004). 오정현, 이종순(2007)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는 유아와 교사, 유아와 교수목표를 연결 짓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며, 효율적인 교수매체는 그 중요한 만큼 다양하고 활발히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령전기의 유아는 문자 해독이전의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수전달 매체는 그들의 감각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영아기는 오감각을 활용하여 영아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영아의 감각적 탐색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점토는 좋은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김정(1998)은 유아들은 인간생존을 위해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그 일에 자기가 희열을 느끼며, 이것이 조형 교육의 기초가 된다. Mayesky(1998)은 점토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유아의 미세근육을 발달시키고, 레지오에밀리아의 유아교육에서는 점토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유아의 아이디어를 더 정교하고 확장시키며 다양한 단계를 거칠 수 있다. 또한 점토를 활용한 활동은 유아의 문제해결력과 대인관계 기술 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아가 조형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고 실행에 옮겨 자신이 원하는 조형물을 창안하도록 이끄는 유아 주도적 교수방법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강경희, 오영희, 2010).

그러나 점토만으로 다양한 조형작품을 제작하고 실생활에 사용해 보는데 제한적이며, 점토놀이만을 통한 영아의 조형 감각 계발은 한계점이 있어 점토이외에 다른 조형재료와 함께 사용하기를 권장한 바 있다(김남영, 2000; 안명자, 1995; 조윤경, 2005). 따라서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놀아보는 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김미래(2015)는 영아들이 조작할 수 있는 자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것들이 만들어 내는 색, 촉감, 소리가 무궁무진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은 영아의 탐색활동을 촉진시켜 준다. 또한 자연물의 종류에 따른 개체수가 많은 것과 드넓게 탁 트인 환경은 영아들의 사회적 놀이 특성과 신체적 발달 특성을 충족시켜 주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영아의 탐색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친숙하게 애착을 형성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앎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Kaplan(1992)은 유아에게 자연환경은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으며 조약돌이나 조개껍질, 나뭇잎, 흙, 모래와 같은 자연물은 의미 있는 학습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유아들은 인공으로 제작된 인공물에 노출되어 자연물에 대한 감성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물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들을 자연물에 대해 보다 친숙하고 친환경적인 아이로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김혜원, 장영숙, 2015).

즉 위의 연구들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자연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아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아가 인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자연친화적 놀잇감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Holt(1991)는 유아에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임재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2)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와 자연 그리고 아이다움을 찾아 주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인 생태중심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자연활동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친화 교육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사용하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이나 숲 유치원등이 관심을 얻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활동으로 ‘자연친화교육’, ‘생태유아교육’, ‘자연체험학습’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있다(서영희, 김은주, 2011; 이미혜, 최미숙, 2010; 조형숙,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점토로만 제한된 활동이 아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좀 더 폭넓게 점토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며, 유아교육기관과 주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얻어진 자연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자연과의 상호작용경험을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인공재료가 아닌 자연 친화적인 놀잇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D.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1.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개념

영아기의 발달과 학습은 생물학적 성숙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황에 기인한다. 이 시기는 모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며, 일생 중 빠른 발달이 진행되므로 이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타인과의 상호 작용은 이후의 삶과 여러 발달에서 개별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누적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발달을 지연시키기도 한다(Bowlby, 1969; Bredekamp & Copple, 1997; Erikson, 1950).

이렇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 및 유지, 또래 수용 같은 사회·정서적 능력은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며,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신지연, 2004; 이숙희 외, 2009; 정계숙, 심미경, 1998).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행동 특성 및 영역에 대해 학자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행동은 문화권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가 사회마다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정서적 행동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김미자, 1995), 영유아들이 표현하는 정서의 내용이나 유형들을 사회적 행동 안에 포함하기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기 때문에(황현주, 1991),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는 동안 정서적 표현을 하게 되고 정서가 사회적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Ladd & Profilet(1996)은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공격성, 친사회성, 비사회성, 배척, 불안-공포 그리고 과잉-산만의 여섯 가지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정순(2002)은 여러 이론들 가운데 공통적인 견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가 출생 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내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접촉 및 집단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 양상을 통하여 그 집단의 가치, 문화, 규범들은 익혀 가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그에 알맞은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금실(2004)은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하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유아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행동을 사회·정서적 행동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서적 행동은 가정 내의 요인과 가정 밖의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므로, 또래나 교사등 유아교육기관내의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정서적 행동이 포함됨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정서를 성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성격과 사회성 간의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은 채 같은 특성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이영, 조연순, 1991).

최혜순(1993)은 사회적 행동을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행동으로서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장영희(1987)는 사회적 행동을 다른 사람에 의해 유발되거나 또는 반응을 시도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타인에 대해 가지는 정서에 의해 반응 행동의 내용이 결정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이란 타인과의 관계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태도, 감정 등 정서가 포함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행동에 작용하고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아기의 정서는 지적 능력이나 신체발달,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인 자기 평가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다양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영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최정미, 2002), 바람직한 정서표현은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양연숙, 2000)이다. 또한 영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등 영아의 정서 발달에 필수적(권혜진, 이순형, 2001)이며, 정서 발달은 영유아에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성 발달에 기초(이선영, 2006)가 됨으로 영아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미래의 행동들 즉 또래 놀이에서의 감정표현, 유치원과 학교에의 적응, 부모와 다른 성인과의 애착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서를 표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 행동을 사회적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정서적 행동은 사회 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와 집단 내에서의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회·정서적 행동이나 정서를 포함한 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은 영아가 표출하는 부적응 행동 또는 양육자나 다른 영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이다(신지연, 2004).

Hartup, Glazer & Charlesworth(1967)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친구의 요구 수락, 애정 표시, 관심 보이기, 인정하기, 자기 물건 남에게 나누어 주기 등의 긍정적 행동과 방해, 공격, 불복종의 부정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최혜순(1993)역시 유아의 사회적 행동 유형을 친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친사회적 행동으로는 협동, 경쟁, 관용,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 동정, 공감적 이해, 의존성, 우정, 이타심, 모방, 애착행동 등이 해당 된다고 하였다. 비사회적 행동으로는 반항심, 공격성, 말다툼, 괴롭히기 및 난폭행동, 우월성, 이기주의, 편견, 성 적대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김규수와 고정곤(2005)에 의하면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협동, 경쟁, 동정심, 우정 등과 같은 행동이라고 하였다. 반면 소극적인 사회적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유형으로 공격성, 말다툼, 학대, 반항 등이라고 구분하였다.

한편,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해설서(2013)을 살펴보면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이중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사회관계영역과 대입을 시켜볼 수 있는데 내용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가 3개이고 내용은 8개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 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나를 구별하기, 좋아하는 것 해보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는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는 내 가족을 알기, 또래와 관계하기,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사회적 가치를 알기로 각각 내용이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행동을 타인(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으로 그 유형을 나눈다. 긍정행동과 부정행동의 하위 행동 영역과 분류는 Briggs-Gowan & Carter(2001)의 분류 방법에 따랐다.

2.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이란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순응, 주의 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 관계를 포함한다.

첫째, '순응'이란 활동의 규칙 및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타인의 지시 및 제안에 따른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Gralinski & Koop(1993)는 순응을 성인이나 부모의 요구 또는 금지를 따르는 행동으로 보았으며, 부모의 개입과 감독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 수준의 자기규제를 반영하는 연속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순응 행동은 그 이면에 놓인 동기에 따라 내적 동기에 의한 순응(자발적 순응)과 외부의 부모 통제에 의해 동기화된 순응(상황적 순응)으로 나뉘는데, 내면화된 동기에 의한 순응행동이 더 진보된 순응행동이며 자기 규제의 기초가 된다(김미정, 2001). 자발적 순응은 어머니의 명령이나 요구를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열의 혹은 내적 의무감의 동기에서 비롯되어 어머니의 조정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순응하는 행동이다. 이에 비해 상황적 순응은 순응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응이 상황적으로 결정되며 부모의 조정이 있어야 계속 유지된다(Kuczynski & Akson, 1995).

만 2세 영아는 자율성이 나타나고 자기주장이 강해져 불 순응적 행동이 절정에 이르고 주도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므로 자기의 요구와 성인의 지시, 명령사이에서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순응과 지시 따르기의 순응행동을 통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김미정, 2001).

둘째, '주의집중' 이란 한 개 이상의 여러 자극이 있을 때 어떠한 두 개의 특정 자극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의집중은 선택(selection), 유지(Maintenance), 전이(Shift)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택이란 부적절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란 자극이 일단 선택되면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주의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전이란 주의가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의 집중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를 모두 포함하며, 시각적인 것에서 비시각적인 것으로 확대된다(Pick, Hess, & Frankel, 1974).

만 2세 영아들은 다양한 사물과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기 쉬운데 흥미로운 자극을 제시되고 영아들이 선택, 유지,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의 행동이나 사물에 대해 관심 있는 시선을 보내고 주의 집중을 통제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하게 된다.

셋째, '모방 및 놀이' 는 상징놀이 및 타인의 행동 모방을 의미한다. '모방' 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아는 모방을 사용해서 부모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행동이나 대화의 반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영아기는 모방행동이 가장 동기화되어 있는 시기로 또래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서로의 행동을 모방한다(장영희, 2000).

일반적으로 만 2~3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한 행동을 따라하는 모방행동이 발달하게 된다. 사회학습이론의 Bandura(1997)는 직접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해 보이는 학습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그 결과를 지켜봄으로써 대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모방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유아는 '놀이' 를 통해서 놀이의 수준과 사회적, 언어적, 감정적, 운동적, 유능성 등을 질적·양적으로 발달시킴으로써, 성장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Cook & Sinker, 1993). 본질적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자발적 활동인 놀이를 통해 놀이하는 동안 만 2세 영아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부터 보이게 되는 가상적 행동은 놀이를 통하여 표현된다(이화여자대학교 아동교육연구부, 2004). 즉 사물을 대하지 않고 사물의 모습을 떠올리는 표상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상징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하고 상상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탈 중심화, 탈맥락화, 통합의 인지구조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Hughes, Elicker & Veen, 1995). 다시 말해 놀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주인공화 할 수 있고, 어떠한 사물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능력이 있으며, 놀이의 흐름이 연속성이 있는 연결된 행동으로 구성된다. 영아는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학습을 하게 되며 이때 성인이 어떻게 중재해 주느냐에 따라 놀이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놀이의 지속 시간이 짧고 놀이 내용이 단편적인 것이 특징이나 이 시기의 또래 간 모방을 통한 놀이는 이후의 협동놀이를 촉진시켜준다(Kagan, 1981). 그러므로 영아들에게 있어 놀이는 또래 혹은 성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놀이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이후의 또래간 놀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넷째, '동기' 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상태이고 인간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개인내의 활성화된 힘이다. Morgan & King(1971)은 동기를 유기체 내에서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즉,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활성화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에너지원이 바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동기는 유발되는 관점에 따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분류된다. Deci & Ryan(1991)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란 참여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 의욕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유능감, 관심, 흥미, 과제에 대한 몰입, 감정, 호기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외재적 동기란 외부로부터의 유인자극에 의한 활동에 흥미와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며, 벌을 피하는 의도적 행위와 보상과 같은 외적 요소의 통제에 의한 동기를 말한다. 따라서 영아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정이입' 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행동 및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의미한다. 만 2세 영아의 감정이입은 아동이나 성인의 정서에서 발생하는 감정이입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이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지각한 바를 느껴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인데, 영아들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정서를 공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전히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진다. 또한 미분화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조하기는 하나, 이때 감정 이입 현상에는 타인 조망이 제한되어 있다. 영아의 감정이입적 반응은 인지적 성장과 함께 그 빈도와 범위가 증가하며 연령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의 개념은 인지와 정서 가운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한 가지 관점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지적 상태나 조망을 인지적 역할수용을 통하여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은 정서적 역할 수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Coke, Batson & Mcdavis(1978)는 감정이입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이입적 반응이 유발되는 단계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동기화되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감정이입과 이타행동은 모두 타인의 조망을 인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발되며,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 2세 영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친사회적 또래 관계'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차례를 지키는 것,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 타인과 함께 활동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Moore(1982)역시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외적인 보상이나 벌에 관계없는 행동이며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친사회적 또래 관계란 또래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태도로서 도와줌, 나누기, 배려, 친절, 위로하기, 협력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과 관련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진다(남옥선, 2007; 이은화, 김영옥, 1987). 또래 간에 돕고 나누고 위로하며 협력하는 행동들은 만 2세 영아들에게 나타나기 힘든 행동들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시기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습득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은 영아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아가 영아가 관계 맺고 있는 가족,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3.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 행동

사회·정서적 부정 행동이란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표출하는 부적응 행동 또는 성인이나 다른 영아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며, 외현적 부정행동(활동·충동성, 공격성·반항)과 내면적 부정행동(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으로 구분 하였다.

첫째, '활동·충동성'이란 주의 산만 및 과잉행동을 의미한다. 과잉 행동은 일반적인 동작과 달리 힘이 넘치고 위험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동이다(Berk, 2002). 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운동이나 언어에서의 지나친 또는 발달 수준에 부적절한 정도로 과잉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즉, 과잉행동 특성을 가진 유아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고, 안절부절 못하고, 필요 없는 신체적 움직임이 많으며, 사소한 실수를 자주한다. 과잉행동은 일반적으로 만 2세 이전에 구체적인 증상(불규칙한 생리적 습관, 적은 수면시간 등)을 나타내며,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걸음마기와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집단이나 집 밖에서 항상 제멋대로 하려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는데, 이러한 과잉행동은 학업이나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Wender, 1987). 따라서 활동성에 문제가 있는 영아들은 다른 사람의 바람이나 특정 상황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게 된다.

'충동성'은 행동억제 능력의 결여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Kendall & Wilcox(1979)는 충동성을 단일 구조가 아니며 인지 수준과 행동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지수준에서 볼 때 충동성은 여러 대안적인 문제 해결책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행동적 수준에서 볼 때 충동성은 원치 않는 말이나 신체적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충동성 문제가 있는 영유아들은 또래들에 비해 요구 충족을 지연시키고, 반응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정은정, 2004).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활동성과 충동성은 공통점을 갖는다. 활동·충동성 문제를 가진 영아들은 타인(성인이나 또래)으로 하여금 상호작용을 시작하는데 있어 거부감을 갖게 하고 놀이나 상호 작용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 작용에 제한점을 갖게 되고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공격·반항성'이란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및 반항성을 의미한다. '공격성'이란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를 지닌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다. 공격성은 또래를 해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행동과 공격적인 말, 과격한 행동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분노, 적개감, 질투심을 느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만 2세의 경우 많은 공격 행동이 소유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upin, 1983). 이러한 공격 행동은 집단행동 속에서 신체적인 형태와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된다(장영희, 2000). 특히 만2세 영아들은 아직은 자기중심적이고 혼자서 모든 것을 독차지 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미숙하여 자신의 욕구가 거절되었을 경우, 떼를 쓰거나 우는 행동을 자주하게 된다. 또한 언어적 표현보다는 행동적 표현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공격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정적 행동이다. '반항행동'이란 규칙이나 지켜야 할 일을 무시하며 지시, 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한다. 반항행동에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과 성인에게 말대답하고, 말을 듣지 않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Kuczynski & Kovhanska(1990)에 따르면 반항은 거부증의 가장 능숙하지 못한 형태로서, 나중의 외현적 문제를 예언한다고 하여 반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였다. 만 2세 영아들은 주도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므로 자기의 요구와 성인의 지시, 명령 사이에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우울·위축'이란 힘이 없고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태도를 말한다. '우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이다. 우울은 슬픈 감정, 외로움 등의 정서적 증상과 죄의식, 무가치함, 사고력 및 주의력저하, 자신의 삶에 관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증상과 불면증, 식욕 감퇴, 체중 감소와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Gaensbauer(1980)는 연구를 통해 3개월 반 된 여아가 냉담한 반응, 흥미부족, 슬픈 얼굴, 표정 등의 성인우울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호작용 및 타인의 관계 형성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져야 할 행동이다. 하지만 출현 시기에 관해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지만 아동의 경우 자주 울음을 터뜨리고, 슬픔을 표현하며, 매사에 흥미나 의욕이 없는 정서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Brezelton, 1992; Harringtom, 2001). 우울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대인 관계에 문제를 갖기 쉬우며, 부 적응적 행동을 보이고,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ber, Kriss & Lindholm, 1988).

'위축'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드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 중의 하나이다. 위축행동은 억제되고 제한된 행동이며, 또래와의 상호 작용 빈도수가 적거나 사회관계 측정시 또래의 수용도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박옥영(2001)은 위축 행동에 대해 대인 관계에서 적당히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였으나, 어떤 원인에 의해 주변 환경과의 모든 접촉에서 움츠러들고 부모, 교사, 동료들과 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시키기 곤란한 행동이라고 보고 매사에 수동적이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무시되기 쉬운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축은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 있어 수평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것에 문제가 되는 행동이므로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다.

넷째, '일반적인 불안수준' 이란 긴장하거나 걱정이 많은 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불안' 은 뚜렷한 대상이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수반하는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이란 기대되어지는 혹은 임박한 위험에 대한 표시이며 가장 보편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온 인간의 반응이다(최진숙, 조수철, 1990). 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양상으로 매우 불쾌하며 막연히 불안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진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과 관련이 되며 과민성,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등을 동반한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였는데, 상태 불안은 긴박한 상황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불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태이다. 반면에 특성불안은 불안의 경향에 있어서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나 획득한 행동성향으로 이러한 개인차는 생물학적이고 체질적인 요인과 유아기의 경험에서 기인되는 것이다(송영순, 1996). 영아기에는 낯선이에 대한 불안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이러한 불안은 영아의 기질과 맞물려 성인의 반응에 따라 내면화 되며, 인생 전반에 걸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유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하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손톱 물어뜯기 등의 신경질적인 습관을 보이거나 수면 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을 보인다(고인숙, 2008). 또한 영아기에는 낯선이에 대한 불안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다. 이러한 불안은 영아의 기질과 맞물려 성인의 반응에 따라 내면화되며, 인생 전반에 걸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분리불안' 이란 유아가 어머니의 부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 보이는 일종의 공포반응으로 애착 대상을 잃지 않으려고 애착대상을 찾고, 울고, 부르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또한 분리불안은 자기와 대상의 분리가 가능함을 감지할 수 있는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나타나 18개월 이후에 절정기에 이르고 분리개별하기가 끝나는 36개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사라진다. 분리불안 장애는 격리분안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집 또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유아가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발달적으로 볼 때 부절절하고 지나친 불안이 특징이다. 애착 대상과 분리 시, 주 애착대상을 상실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자신 또는 주 애착 대상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게 되어 분리불안을 느끼게 된다. Bowlby(1969)는 애착관계와 분리불안은 유아가 갖는 최초의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으로 성장 후 모든 애정, 대상관계의 원형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리불안은 전 생애를 통하여 변화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초기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영아가 어머니에게 강하게 애착될수록 어머니의 부재 동안에 닥치는 어려움에 잘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아기에 부모-자녀 관계의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수희 외, 2008), 취원 영아의 증가와 연령 하향화 등으로 영아기의 부모와 영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 영아의 관계가 분리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애착관계 및 분리와 관련된 정서적, 행동적 특성들이 이후 대인관계에서 원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정적 행동 중 하나이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란 새로운 장소나 상황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만 2세가 되면 영아는 무서움이나 공포를 느끼는데 이러한 공포의 감정은 직접경험이나 성인이 무서워하는 것을 모방하여 영아도 그러한 것을 무서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숙재 외, 2003).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 행동은 심리적으로 수줍음 또는 행동 억제와 관련이 있다. 수줍음은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억제된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어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행동이며, 낯선 상황에 대해서만 위축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친숙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동 억제(Behavioral inhibition)'란 유아가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경계심과 위축을 보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양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의 의도는 있으나 접근 하지 못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행동억제를 보이는 유아는 멀리에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진행 중인 놀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보는 행동을 보인다. 즉 동기 자체가 없는 수동적인 무관심이나 고립(Solitude)과는 달리, 사회적인 동기는 있으나 두려워하거나 경계심을 가져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을 탐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Reznick, et al, 1989). 행동 억제를 많이 보이는 영아는 내면화된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 문제, 불안장애 등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Asendorpf, 1994),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화된 공격적, 적대적 문제 행동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려움을 가지므로 주목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부정행동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외현적 부정행동의 하위요소와 내면적 부정행동의 하위요소 등은 만 2세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요소이며, 이후 대인 관계에서 원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만2세 영아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나 초기 중재가 다루어져 부정행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발달 특성

인간의 발달 단계를 분류할 때 출생 직후부터 생후 36개월 미만의 시기를 영아기라고 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시기는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인 영아기라고 하고 생후 24~36개월 즉 만 2세아는 걸음마기라고 칭한다(Papalia, Olds & Feldman, 1989).

만 2세 영아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전인발달이 이루어진다. 영아의 발달 특성을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ena & Wakschlag(2000)은 2세 때 자아개념의 발달과 자율적 행동의 추구로 인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기주장, 화냄, 부정, 반항, 신체적 공격과 같은 행동 양상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3세가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는 3세 때에는 신체적 공격대신 이름 부르기, 타협하기 등의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전략과 갈등을 다루는 선택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Coie & Dodge, 1998; Cote, Tremblay, Nagin, Zoccolillo, & Vitaro, 2002; Hartup, 1996; Tremblay, 2000). Vygotsky(1998)는 2세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가 성인의 요구에 반대하는 부정,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나타내는 고집, 결정 사황에 대해 반대하는 반항,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추어내는 평가 절하, 둘러싼 환경에 군림하는 폭정 등이라고 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자율성의 출현으로 인한 독립의 추구 때문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의 한 측면이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2단계로 1~3세 연령에 해당하며 발달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감 단계이며 심리사회적 위기로는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신체적·생리적 성숙에 따라 대소변 가리기, 걷기, 식사하기, 옷 입히기와 같은 자기통제가 가능하며 독립심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Keefer(2005)는 24개월에서 36개월 된 영아들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연구했는데, 2주 동안 3번 실외놀이 상황을 총 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간 관찰하고 자료를 모았다. 2세 영아는 성인, 또래, 사물 3가지 중 또래가 원인이 된 공격적 행동은 20%, 성인이 원인으로 일어난 공격적 행동은 30%였다. 이 영아들 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영아가 특히 다른 영아들보다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으며 규칙에 대해 화를 더 많이 냈고, 주변 환경에 불만족을 더 많이 나타냈다. 영아들의 고집과 관련된 행동은 개인적인 언어발달과는 상관없이 모든 2세 영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행동양상이었다. 2세 영아가 '싫어', '내가', '아니야'등의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빈번히 관찰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영아가 자아인식, 자아개념의 발달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표출 때문이다. 자아개념의 확립으로서 자율성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점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Crockednberg & Litman, 1990; Janet, Margartet, & Michael, 1995). 2세 영아는 자기중심적 사고, 소유욕, 미흡한 사회적 기술 때문에 또래와의 놀이에서 사물차지하기, 의견불일치, 영역차지하기, 신체적 공격하기 등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양상이 나타난다(권경숙, 2002; 조혜경, 2006). Tilsner(2000)는 2세 아가 놀이 활동에서 자기중심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며, 놀이를 할 때 자신이 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기와 떼쓰기를 한다고 하였다. 영아의 '내꺼야', '내 장난감이야', 등의 사물을 지칭한 소유권 주장의 언어적 전략을 놀이감의 소유를 지속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Caplan, Vespo, Pederson & Hay,1991). 2세 영아의 자기주장과 '내 것'의 소유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자기인식의 발달과 관계가 깊다(양옥승 외, 2011). Byrne(1974)는 자아개념을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 능력, 신체 및 가치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집합체로서 정의하고 있다. 자아개념의 확립으로 2세 영아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생각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장영희(2000)에 의하면 만 2세 영아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배우며 이로 인해 '자기주장'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자기 조절력과 통제력은 아직 미숙한 반면,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이러한 욕구로 인해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자율성과 강해진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인간 개체로의 감각을 형성하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인식은 자아인식 없이는 생성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인식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2세 영아는 자아를 확립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타인에게 다양한 정서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양육자와의 관계로 한정 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가 가족과 또래,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확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된다(만 2세 표준보육과정지도서, 2013).

결론적으로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발달 특성은 자율성의 출연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점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며, 미흡한 사회적 기술로 공격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자기인식(자아개념)의 발달로 소유개념 형성, 자기주장이 강해지며, 부정적 정서를 표출, 자기중심적사고로 자기중심적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고집, 떼쓰기와 같은 행동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만 2세아의 주요 발달 과업 중 사회·정서적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표상능력,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상능력(Representational Ability)은 만 2세 영아의 인지발달 중 가장 큰 특징으로 정신적 표상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영아는 더 이상 문제를 감각 운동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표상능력이 발달하면서 가상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장영희(2000)에 의하면 만 2세 영아는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감각운동단계에서 전 조작 단계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행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정신적 표상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내적으로 형성된 표상을 여러 형태의 상징 혹은 기호로 표현하는 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 및 가상놀이와 상상놀이가 나타나게 된다.

만 2세 영아가 보이는 발달 특징 중 하나는 언어발달 즉 의사소통수단의 발달이다. 만 2세경에는 언어발달이 가장 활발하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만 2세가 되면 250~3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30~36개월의 영아는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약 900개의 어휘를 사용한다(장영희, 2000). 이러한 언어 발달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와 의사소통에 언어라는 상징적인 매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언어는 영아로 하여금 새롭게 발견되는 사물간의 관계와 사물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지속시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조작능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사용은 지각활동의 중요한 매체일 뿐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강이(1998)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로써 어린 영아라 할지라도 타인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Muller & Brenner(1977)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비율은 생후 22~30개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메시지의 내용을 선택하는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Papalia & Olds, Feldmen(1989)은 연구를 통해 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세아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와 소통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만 1~3세경은 언어발달에 있어 급격한 발전을 보이는데, 특히 24~36개월은 언어의 폭발적인 팽창기라고 부를 만큼 언어 발달이 급속히 진행된다.

반면 이시기의 영아는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상대적 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ability)'이 부족하여 자기중심적 언어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만 2세 영아들은 급격한 언어발달로 언어를 사용한 사고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표상능력으로 인해 가상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떠올리게 되면서 내적 문제 해결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표상능력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본 준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E. 선행 연구

1. 자연물

자연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거기서 얻어진 자연물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는 경험들로 대부분의 연구가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 미술활동이(고은별, 2006; 김병희 외, 2015; 김현아 외, 2013; 김혜원 외, 2015; 사선 외, 2012; 서민정 외, 2009; 함영숙 외, 2009; 황윤세 외; 2014)대부분이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연물을 활용한 미술·조형 활동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표현재료로써의 자연물을 활용한 다각적인 미술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아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함영숙 외, 2009), 다양한 자연물을 얻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장소 선정의 필요성(김혜원 외 2015; 사선 외, 20102)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영아가 직접 수집한 자연물과 어린이집 주변 환경의 다양한 장소에서 채취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영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연물을 이용한 감각탐색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노희연 외, 2012), 자연물을 활용한 수학활동(김갑순 외, 2010), 자연물과 연계된 과학적 탐구과정(정은경, 2009), 모래놀이(박태희, 2015), 비슷한 맥락으로 산책(윤효숙, 2009; 한인숙, 2008), 실외놀이 및 활동(김슬기, 2013; 김정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2; 봉선화 외, 2010; 이주은, 2004; 한미희, 2015; 허윤정, 2009), 산책을 통한 자연탐색(권가영 외, 2014), 실외자연놀이(김미래, 2015), 자연활동(정현정, 2014; 이영단, 2012), 숲 체험(이상순, 2015), 정원 가꾸기(최윤혜, 2012)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주변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였고, 나아가 산책, 실외활동, 숲체험, 정원가꾸기등과 같은 자연친화적 활동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김슬기(2013), 권가영 외(2014), 박태희(2015)등의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화 기술적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영아들을 대상으로 양적수치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가시화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접근을 시도하여 결과를 보고자 한다.

하정연 외(2005)는 유아에게 있어서 조약돌이나 사과 씨, 나뭇잎, 흙과 같은 자연물은 의미 있는 학습소재가 될 수 있으며, 유아에게 사실상 가장 좋은 교재는 자연환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유아들은 예술적인 감성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오감으로 체험할 자연과의 놀이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활동을 교실에서 있는 자료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료를 얻기 위해 자연 속으로 나아가 다양한 자연물을 체험하고 다양한 작물과 바깥놀이터의 흙, 물, 풀, 돌, 벌레, 모래 등과 같은 자연물로 조형물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주변 세계의 자연과 자연물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하고 탐색하며 조작과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지식을 재구성하면서 인지능력을 발달시켜나가고(이숙재, 2004), 자연 속에서 매일 새로운 사물을 탐구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직접체험 활동을 할 수 있기에(이명환, 2003), 자연물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한 찰흙, 점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간능력(임춘연, 2005)에 미치는 효과,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김기영, 201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고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명숙(2009)의 지적장애 학생의 학습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논문을 고찰해 보면 임춘연(2005)은 유아를 대상으로 공간능력에 효과를 검증했다. 즉 유아의 공간능력에 성별의 차이가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의 필요성, 찰흙활동이 공간능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후속프로그램의 계발의 필요성, 야외에서 협동 활동으로 진행하여 확장된 공간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기영(2010)은 자연물을 이용한 점토활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향상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져왔다고 보고했으며, 후속연구에선 유아들의 모습에 관한 질적 연구와 자연체험활동 후 수집한 자연물을 이용한 실외활동의 점토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강명숙(2009)은 고등부 3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아 학습태도와 자아 존중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학습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아 존중감은 큰 변화가 없기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토활동의 개발과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연구는 없는 실정이기에 본 연구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점토활동을 실시하면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점토

현재까지의 점토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점토활동·점토놀이활동·점토놀이 등으로 영아, 유아, 학생, 성인, 노인에 거쳐 전 생애기에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점토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가가기에 친숙하고, 신체 및 사회정서, 창의성, 인지발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치료적 효과도 있어 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은혜, 2013).

먼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구성주의에 기초한 점토활동에 관한연구(박미정외, 2011; 유경숙, 2000), 입체표현 발달과 관련한 연구(최윤지 외, 2009), 점토놀이 과정에 관한 연구(최은혜, 2013), 점토를 활용한 미술 활동에 관한 연구(박현경, 2012), 교수매체로써의 점토활동에 관한 연구(오정현 외, 2007), 점토놀이에서의 가작화 요소 분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한석실 외, 2011), 전도식기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생태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이부연 외, 2009), 점토활동 전개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박선화, 2005), 종이접기와 점토활동에 관한 연구(이승임 외, 2004; 정미영외, 2008), 뇌성마비아동에 관한 연구(허경화 외, 2007), 자기 주도적 주제선정 점토활동에 관한 연구(강경희 외, 2010)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점토활동을 통한 다양한 변인들 즉, 공간능력 및 입체표현, 과학적 개념 및 과정기술 태도차이, 정서지능, 창의성, 언어능력, 소 근육 운동, 미술성향, 또래 간 상호작용 등에 그 효과를 밝히고 있으나, 사회·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영아교육에 있어서 점토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연령에 따라 범주화 할 수 있다. 1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만 1세 영아의 점토와의 상호작용 연구(김준아, 2012)가 있으며, 2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점토활동에 나타난 영아의 표상과 도구 사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법의 미시 발생적 변화(한영주, 2012),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이미영, 2014),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경험과 교육적 의미 탐색(김민정, 이미영, 2014), 이야기 나누기를 활용한 점토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문지현, 2012), 만 2세 영아의 점토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조형숙, 이은형, 2010)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영아기 미술교육에 대해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이금구(2003)는 영아 미술 교육의 특성을 주변 사물을 탐색하고 감상하는 활동이 곧 창작 활동이 되고 창작활동이 곧 탐색활동이나 조작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영아 담당 교사들은 영아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지만 실제 교육 활동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효과적인 영아 미술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프로그램개발과 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사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영아교사의 영아미술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현황(이금구, 2003; 현화동외, 2009)을 통해 영아교사들이 영아기의 예술경험과 미술활동이 꼭 필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미술교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많은 영아의 수(이금구, 2003)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제한적인 미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교육에 있어서 점토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준아(2012)의 연구는 3개월간의 질적 연구로 만 1세 영아의 점토와의 상호작용과 점토를 매개로 나타나는 만1세 영아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점토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과 점토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한영주(2012)는 한 달 남짓한 연구기간동안 만2세 학급 영아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만 2세 학급 영아의 표상변화양상과 다양성, 영아의 도구사용방법의 변화양상과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의 필요성, 성인과 상호작용이 영아의 표상과 도구 사용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도 깊은 미시발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영(2014), 김민정 · 이미영(2014)은 2개월간의 질적 연구로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 경험은 수량인식하기, 공간과 도형에 관심가지기, 차이에 관심가지기, 간단한 규칙성에 관심가지기, 구분하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놀이를 통해 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적 지식에 친숙해지기, 자유로운 조작으로 변화 경험하기, 풍부한 의사소통으로 확장하기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의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2세반 영아들의 발달 과정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과 점토의 종류, 도구의 관계성에 조금 더 집중 연구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문지현(2012)은 9주간의 실험연구로 점토활동 전, 후 이야기 나누기라는 교수법으로 언어표현능력에 향상을 가져왔는데 이야기 나누기 방법 외에 다른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영아의 언어적 측면에 심도 깊게 연구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조형숙 · 이은형(2010)은 3개월간의 질적 연구로 영아 5명을 대상으로 감각 및 조형놀이의 경험, 가작화 놀이 경험, 사회적 놀이 경험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구체적 영아 점토놀이의 필요성과 다양한 감각놀이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는 모두 짧은 기간의 연구로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영아에게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찰흙, 색점토, 밀가루점토, 아이클레이, 지점토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지만 보통 1개~4개의 점토로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했으며, 5가지 점토를 모두 사용하여 동시에 실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점토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의 중요성과 과거처럼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점토활동과정에서 무언가 스스로 해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영아'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 · 정서적 행동

그리스로마시대의 Aristoteles(BC 384~BC 322)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며,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산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므로 사회·정서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영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촉진을 위한 초기 자극 매개체는 리듬타악기 및 음악 감상활동(김경은, 2011), 음악 활동(남옥선, 2007), 전래 놀이(김정희, 유효순, 2011), 전래 놀이 동요(최양윤, 2010), 음악을 통한 그림책 읽기(류승희, 이승우, 2012), 또래간의 신체활동(박유미, 최인숙, 김은아, 2010), 표현 예술놀이(주현주, 2010), 그림책(김지현, 2010)등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한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관계(신지연, 2004), 어머니와 영아와의 관계(김수정, 2009; 이옥임, 주봉관, 2006; 정미라, 2014), 보육교사와 영아와의 관계(김인숙, 2010; 박선화, 2013; 안문실, 2013), 또래 관계(김은아, 2009; 안지영, 2015)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질과 애착(김지선, 2009; 나양균, 2006)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그 중 자연물을 활용한 연구로는 김슬기(2013)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실외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의의가 있으나 자연물에 국한되어 진행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김경은(2011)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 영아들에게 리듬 타악기 및 음악 감상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순응, 주의 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 이입, 친사회적 또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수준,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주현주(2010)는 영아 표현예술놀이(음률표현과 미술표현활동)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긍정행동은 강화되었고 부정 행동은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긍정행동에서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또래관계, 동기, 순응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으며, 부정행동 중에서는 활동·충동성, 공격성·반항성,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남옥선(2007)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적 행동을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실시하여 음악적 경험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음악과 음악적 경험을 통한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아의 행동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서적 행동 중 긍정행동은 강화되었고 부정행동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긍정행동 중에서도 특히, 주의집중과 감정이입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부정행동 중에서는 음악 활동이 공격 반항성,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거부(억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아의 긍정행동 중 하위행동보다 부정행동의 하위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악이 부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신지연(2004)은 종일보육을 받는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를 비교하고,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애착 유형에 따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보이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종일보육을 받는 영아의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사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서적 행동은 하나의 애착관계가 아닌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확장된 복합 애착 망으로부터 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대해 보육교사와의 애착은 영아의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안전망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보육시설 맥락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보고되었다. 김정희, 유효순(2011)은 애착이 확고하게 형성되기 이전인 1세 전후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9~13개월 사이의 영아와 어머니 2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영아의 애착안정성은 비교집단 영아의 애착안정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 중 모방/놀이 점수가 비교집단 영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김지선(2009)은 가족 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경험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다. 이는 가족과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공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공헌을 했으며, 구조적 측면이 아닌 과정적 측면(영아-교사 상호작용, 영아의 일상생활,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 교사와 어머니가 보고하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비교의 필요성,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각 월령별 차이를 비교해볼 필요성,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력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의 도구는 ITSEA를 대부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BITSEA를 사용한 연구(박선화, 2013)도 있었다. 또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 관한 연구(김정희, 유효순, 2011),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김지현, 2010)도 있었다.

이처럼 영아기가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 미술활동을 연구했다. 특히,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소수이고 그 중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점토활동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여러 가지 점토를 동시에 실시한 연구, 자연물과 병행하여 사회·정서적 효과를 진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G 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은 G 어린이집 A학급의 만 2세 영아 17명(남: 9명, 여 8명)이었고, 비교집단은 같은 어린이집의 B학급 만 2세 영아 14명(남: 9명, 여 5명)이었으며 임의로 배정하였다. 만 2세 학급의 교사 대 아동에 대한 법정비율은 1대 7이고, 최대정원으로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1대 9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한 교실에서 두 개의 학급이 운영되며 모두 네 학급이 연구대상이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험처치 및 검사는 전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거주 지역,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며,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실험집단 33.11개월, 비교집단 31.28개월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t= 1.380, p= .178).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과 평균월령에 따른 집단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영아의 성별과 평균월령에 따른 집단 구성

구분	n	성별		월령		t	p
		남	여	M	SD		
실험집단	17	9	8	33.11	3.68	1.380	.178
비교집단	14	9	5	31.28	3.66		
계	31	18	13	32.29	3.73		

B.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설계이다. G 어린이집 영아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설계

실험집단	O_1	X_1	O_3
비교집단	O_2	Y_1	O_4

O_1 , O_2 : 사전검사(사회·정서적 행동 검사)
X_1 :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활동하기
Y_1 :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하기
O_3 , O_4 : 사후검사(사회·정서적 행동 검사)

실험집단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은 생활 주제에 따른 점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 실험처치 전-후의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C. 연구 도구

1.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

a. 검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Briggs-Gowan & Carter(2001)가 개발하고, 신지연(2004)이 번안, 수정한 영아기 사회·정서 측정 도구(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 ITSEA)를 사용하였다. ITSEA는 12개월~36개월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가정의 일상생활을 통해 관찰 되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어머니용과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육교사용으로 나누어져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용으로 보육교사는 지난 한달 간의 영아 행동에 근거해 영아 행동의 빈도나 정도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로 평정하며, 점수 계산법은 역 채점 항목을 수정한 후 (35. '많이 그리고 잘 웃는다. 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많이 그리고 잘 웃지 않는다. 로 수정함)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신지연(2004)이 번안, 수정한 ITSEA를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은 순종, 주의 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로 구성되었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은 활동·충동성, 공격성·반항성으로, 내면적 문제행동은 우울·위축, 일반적 불안수준, 분리 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면적 문제행동)의 세 영역을 채택하여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내용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영역별 항목은 <표 5>와 같다. 영역별 문항구성 및 Cronbach의 α 계수는 <표6>과 같다.

<표 4>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용

하위 영역		내 용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순종	· 활동의 규칙 및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태도 · 타인의 지시 및 제안에 따른 언어적, 비언어적인반응
	주의집중	· 활동에 대한 주의집중 · 타인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 있는 시선
	모방 및 놀이	· 상징놀이 및 타인의 행동 모방
	동기	· 성공 경험 후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 높은 수준의 활동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 · 새로운 활동을 고안해 내거나 제안하는 것
	감정이입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행동 및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친사회적 또래관계	·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 차례를 지키는 것 ·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허용 · 타인과 함께 활동하려는 태도(공유하려는 행동)
사회·정서적 부정 행동 (외현적 문제)	활동·충동성	· 주의산만 및 과잉행동
	공격·반항성	·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및 반항성
사회·정서적	우울·위축	· 힘이 없고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태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정 행동 (내면적 문제)	일반적인 불안수준	· 긴장하거나 걱정이 많은 태도
	분리불안	· 교사에게 매달리거나 의존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 새로운 장소나 상황에 대한 거부

<표 5> 보육 교사용 사회·정서 측정 도구(ITSEA) 영역별 항목

ITSEA 영역 및 하위영역		세부 사항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순종	12. 규칙을 따른다. 28. 옷 입을 때 돕는다.(예: 소매에 팔을 끼운다.) 16. 요구하는 것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39.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시킬 동안 얌전히 있는다. 6.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치운다. 67.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때 순종한다. 33. 바르게(얌전하게) 잘 행동한다. 14. “쉿”했을 때 조용히 한다.
	주의 집중	44. 오랜 시간동안 집중할 수 있다.(TV보기 제외) 17. 5분 또는 그 이상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다. 27. 혼자서 그림책을 본다. 41. 책을 읽어줄 때 5분간 앉아 있는다. 55.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의 집중을 잘 한다.
	모방 및 놀이	32.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낸다.(예: 면도하기) 51. 인형이나 동물 인형 등을 끌어안아 주거나 먹여준다. 53. 손뼉을 치거나 “바이……바이…… ”손짓하는 것을 따라한다. 48. 교사가 영아에게 요구하면 즐거운 소리를 흉내 낸다. 49. 어떤 물체로 다른 것인 양 흉내 내며 논다. (예 : 바나나를 전화기로 사용) 19. 공을 교사에게로 굴려 보낼 수 있다. (또는 다른 아이에게도)
	동기	5. 무엇엔가 성공하고 나면 즐거움을 표현한다. (예: 손뼉을 친다.) 50. 도전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TSEA 영역 및 하위영역		세부 사항
		57.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다. 37. 무엇이든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25.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한다. 79. 무언가 고안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 (예 : 블록 쌓기)
	감정이입	38. 교사가 화가 났을 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43. 잘못을 저지른 후에 "만회해 보려고" 노력한다. 45. 다른 이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46. 타인이 다쳤을 때 도우려고 한다. (예 : 놀잇감을 집어준다.) 42. 타인이 다쳤을 때 걱정하거나 동요한다. 54. 교사를 미소 짓거나 웃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주거나 장난친다. 78.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 : 엄마 화났어, 선생님 화났어)
	친사회적 또래관계	68.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놀잇감 등을 친절히 요구한다. 69.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잘 논다. 70.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차례를 잘 지킨다. 71. 적어도 한명의 친한(특별히 좋아하는)친구가 있다. 72. 다른 친구들과 엄마, 아빠(상징놀이)를 한다.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외현적	활동 · 충동성	8. 주의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11. 끊임없이 움직인다. 24. 자기 또래 아이들에 비해 행동이 빨라서 이 놀잇감에서 저 놀잇감으로 잘 옮겨간다. 2. 자주 다치기 때문에 아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9. 놀이할 때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엉뚱하게 행동한다. 21. 상당히 시끄럽다. 크게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공격 · 반항성	23.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다. (예 :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63. 심하게 떼를 쓴다.(temper tantrums) 10. 자기가 힘을 휘두르려 한다. 15.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TSEA 영역 및 하위영역		세부 사항
문제)		26. 비겁하게 행동한다.(예: 나쁜 짓을 하고 숨긴다.) 3. 자기의 뜻이 좌절될 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64. 교사를 때리고 물고 발로 찬다. 60. 파괴적이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수고 못쓰게 한다. 73. 자기가 노는 곳이나 놀이집단에 다른 친구가 놀지 못하게 한다. 74. 다른 친구를 놀린다. 75.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군다. 76. 고의적으로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한다. 77. 다른 친구를 때리고, 밀고, 발로 차거나 무는 행동을 한다. 34. 고의적으로 교사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 36. 고집이 세다.
사회·정서적 부정 행동 (내면적 문제)	우울·위축	65. 의기소침해 보인다. 35. 많이 그리고 잘 웃지 않는다. 58. 영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진다. 20. 다른 아이에 비해 덜 재미있는 아이다. 61. 힘이 없어 보인다. 66. 매우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인다. 56.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거나 슬퍼 보인다.
	일반적인 불안수준	62. 무서운 꿈이나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깬다. 31.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아픈 증상을 보인다. 7. 긴장되어 보이거나 경직되고 두려움을 보인다. 30. 걱정이 많고 매우 심각하다. 52. 완벽 주의적 성향이 있다. 80. 특정 동물을 두려워한다. 81. 특정 물건을 두려워한다. 82. 특정 장소를 두려워한다. (예: 상가, 엘리베이터, 공원 또는 자동차)
	분리불안	13. 친숙한 보육교사가 떠나면 매우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낸다. 18.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교사에게 매달리거나 무릎에 앉아 있으려 한다. 29. 교사가 떠나려 할 때 울면서 매달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TSEA 영역 및 하위영역		세부 사항
		40.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22.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1.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분 이상) 4. 새로운 상황에서 조용해지거나 덜 활동적이 된다. 47. 새로운 어른을 보면 부끄러워한다. 59.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부끄러워한다.

<표 6> 영역별 문항구성 및 Cronbach의 α 계수

ITSEA영역	하위영역	교사용 문항수	합계 문항수 (Cronbach α 계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순종	8	37(.94)
	주의집중	5	
	모방 및 놀이	6	
	동기	6	
	감정이입	7	
	친사회적 또래관계	5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외현적 문제)	활동성·충동성	6	21(.84)
	공격성·반항	15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내면적 문제)	우울·위축	7	24(.64)
	일반적 불안수준	8	
	분리 불안	5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4	

b. 검사 방법

검사방법은 각 집단의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관찰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 문항의 행동 요인에 따라 그 결과를 4점 기술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했다.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척도의 예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관찰 평정척도의 예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분 이상)	0	1	2	3

C. 채점 방법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그렇지 않다 1점 / 그렇다 2점 / 매우 그렇다 3점을 주어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은 평정된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외현적 문제, 내면적 문제)은 역 채점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여 사회·정서적 긍정행동과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평정된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한다.

합산 점수의 범위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영역과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외현적 문제, 내면적 문제)영역에서 각각 최하 0점부터 최고 111점, 최하 0점부터 63점, 최하 0점부터 72점으로 세 개 영역의 총점은 최하 0점부터 최고 246점이 된다.
산출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이 향상되며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은 감소됨을 나타낸다. 영역별 문항 번호 및 점수는 <표 8>과 같다.

<표 8> 영역별 문항 번호 및 점수

ITSEA영역 및 하위영역		문항 번호	총 문항 수	점수	점수 총합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순종	12,28,16,39,6,67,33,14	8문항	0~24	111
	주의 집중	44,17,27,41,55	5문항	0~15	
	모방 및 놀이	32,51,53,48,49,19	6문항	0~18	
	동기	5,50,57,37,25,79	6문항	0~18	
	감정 이입	38,43,45,46,42,54,78	7문항	0~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친사회적 또래관계	68,69,70,71,72	5문항	0~15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외현적 문제)	활동 · 충동성	8,11,24,2,9,21	6문항	0~18 (역채점)	63 (역채점)
	공격성 · 반항	23,63,10,15,26,3,64,60,73,74,75,76,77,34,36	15문항	0~45 (역채점)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내면적 문제)	우울 · 위축	65,35,58,20,61,66,56	7문항	0~21 (역채점)	72 (역채점)
	일반적 불안수준	62,31,7,30,52,80,81,82	8문항	0~24 (역채점)	
	분리불안	13,18,29,40,22	5문항	0~15 (역채점)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1,4,47,59	4문항	0~12 (역채점)	
계	12영역	82문항		246	

2. 자연물 및 점토활동 유형 선정

a. 자연물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연물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연물에 관한 학위 및 학술지 선행 연구(고은별, 2006; 김준희, 2005)외 약 15편의 논문과 전문가 1인의 내용 타탕도를 거쳐 자연물을 선정하였다. 자연물은 영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생생한 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아들로 하여금 친밀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관찰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첫째,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활동인가? 를 고려하였다. 즉 점(씨앗, 곡물), 선(나뭇가지, 풀줄기, 솔잎), 면(나뭇잎, 풀잎, 들꽃, 클로버 꽃, 클로버 잎, 꽃), 부피(돌, 조개껍질, 상수리열매, 땅콩, 호두, 솔방울, 잣 방울), 가루(모래, 빵가루, 커피가루)등 다양한 자연물의 종류를 접하도록 고려했으며, 자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물은 영아들 주변에 있는 것으로 친밀하여 쉽게 다가가서 영아들이 직접 수집 및 채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고 점토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했다.

둘째, 자연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인가? 를 고려하였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 관심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후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으로 내용을 선정했다.

셋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 속에 미적요소(선, 색, 면, 질감, 모양, 부피 등)에 기초하여 탐색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하여, 영아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표현력을 기르고, 자연물 속에 담긴 교육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통합적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으로 전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선정했다.

b. 점토활동 선정 및 교수 매체 유형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점토 활동의 내용은 영아 미술놀이 100가지(장선경, 2011), 프뢰벨 생명교육 II(서석남저, 2003), 점토 선행 연구(김기영, 2011; 문지현, 2012; 박미정, 성소영, 2011; 임춘연, 2005)외 약 15편의 선행논문을 기초로 예비연구를 하고, 전문가 1인의 내용 타당도를 바탕으로 점토활동을 구성하였다.

점토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 영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점토, 밀가루점토, 지점토, 찰흙, 아이클레이의 5가지 종류로 접근을 하였으며,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 오감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탐색하고 소 근육 운동 능력 발달을 도모하도록 선정하였다.

예비연구를 토대로 구성안을 1차적으로 만들었으며, 점토활동 1차 구성안은 <표 9>와 같다. 이후 현장 영아 교사 4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아에게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2차적으로 재구성하여 활동안을 계획하였다. 점토활동 2차 구성안은 <표 10>과 같다.

<표 9> 점토활동 1차 구성안

연구자	점토활동명
장선경(2011)	<조몰락 조몰락 촉감놀이> * 말랑 말랑 밀가루 점토 * 가을동산 찰흙으로 꾸미기 * 만지고 꽂는 지점토 놀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석남(2003)	<흙 주무르기> * 구,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만들기 * 문양 찍기 * 기하도형 만들기(삼각형, 사각형, 원, 하트) * 선의응용(점토 꼬기, 점토 짜기) * 필통 삼형제
김기영(2011)	* 자유 점토 놀이 * 자연물 꼴라쥬 * 얼굴 만들기 * 동물 나라 * 여러 가지 그릇 * 피자 만들기 * 액자 만들기 * 움직이는 사람 * 교통 기관 * 동화 듣고 표현하기(무지개 물고기) * 막대 인형 * 여러 가지 공룡 * 목걸이 만들기 * 우주선 만들기 * 건축물 만들기 * 케이크 만들기
문지현(2012)	* 점토와 가까워지기 *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 * 내 얼굴 만들기 * 무늬찍기 * 점토 물고기 * 목걸이 점토 * 손바닥 찍기 * 달팽이 만들기 * 친구 얼굴 * 그릇 만들기 * 거미 만들기 * 점토판 모자이크 * 피자 만들기 * 자유롭게 꾸미기 * 떡 만들기 * 해바라기 * 우리가족 만들기
박미정, 성소영 (2011)	* 찰흙과 친해지기 * 찰흙 속의 보물을 찾아라. * 찰흙으로 입체 구성하기 * 여러 가지 떡 * 나만의 떡 만들기 * 피자 만들기 * 케이크 만들기 * 소풍 * 좋아하는 과일 * 가을나무 표현 * 찰흙 판에 그리기 * 얼굴꾸미기(자화상) * 가족 얼굴 꾸미기 * 탑 만들기 * 세계의 건축물 * 우리 동네 지도 * 탈 것 만들기 * 우주기지 만들기 * 핸드폰 만들기 * 눈사람 만들기
임춘연(2005)	* 화석 만들기(조개, 솔방울 등) * 나무 만들기 * 친구 얼굴 만들기 * 가족 얼굴 표현하여 액자꾸미기 * 바구니 만들기 * 상차리기 * 탈 것(차, 비행기, 배 등) * 찰흙 신발 만들기 * 탑 만들기 * 컴퓨터 만들기 * 바다여행 * 우리 동네 * 공룡시대 * 동화 듣고 표현하기(멋진 뼈다귀) * 가을 풍경 * 우주여행

<표 10> 점토활동 2차 구성안

본 연구의 점토활동
* 점토야~ 반가워 * 다양한 모양 만들기 * 무늬찍기 * 손가락 찍기 * 내 얼굴, 친구 얼굴 만들기 * 과일 만들기 * 장신구 만들기 * 꽃과 꽃잎 콜라쥬 * 과일나무 만들기 * 바닷속 꾸미기 * 피자 만들기 * 동화 듣고 구성하기(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점토활동의 구성절차는 piaget구성주의 관점, 레지오 에밀리아 관점, 물과 모래를 이용한 유아놀이 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창의성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이영일, 이정숙, 양승희, 2010)의 활동 절차를 참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iaget 구성주의 관점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형성, 구성한다는 자발성을 중시하는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으로 미술 교육은 영아중심적인 방법과 협동학습을 취하며 교육의 주체인 영아가 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레지오에밀리아 관점은 학습자를 학습과 발달의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그들이 스스로 지식의 창조자로 간주하도록 도와주고 탐색의 기쁨을 느끼게 하면 강한 학습동기와 흥미를 보여줄 것으로 간주한다.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은 미술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아교육체제이다. piaget구성주의 관점과 접목시켜보면 상징적 표상을 통한 표현과 재 표현의 과정을 통하여 피아제가 말한 도식화 과정과 함께 반복되는 표상,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지식의 동화·조절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레지오에밀리아 관점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이선형, 1999).

셋째, 물과 모래를 이용한 유아놀이 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창의성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이영일, 이정숙, 양승희, 2010)의 활동 절차에 기초를 두었다. 영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놀이 활동을 위해 준비된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의 발달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사의 발문기법을 사용하려 한다. 점토활동에서 교사는 자신이 호기심을 보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여 영아에게 호기심을 되 물어보며 탐색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영아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영아가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어 표상하면서 영아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점토활동을 하며, 교사나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하도록 교사는 영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 조력자, 지지자 역할을 하며 놀이를 구성한다.

점토활동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아들의 발달 적합성과 영아들의 능력, 흥미에 적절한 활동인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영아들이 충분히 성취해 낼 수 있는 활동으로 선정했다.

둘째, 점토활동을 도입 → 전개 → 마무리활동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인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의 탐색활동에서 영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점토와 자연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특성을 오감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한 것 등을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 감상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내용을 선정했다.

셋째, 보육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무리는 없는가? 실내와 실외에서 활동을 전개할 때 활동시간이 하루 일과에 적당한지, 자료는 영아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관리가 쉬운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속에 미적요소(색, 면, 질감, 모양, 부피 등)가 내재되어 있는 교육활동으로 내용을 선정했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수매체 유형은 전문가 1인의 내용 타당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고 한석실, 박주희(2011)의 점토 구성놀이 활동방법을 참고하여 교수 매체 유형 1차를 선정했으며 <표 11>과 같다. 그 후 점토활동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2차를 재구성했으며 <표 12>와 같다.

<표 11> 점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수 매체 유형 1차

활동 방법	주제 및 내용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동화책을 읽고 구성하기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기 후 구성하기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을 듣고 우주와 별에 관한 이야기 나눈 후 [우주]를 구성하기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혹부리 영감]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무지개 물고기]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이야기나누기 후 구성하기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건물과 내부구조에 관해 이야기 나눈 후 어린이집 구성하기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숨 쉬는 항아리]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화보보고, 이야기나누기 후 구성하기	여러 가지 교통기관(자동차, 버스, 배, 비행기 등)에 관한 화보를 보면서 이야기 나눈 후 구성하기
동화책 읽고 구성하기	[일어날 시간이야, 뽀로로!] 동화책을 읽고 구성하기

<표 12> 점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수 매체 유형 2차

활동 방법	주제 및 내용
모형을 보고 구성하기 (모양 블록, 과일)	* 다양한 모양 구성하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물건 제시 후 구성하기(거울)	* 내 얼굴, 친구 얼굴 구성하기
책을 보고 구성하기 (모양에 관한 책, 자연 관찰 책)	* 다양한 모양 구성하기 * 과일 구성하기
실물을 보고 구성하기 (장신구, 피자, 과일, 야채)	* 장신구 구성하기 * 과일 나무 구성하기 * 피자 구성하기
교구를 제시 후 구성하기 (고기 잡기 게임)	* 바닷 속 구성하기
사진자료를 보고 구성하기 (바다생물들)	* 바닷 속 구성하기
동화책을 듣고 구성하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동화책 읽고 똥 구성하기
음원을 듣고 구성하기 (고기잡이, 수박파티)	* [수박파티]노래를 듣고 과일 구성하기 * [고기잡이]노래를 듣고 바닷 속(생물) 구성하기
그림카드를 보고 구성하기 (과일, 야채)	* 과일 나무 구성하기
이야기 나누기 후 구성하기	* 점토에 관해 이야기 나눈 후 자유롭게 구성하기 * 자연물로 무늬 찍어서 구성하기 * 다섯 손가락으로 찍어서 구성하기 * 꽃과 꽃잎으로 콜라쥬 구성하기

D.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7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는 예비실험 및 예비검사와 검사자(교사)훈련, 1주간의 사전검사와, 6주간의 처치과정, 1주간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 절차

순서	절차	실시기간	실시자	대상	내용
1	예비실험	2015.7.14.	연구자	영아 3명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실험의 소요시간, 활동의 적절성과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2	예비검사	2015.7.16~ 2015.7.17	담임교사	영아 6명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 도구와 연구 과정의 적절성 파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검사자 훈련	2015.7.16~ 2015.7.17.	연구자	교사 2명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 방법 및 검사자간 일치도 훈련
4	사전검사	2015.7.20~ 2015.7.24.	담임교사	영아 31명	사회·정서적 행동(ITSEA)검사 :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부정행동
5	실험처치	2015.8.10~ 2015.9.16.	연구자	영아 31명	실험집단: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비교집단: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
6	사후검사	2015.9.21~ 2015.9.25.	담임교사	영아 31명	사회·정서적 행동(ITSEA)검사는 동일

1. 예비 실험 및 예비 검사

예비실험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실험의 소요시간, 활동의 적절성과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진행 과정에서 도입은 5분 전개는 10분 마무리는 5분정도 소요 되었으며 활동시간은 영아들의 흥미집중시간을 고려하여 20분정도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예비실험결과에서 영아들은 점토에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보였으며 점토활동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교수매체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또한 점토종류는 한 회당 한 두 가지로 한정 되어 제공하여 주었을 때 집중이 더욱 잘 되었으며, 자연물은 직접 수집 및 채취하여 활동의 즐거움의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야외활동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수준은 어려운 것 보다는 모든 아이가 적극 참여 하도록 난이도 하향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영아들의 호기심을 장려하며 흥미와 동기 유발, 활동 시간, 영아의 발달 수준 파악이 최대관건임을 알 수 있었다.

예비검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도구와 연구 과정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고자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대상은 G어린이집 G학급의 만 2세 영아 6명이었고, 담임교사가 검사자로 참여하였다.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는 담임교사가 관찰한 영아의 행동을 검사의 4점 척도에 따라 체크하였다. 실시결과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는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검사자(교사) 훈련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에 대한 검사자 훈련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검사도구의 방법과 채점 방법을 숙지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교사훈련은 2015년 7월 16일과 7월 17일 두 차례 실시하였다. 검사자 훈련내용은 사회·정서적 행동 평정의 각 척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평정 문항의 속성이나 특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검사자에 따른 차이를 극소화시켰다. 또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중에 일어날지 모르는 영아들 간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방법과 활동계획안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3. 사전 검사

사전검사는 실험집단 영아 명과 비교집단 영아 31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1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회·정서적 행동 검사는 각 집단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영아 한 명당 검사소요 시간은 사회·정서적 행동검사는 약 10분이었다.

4. 실험 처치

a. 실험 처치 기간 및 일과 운영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처치는 8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 2회(월요일과 수요일)씩, 6주 동안 총 12회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 기간 동안의 일과 운영은 <표 14>와 같다.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일과 운영

시 간	실험집단	비교집단
07:30~09:00	등원 및 통합 보육	
09:00~10:00	오전 실내 자유 선택 놀이 활동	
10:00~10:30	화장실 가기 / 손 씻기/ 오전 간식	
10:30~10:50	아침 모임 / 전이 활동	
10:50~11:30	자연물을 활용한	생활주제에 따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활동하기 점토활동하기
11:30~11:40	화장실 가기 / 손 씻기
11:40~12:30	점심식사 / 이닦기
12:30~13:00	특별 활동
13:00~15:00	낮 잠
15:00~15:30	화장실가기 / 손 씻기 / 오후간식
15:30~17:30	오후 실내 자유 놀이 활동 / 귀가 지도
17:30~19:30	귀가 및 통합 보육

b. 실험 처치 내용

(1) 실험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실험집단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6주 동안 총 12회에 걸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 과정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선행 연구를 근거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단계를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분하였으며, 즉 탐색하고 구성해보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행 표준보육과정(여성가족부, 2007)에서는 만 2세 영아의 탐색, 표현, 감상 활동을 위한 교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며 통합적인 활동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금구(2003)와 Schirrmacher(2006)은 미술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술활동은 통합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바탕으로 두었다.

도입단계는 점토 소개하기, 전개단계는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함께 모아서)놀아보기,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로 구분하고, 마무리 단계는 감상하고 평가하기로 구성하여 총 6단계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 단계 1단계에서는 활동에 들어가기 전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서 "안녕" 손유희로 영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점토를 소개한다. 점토를 소개하고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놀아 본 적이 있니?", “점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이전에 했던 영아들의 점토 활동 경험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점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전개 단계 2단계~5단계에서는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점토로 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대로 놀아보기,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함께 모아서)놀아보기,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해 보는 4단계로 진행 되었다.

전개단계 2단계에서는 부록 4와 같이 오감을 활용하여 점토와 자연물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여 보고 상상놀이, 표상활동을 해본다. 교사는 영아의 활동을 지시하지 않고 스스로의 관찰, 탐색을 유도한다.

전개단계 3단계에서는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 보게 하며 브레인스토밍 놀이 활동을 한다. 같은 질문으로 영아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표현하며 이때 교사의 의도했던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면 영아가 마음껏 활동하게 두며 영아의 브레인스토밍 놀이 활동을 격려한다. 점토활동에서 교사는 자신이 호기심을 보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여 영아에게 호기심을 되 물어보며 탐색하게 한다. 지시하지 않은 교사와 또래의 활동을 보고 영아 개인이 혹은 소그룹으로 자유스럽게 흡수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적극적인 영아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활동의 기쁨을 맛본다. 영아가 놀이하는 동안 영아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여 영아의 언어에 적절한 반응과 질문을 한다. 다른 영아와 상호작용을 권장한다. 영아 상호간 활동으로 영아는 모델링을 통해 다양함을 만들어 가도록 자극하며 자극된 활동의 확장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 통합적인 발달을 돕는다.

전개단계 4단계에서는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함께 모아서)놀아본다. 영아 스스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

전개단계 5단계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해 본다. 영아의 이전경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영아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일어나도록 자극한다. 영아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표현하게 하며 이때 교사의 의도했던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면 영아가 마음껏 활동하여 발현적 놀이 활동을 하도록 한다. 점토놀이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구성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며 협동학습을 하게 한다.

마무리 6단계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작품들을 감상하고 평가하였다. 영아는 활동을 잘 정리한 후 작품을 소개하고 친구의 작품을 보여 드는 생각에 대해 얘기하며 오늘 활동하는 동안 느낌이나 기분등을 공유하며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했는지 얘기한다. 놀이 활동 후 영아와의 이야기 나누기는 영아의 사고를 재정리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중요한시간이다. 영아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새로운 단어, 원리, 놀이 활용 등을 알게 되는 지식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영아의 활동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배려하는 시간이 된다.

1단계에서 6단계로 활동이 전개되는 실험집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산책과 바깥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다양한 자연물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는 경험은 영아들의 감각 탐색뿐 아니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하정연외 2008: Clouder and Nicole, 2008)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사와 영아가 자연물을 직접 수집 및 채취하는데 의의를 둔다. 재료에 따른 실험집단의 점토활동은 <표 15>와 같다.

<표 15> 재료에 따른 실험집단의 점토활동

횟수	활동명	활 동 내 용	재 료
1	점토야! 반가워	오감을 활용하여 점토와 자연물을 탐색한 후 점토와 자연물로 창의적으로 구성해본다.	밀가루 점토, 여러 가지 곡물
2	다양한 모양 만들기	모양에 관한 책을 본 후 모양블록이나 모형을 관찰하고 교실에서 모양이나 선을 찾아보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을 점토와 자연물로 구성해 본다.	색점토, 여러 가지 곡물, 솔방울, 잣방울, 모양 블록(모형),책
3	무늬찍기	호두, 땅콩, 돌멩이, 나뭇잎,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점토에 무늬를 찍어본다.	지점토, 호두, 땅콩, 돌멩이, 나뭇잎, 나뭇가지
4	손가락 찍기	점토에 손가락 다섯 개를 차례대로 찍어본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꾸며본다.	찰흙, 봉선화, 분꽃, 야생화, 다양한 조개껍질, 고구마 순, 도라지열매 및 씨
5	내 얼굴, 친구 얼굴 만들기	거울을 보며 내 얼굴과 친구얼굴을 관찰한 후 이야기 나누고 점토와 자연물로 내 얼굴과 친구 얼굴을 구성해 본다.	찰흙, 양배추잎, 옥수수, 솔잎, 상수리열매, 깻잎, 나뭇가지, 참깨 줄기, 거울
6	과일 만들기	‘수박파티’ 노래를 들으며 과일에 관한 책과 다양한 과일의 모형을 관찰한 후 이야기 나누고 점토와 자연물로 과일을 구성해 본다.	아이클레이, 동백꽃잎, 감잎, 나뭇가지, 포도 줄기, 과일 모형, 자연 관찰 책, 음원
7	장신구 만들기	다양한 장신구(반지, 팔찌, 목걸이)를 보고 착용해 본 후 점토와 자연물로 장신구를 구성해 본다.	색점토, 들국화, 강아지풀, 봉선화, 코스모스, 각종 조개껍질, 다양한 장신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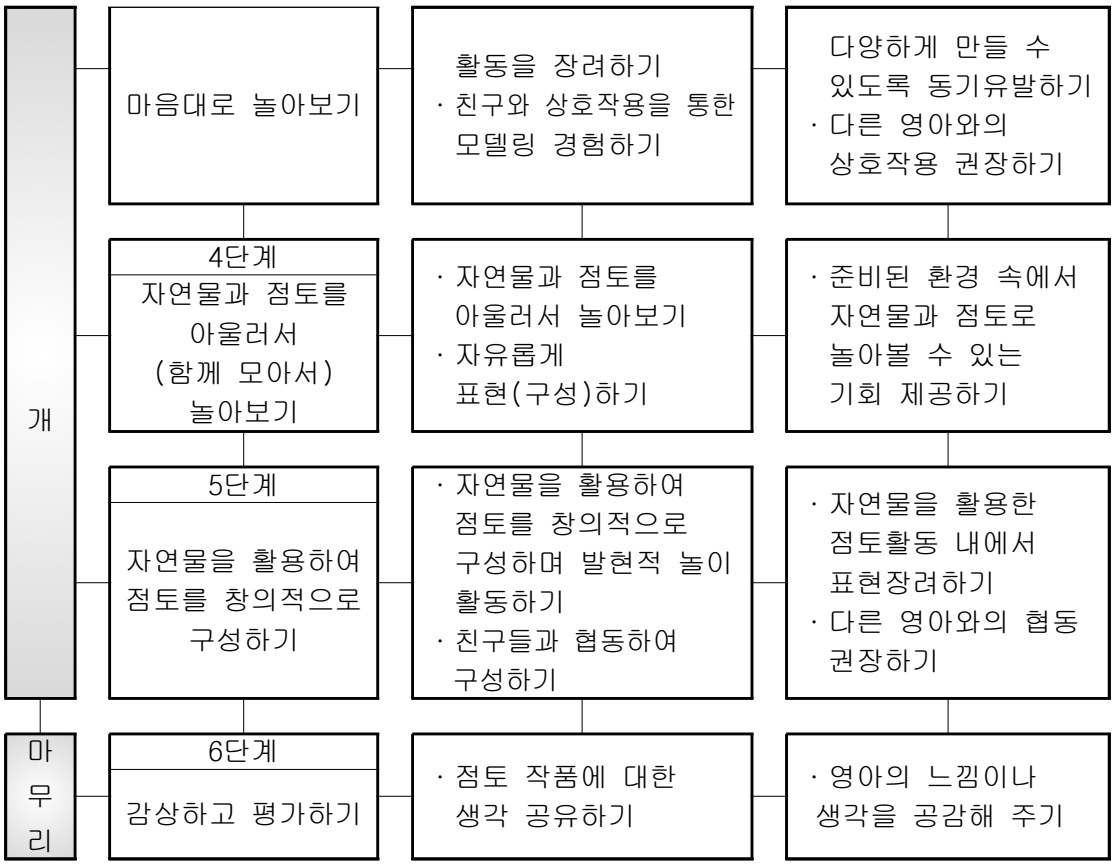
8	꽃과 꽃잎 콜라쥬	점토 조각을 붙여 납작하게 점토판을 만든 후 꽃과 꽃잎을 그 위에 붙여본다.	밀가루, 야생화, 사랑초, 크로버 꽃, 백일홍, 봉선화
9	과일 나무 만들기	브로콜리와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나무를 만들고 직접 과일의 맛을 본 후 점토로 과일을 만들어 구성해 본다.	찰흙, 아이클레이,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 포도, 나뭇가지, 자갈, 나뭇잎, 그림카드(과일과 야채)
10	바닷 속 꾸미기	사진자료를 보며 어떤 바다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기잡이' 노래를 듣고 부르며 고기 잡기 게임을 한 후 점토와 자연물로 바닷 속을 구성해 본다.	색점토, 감자, 솔가지, 솔잎, 고구마 잎과 줄기, 다양한 조개껍질, 곡물, 전지, 사진자료, 음원, 고기 잡기 교구
11	피자 만들기	인쇄물에 있는 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직접 피자 맛을 본 후 점토와 자연물로 피자를 구성해 본다.	밀가루 점토, 양파, 블루베리, 피망, 빵가루, 커피가루, 모래, 인쇄물, 피자
12	동화 듣고 구성하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책을 본 후 점토와 자연물로 똥을 구성해 본다.	찰흙, 밀가루점토, 곡물, 옥수수, 커피 가루, 동화책

(2) 실험집단의 교수·학습 모형

본 연구에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교수·학습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교수·학습 모형

(3) 실험집단과 활동안 예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단계에 따른 실험집단의 활동안 예시는 <표 16>과 같다.

<표 16> 실험집단의 활동안 예시

일 시	2015년 8월 12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다양한 모양 만들기		
활동 목표	· 색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모양 블록을 보고 교실에서 모양들을 찾아본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색점토로 창의적으로 구성해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동 준비물			◇색점토 ◇여러 가지 곡물, 솔방울, 잣 방울 ◇모양 블록(모형-○△□), 책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색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색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 바다처럼 시원해요. ②여러 가지 곡물과 솔방울, 잣 방울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 선생님~ 곡물이 빗방울 같아요. 검은 빗방울, 하얀 빗방울 (점토를 뿌리며)빗방울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나비야~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구멍 내어 보자. - 점토가 길게 늘어나 기차가 되었어요. 칙칙 폭폭 ~ 칙칙 폭폭~ 점토 구멍에 토끼가 살아요. 토끼집이에요. 저는 ○○처럼 점토를 두들기니 올록볼록 모양이 되었어요. 재미있다. 울퉁불퉁.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위에 솔방울을 올려주었어요. 점토위에 잣방울을 올려주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점토와 자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형블록과 모양이 나온 책을 보여준다. ·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②우리주변의 여러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세모, 네모, 동그라미, 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동그라미로 자전거 바퀴 만들어요. ·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함께 만나면 어떠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우리 집을 만들 수 있어요. · ○○야~. 같이 집을 만들자. - 선생님 집이 엄청 많아졌어요. ○○집, ○○집 마을이 되었어요. · 모양 블록을 보고 공원에서 모양블록과 닮은 모양을 직접 찾아보아요. ③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양을 점토로 만들어본 후 자연물로 꾸며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다양한 모양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동그라미, 세모, 네모, 타원, 별모양, 직선을 만들었어요. 세모로 여우얼굴 만들었어요. · 마음에 드나요? 어떤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나요? - 길쭉한 기찻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색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았나요?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비교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비교집단의 영아들에게는 6주 총 12회에 걸쳐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만 2세 표준보육과정 지도서(2013)의 밀가루 점토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물조물 반죽놀이, 싹뚝! 밀가루 반죽, 색반죽을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에 동물 모양 찍기 틀로 찍어보기, 삼색 밀가루 케이크(생일파티놀이), 삼색 밀가루로 요리하기, 모양 반죽으로 놀아요'로 밀가루를 사용하여 탐색과 감각활동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활동 과정은 실험집단과 같게 점토 활동의 단계를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분하였다. 자연물이 없는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을 실시했으며, 총 4단계 활동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단계 1단계에서는 활동에 들어가기 전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서 영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점토를 소개한다. 전개단계는 2단계에서는 생활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3단계에서는 점토를 구성하기로 구분하고, 마무리 4단계에서는 감상하고 평가하기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의 활동 안 예시는 <표 17>과 같다.

<표 17> 비교집단의 활동안 예시

<table>
<tr><td colspan="2">일 시</td><td>2015년 8월 12일 (수)</td><td>대상</td><td>비교 집단 14명</td></tr>
<tr><td colspan="2">점토 활동 제목</td><td colspan="3">우리가족의 운동기구 만들기</td></tr>
<tr><td colspan="2">활동 목표</td><td colspan="3">· 우리가족에 대해 소개한다.
· 우리가족이 하는 운동에 대해 소개한다.
· 우리가족의 운동기구를 점토로 구성해 본다.</td></tr>
<tr><td colspan="2">활동 준비물</td><td colspan="3">◇색점토</td></tr>
<tr><td colspan="5">활동 과정</td></tr>
<tr><td rowspan="2">도입</td><td rowspan="2">1단계</td><td rowspan="2">점토
소개하기</td><td colspan="3">①색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 예전에 친구랑 같이 가지고 놀았어요.
집에서 봤어요.
저는 안가지고 놀았어요.
·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색점토에요.</td></tr>
<tr><td colspan="3">전개</td><td>2단계</td><td>생활주제에</td><td>①우리가족에 대해 소개한다.</td></tr>
</tabl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른 이야기 나누기	· 우리가족에 대해 소개해 보아요. - 우리가족은 아빠, 엄마, 형, 동생이 있어요. · 우리 가족이 하는 운동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 아빠는 볼링을 해요. · 엄마는 줄넘기를 해요. - 우리가족은 공원에서 다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3단계	점토를 구성하기	①우리가족의 운동기구를 색점토로 만들어 볼까요? · ○○야. 색점토로 어떤 운동기구를 만들까? - 저는 아빠의 볼링공을 만들거에요. - 저는 엄마의 줄넘기를 만들거에요.
마무리	4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비교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과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을 하도록 실험 처치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은 <표 18>과 같다.

<표 1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비교

구 분		실험 집단	비교집단
실험 처치 횟수		주 2회씩 6주 / 총 12회 실시	
사전 검사		사회 · 정서적 행동 관찰 평가	
활동 형태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활동하기	생활주제에 따른 점토활동하기
집단구성		개별 및 소집단	
활동 내용 및	도입(5분)	점토 소개하기	점토 소개하기
	전개(10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생활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법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놀아보기	점토를 구성하기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마무리(5분)	감상하고 평가하기	
사후 검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관찰 평가	
교사의 역할		- 동기 유발자 : 점토를 가지고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브레인스토밍) - 상호 작용자 : 다른 영아와의 상호작용 권장 (모델링, 협동학습) - 촉진자 : 프로그램 내에서 표현 장려 (발현적 놀이 활동)	- 점토활동의 자료 제공자, 점토활동 안내자,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자

5. 사후 검사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사는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영아 31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담임교사가 사회·정서적 행동 관찰 평가를 실시하였다.

E. 자료 처리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실험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검사 점수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A.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회·정서적 행동	실험집단	17	138.29	8.28	160.53	6.82
	비교집단	14	139.15	6.75	145.93	8.71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회·정서적 행동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38.29점(SD=8.28),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60.53점(SD=6.82)으로 22.24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39.15(SD=6.75), 사후검사 평균은 145.93점(SD=8.71)으로 6.78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20>과 같이 공간능력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592, p<.001).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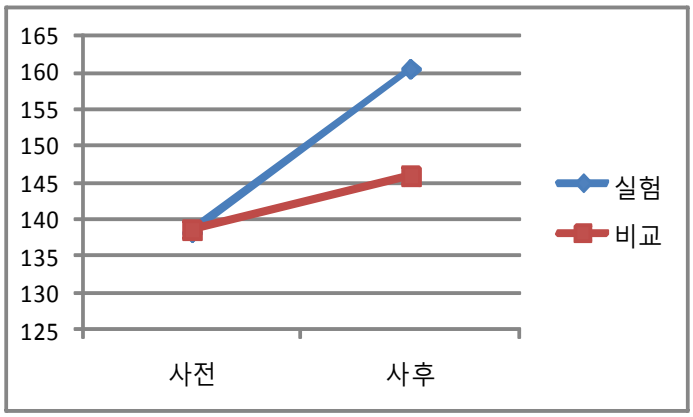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0>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정서적 행동	공변인	813.852	1	813.852	24.842***
	집단	1722.962	1	1722.962	52.592***
	오차	917.312	28	32.761	
	합계	737948.000	3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B.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1> 긍정적 사회 · 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전체)	실험집단	17	63.35	6.05	74.88	1.61
	비교집단	14	60.64	3.99	63.36	5.03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63.35점(*SD*=6.05),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74.88점(*SD*=1.61)으로 11.53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60.64점(*SD*=3.99), 사후검사 점수는 63.36점(*SD*=5.30)으로 2.72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22>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F=81.822, p<.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2> 긍정적 사회 · 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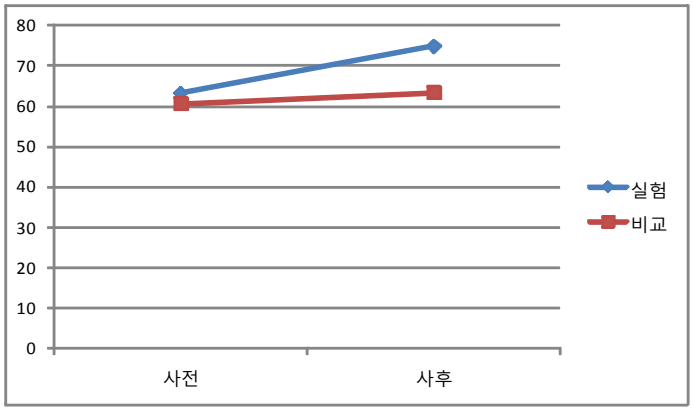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전체)	공변인	96.391	1	96.391	9.829**
	집단	802.401	1	802.401	81.822***
	오차	274.588	28	9.807	
	합계	151894.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 · 정서적 긍정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1.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순종	실험집단	17	13.94	2.01	15.94	1.08
	비교집단	14	13.21	.80	13.71	.99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 영역 중 순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3.94점(*SD*=2.0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94점(*SD*=1.08)으로 2.00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3.21점(*SD*=.80),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71점(*SD*=.99)으로 .50점만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이 하위영역인 순종(F=31.752, p<.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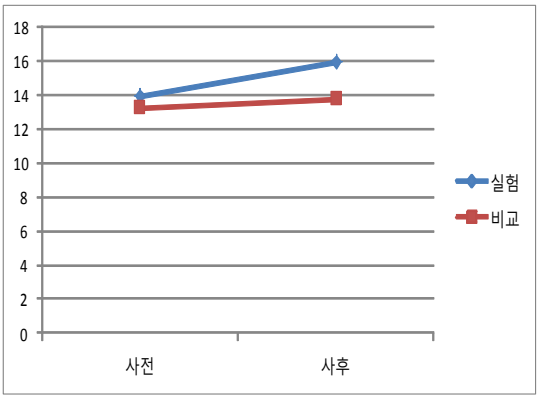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순종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순종	공변인	5.348	1	5.348	5.661*
	집단	29.995	1	29.995	31.752***
	오차	26.451	28	.945	
	합계	6985.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 영역 중 순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순종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2.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5>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주의집중	실험집단	17	9.47	.71	10.00	.86
	비교집단	14	8.21	.97	8.57	1.22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 영역 중 주의집중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주의집중의 경우는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 9.47점(*SD*=.7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00점(*SD*=.86)으로 .53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점수평균은 8.21점(*SD*=.97),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8.57점(*SD*=1.22)으로 .36점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26>과 같이 하위 영역인 주의집중(*F*=1.119)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주의집중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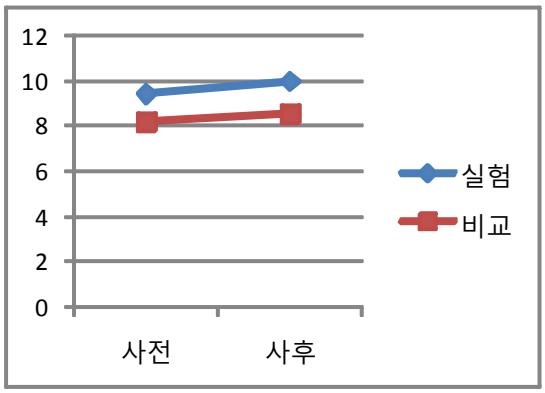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주의집중	공변인	14.510	1	14.510	24.014***
	집단	.676	1	.676	1.119
	오차	16.919	28	.604	
	합계	2760.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영역 중 주의집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5] 주의집중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모방 및 놀이	실험집단	17	11.65	.78	13.29	.68
	비교집단	14	10.57	.85	10.93	1.14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 영역 중 모방 및 놀이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1.65점(SD=.78),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29점(SD=.68)으로 1.64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0.57점(SD=.85),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93점(SD=1.14)으로 .36점만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28>과 같이 하위영역인 모방 및 놀이(F=26.171, p<.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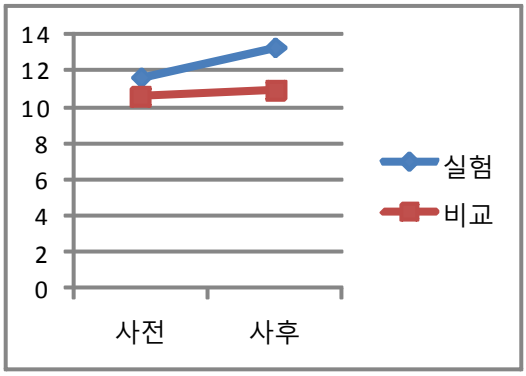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8>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모방 및 놀이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모방 및 놀이	공변인	10.643	1	10.643	21.571***
	집단	12.913	1	12.913	26.171***
	오차	13.815	28	.493	
	합계	4701.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영역 중 모방 및 놀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모방 및 놀이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4.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표 29>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동기	실험집단	17	9.59	1.58	12.65	1.11
	비교집단	14	8.57	.85	9.07	1.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영역 중 동기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9.59점(*SD*=1.58),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2.65점(*SD*=1.11)으로 3.06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8.57점(*SD*=.85),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9.07점(*SD*=1.32)으로 .50점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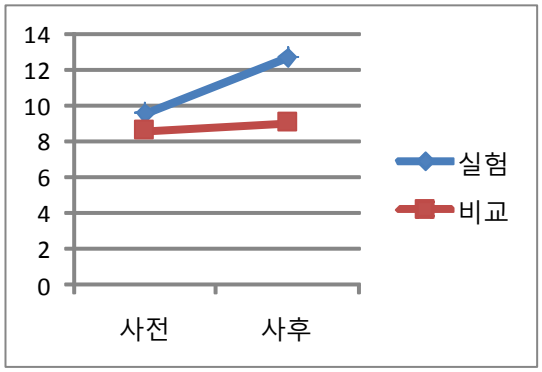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30>과 같이 하위영역인 동기(F=55.504, p<.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동기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동기	공변인	10.638	1	10.638	9.258**
	집단	63.776	1	63.776	55.504***
	오차	32.173	28	1.149	
	합계	3914.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영역 중 동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동기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감정이입	실험집단	17	10.35	2.64	13.00	.70
	비교집단	14	11.79	2.29	12.00	2.35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0.35점(*SD*=2.64),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00점(*SD*=.70)으로 2.65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1.79점(*SD*=2.29),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2.00점(*SD*=2.35)으로 .21점만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32>와 같이 하위영역인 감정이입(F=9.298,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감정이입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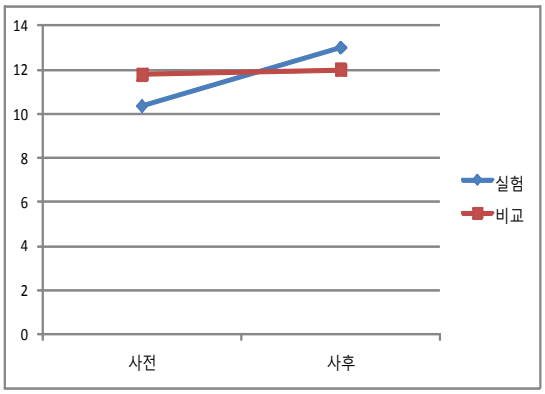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감정이입	공변인	27.968	1	27.968	15.051**
	집단	17.278	1	17.278	9.298**
	오차	52.032	28	1.858	
	합계	4969.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8] 감정이입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6.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친사회적 또래관계	실험집단	17	8.35	1.41	10.00	.61
	비교집단	14	8.29	1.06	9.07	1.32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8.35점(SD=1.4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00점(SD=.61)으로 1.65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8.29점(SD=1.06),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9.07점(SD=1.32)으로 .78점만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34>와 같이 하위영역인 친사회적 또래관계(F=7.124, p<.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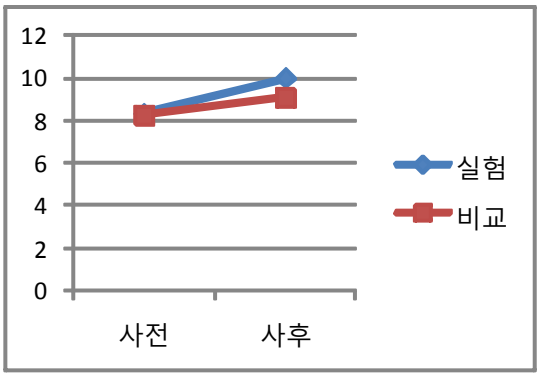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4>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친사회적 또래관계	공변인	4.204	1	4.204	4.524*
	집단	6.337	1	6.337	7.124*
	오차	24.905	28	.889	
	합계	2881.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친사회적 또래관계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C.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이 영역의 채점방법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5>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 · 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전체)	실험집단	17	74.94	6.09	85.65	6.09
	비교집단	14	78.51	4.11	82.57	5.09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74.94점(*SD*=6.09),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85.65점(*SD*=6.09)으로 10.71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78.51점(*SD*=4.11), 사후검사 점수는 82.57점(*SD*=5.09)으로 4.06점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36>과 같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393, p<.01).

<표 36>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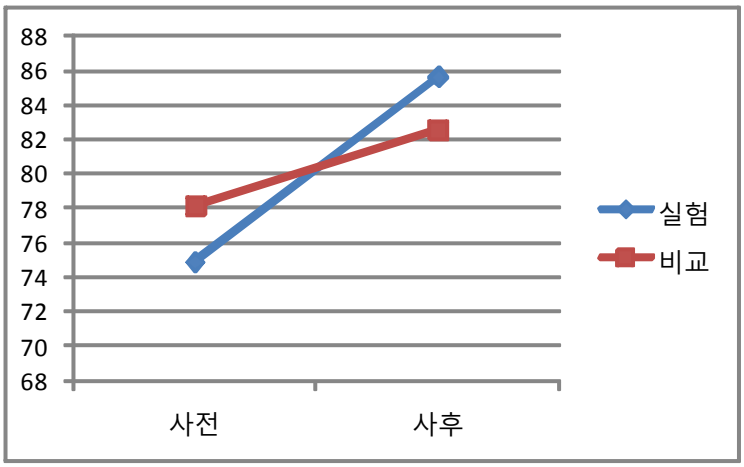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전체)	공변인	358.897	1	358.897	17.556***
	집단	192.017	1	192.017	9.393**
	오차	572.414	28	20.443	
	합계	221086.000	31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사전 · 사후 점수 비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 · 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이 영역의 채점방법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37>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사전 · 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외현적 문제)	실험집단	17	33.65	5.43	39.12	6.55
	비교집단	14	35.79	3.33	38.57	3.65

<표 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33.65점(*SD*=5.43),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39.12점(*SD*=6.55)으로 5.47점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35.79점(*SD*=3.33), 사후검사 점수는 38.57점(*SD*=3.65)으로 2.78점만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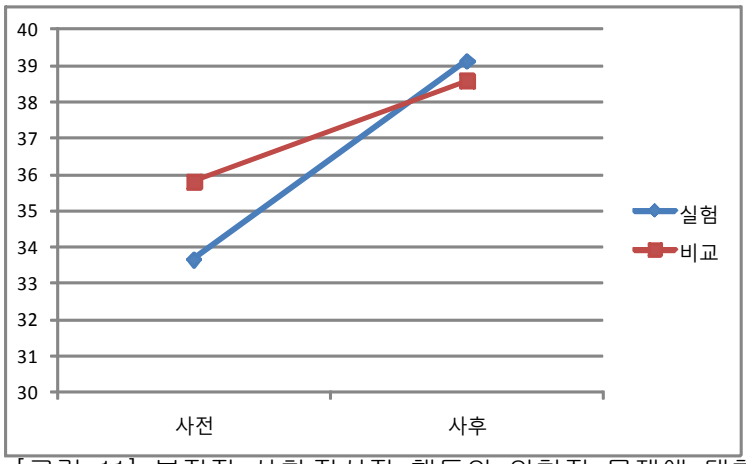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38>과 같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외현적 문제(F=3.173, p<.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외현적 문제)	공변인	480.971	1	480.971	35.419***
	집단	43.089	1	43.089	3.173*
	오차	380.222	28	13.579	
	합계	47703.000	31		

*p<.05,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외현적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활동·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활동·충동성	실험집단	17	9.18	2.12	10.65	2.34
	비교집단	14	9.79	1.52	10.00	1.66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9.18점(*SD*=2.12),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65점(*SD*=2.34)으로 1.47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9.79점(*SD*=1.52),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0.00점(*SD*=1.66)으로 .21점만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40>과 같이 활동·충동성(F=3.389, p<.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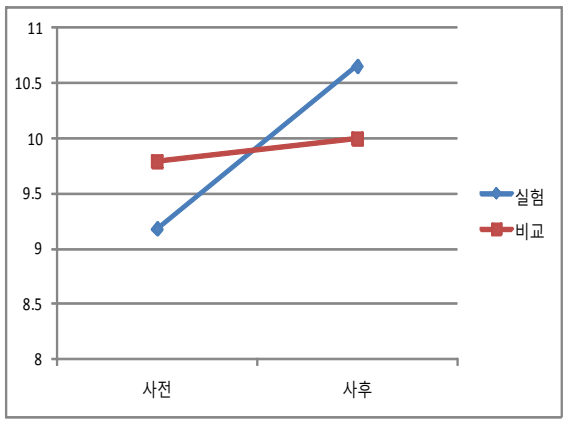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활동·충동성	공변인	51.908	1	51.908	20.194***
	집단	8.712	1	8.712	3.389*
	오차	71.974	28	2.571	
	합계	3451.000	31		

*p<.05,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활동·충동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2] 활동·충동성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공격·반항성	실험집단	17	24.47	4.20	28.47	4.65
	비교집단	14	26.00	2.28	28.57	2.53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살펴보면 공격·반항은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 24.47점(*SD*=4.20),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28.47점(*SD*=4.65)으로 4.00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점수평균은 26.00점(*SD*=2.28),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28.57점(*SD*=2.53)으로 2.57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42>와 같이 하위영역인 공격·반항성(*F*=1.198)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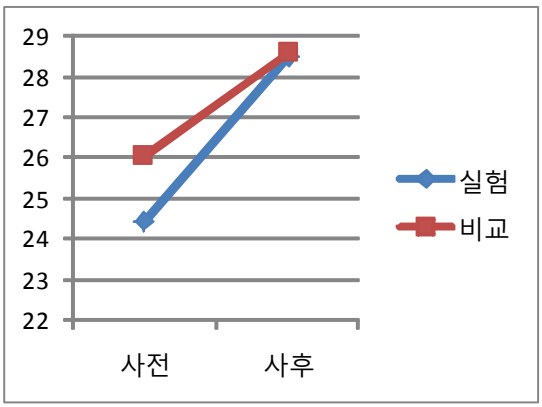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공격·반항성	공변인	219.451	1	219.451	29.230***
	집단	8.995	1	8.995	1.198
	오차	210.213	28	7.508	
	합계	25638.000	31		

*p<.05,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공격·반항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공격·반항성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이 영역의 채점방법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3>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사전 · 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회 · 정서적 부정 행동 (내면적 문제)	실험집단	17	41.29	3.77	46.53	2.50
	비교집단	14	42.72	2.20	44.00	3.21

<표 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내면적 문제)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41.29점(*SD*=3.77), 사후검사 점수는 평균 46.53점(*SD*=2.50)으로 5.24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42.72점(*SD*=2.20), 사후검사 점수는 44.00점(*SD*=3.21)으로 1.28점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44>와 같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내면적 문제(F=13.255,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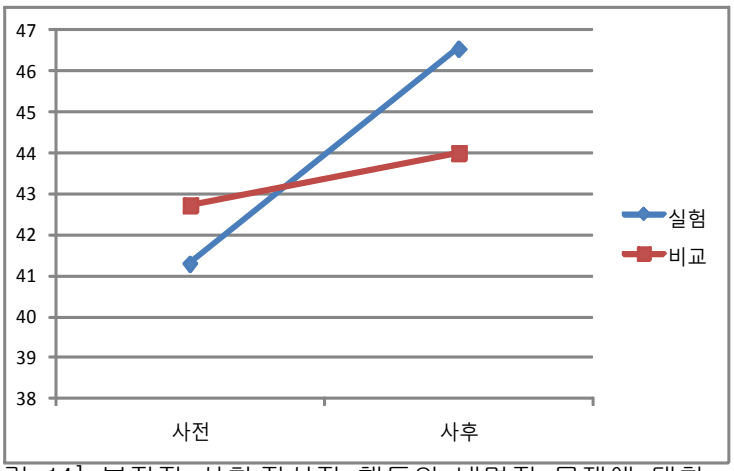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내면적 문제)	공변인	80.827	1	80.827	14.752**
	집단	72.621	1	72.621	13.255**
	오차	153.409	28		
	합계	64143.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 · 정서적 부정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4]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4]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우울·위축	실험집단	17	13.65	1.53	13.94	.65
	비교집단	14	13.00	.99	13.07	1.14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우울·위축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3.65점(*SD*=1.53),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94점(*SD*=.65)으로 .29점이 높아진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은 13.00점(*SD*=.99),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07점(*SD*=1.14)으로 .07점이 높아졌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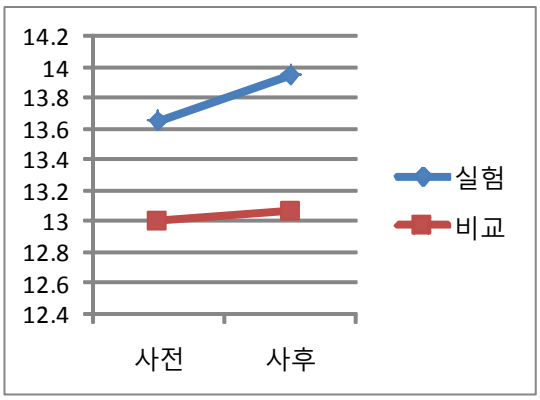
<표 46>과 같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하위영역인 우울·위축(F=3.568, p<.05), 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우울·위축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우울, 위축	공변인	3.826	1	3.826	5.344*
	집단	2.554	1	2.554	3.568*
	오차	20.244	28	.716	
	합계	5720.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중 우울·위축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우울·위축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47> 부정적 사회 · 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대한 사전 · 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일반적인 불안수준	실험집단	17	14.00	1.65	15.53	1.17
	비교집단	14	14.79	.69	15.50	1.01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대한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평균 14.00점(*SD*=1.65),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5.53점(*SD*=1.17)으로 1.53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점수평균은 14.79점(*SD*=.69),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15.50점(*SD*=1.01)으로 .71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48>과 같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하위영역 중 일반적인 불안(*F*= .407)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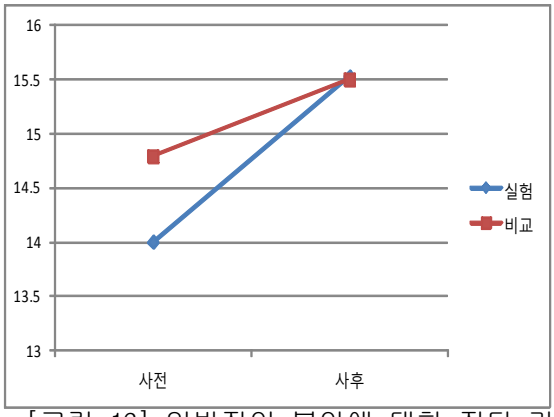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일반적인 불안수준	공변인	4.175	1	4.175	3.704
	집단	.459	1	.459	.407
	오차	31.560	28	1.127	
	합계	7499.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중 일반적인 불안수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6]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6] 일반적인 불안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3.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표 49>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분리불안	실험집단	17	8.53	1.54	9.71	.68
	비교집단	14	9.14	.86	9.29	.91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분리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 평균 8.53점(*SD*=1.54),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9.71점(*SD*=.68)으로 1.18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점수평균은 9.14점(*SD*=.86),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9.29점(*SD*=.91)으로 .15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50>과 같이 분리불안(F=10.575, p<.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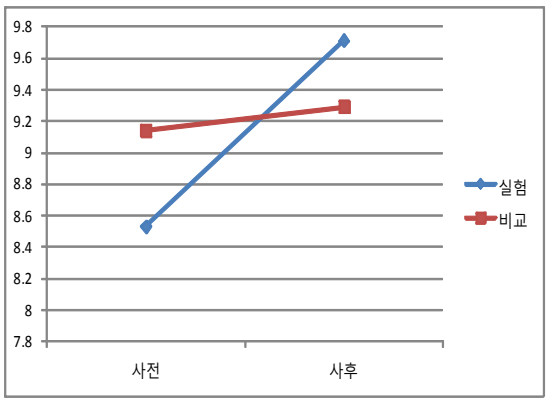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분리불안에 대한 공분산 분석

구분	변량원	*SS*	*df*	*MS*	*F*
분리불안	공변인	9.264	1	9.264	28.431***
	집단	3.445	1	3.445	10.575**
	오차	9.123	28	.326	
	합계	2827.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분리불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분리불안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4.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미치는 효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51>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실험집단	17	5.12	1.31	7.35	1.45
	비교집단	14	5.79	.89	6.14	1.29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새로운 것에 대한억제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는 실험집단은 사전검사 점수 평균 5.12점(*SD*=1.31),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7.35점(*SD*=1.45)으로 2.23점이 향상된 반면, 비교집단은 사전검사 점수평균은 5.79점(*SD*=.89),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은 6.14점(*SD*=1.29)으로 .35점만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표 52>와 같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F=24.832, p<.001)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공분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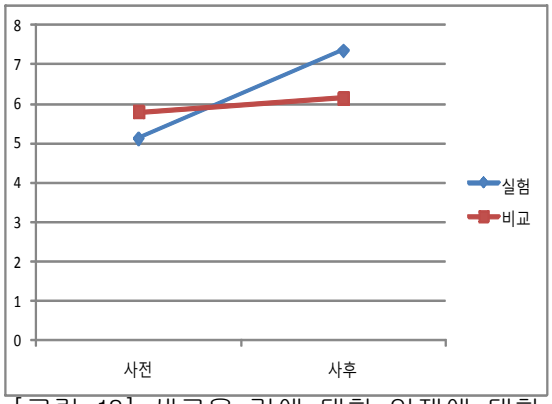
구분	변량원	*SS*	*df*	*MS*	*F*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공변인	29.831	1	29.831	32.418***
	집단	22.850	1	22.850	24.832***
	오차	25.765	28	.920	
	합계	1503.000	31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중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8]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8]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논의 및 제언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정서적 집단 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사전 점수에서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실험집단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후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정서적 행동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이용한 점토활동이 유아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능력이나 자기와 타인의 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기영(2011)의 연구,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지적장애학생에게 자신의 표현방법을 친구에게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강명숙(2009)의 연구, 자연물을 활용한 실외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슬기(201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처럼 단기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자연물과 점토를 충분히 익히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실내공간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실외 또는 야외 공간 등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주변의 자연물을 점토활동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사전 점수결과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실험집단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후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자연물과 접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아들은 친사회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하정연 외, 2005)는 연구 결과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긍정행동 평균점수 비교 결과를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6개의 하위 영역 중 '주의집중'영역을 제외하고 '순종·모방 및 놀이·동기·감정이입·친사회적 또래관계'의 5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의집중 영역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과 비교집단의 영아들 간에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과 보편적인 점토활동이 영아들의 주의집중을 유발하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유아는 점토놀이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반복적·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이 정한 과제에 집중하며(최은혜, 2013), 재현적인 처리양식을 경험하는 유아는 완성해야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점토활동 자체가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안무영,2005)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점토활동 자체가 주의집중이라는 영역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영아들 모두 발달과 욕구에 적절한 점토를 제공받아, 재미있고 친숙한 점토활동을 경험함으로서 자연물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주의집중 영역에 대한 점수가 비슷하게 상향되어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아들의 자연물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활동방법을 제안해줌으로써 자연물과 점토가 활동 속에서 보다 조화롭게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순종 영역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순종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순종은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으며,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시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이는 점토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활동에 필요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는 연구(김기영, 2011)나, 점토놀이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배운다는 연구(김정현, 2002; 서영경,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약속 지키기 즉, '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의 작품을 망가뜨리지 않기, 친구와 협동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기, 친구가 작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기,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후 함께 정리정돈하기' 등으로 영아들의 순종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전 미리 사전 약속을 함께 정하고 영아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행동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모방 및 놀이 영역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모방 및 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모방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놀이에 몰입하게 만드는 등 여러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함께 해봄으로 사회학습이 되는 것이다(최양윤, 2010). 따라서 영·유아의 점토활동 진행과정에서 모방 행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김미경, 2004; 김민경, 2004; 김준아, 2012; 조형숙, 이은형, 2010, 최은혜, 2013)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동화책을 보고 자연물을 활용하여 똥을 만들어 보는 점토 활동을 하였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에 참여한 영아들은 친구나 교사가 만든 똥을 본 후 작품의 모방을 통해 똥을 작고 크게 만들어 보는 등 크기의 변화를 보였으며, 곡물이나 가루로 된 자연물 등을 찰흙이나 회색 밀가루 점토를 섞어 색이 다른 다양한 똥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는 영아들이 자연물과 점토의 연계활동에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를 확장해 나감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동기 영역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동기영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동기는 놀이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놀이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했을 때 향상된다(최양윤, 2010). 이러한 경험은 안정되고 지지적인 환경이 지원될 때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없애주고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듦으로써 가능하며, 교사가 준비된 환경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재료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점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게 되었다는 강명숙(2009)의 연구, 물렁물렁하고 끈기 있는 가소성 있는 재료인 점토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만지고, 두드리고, 뜯고, 붙이고, 주무르고, 뭉개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의 욕구나 흥미창조의 본능을 자극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창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한 최은혜(2013)의 연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의 다양한 특성 중 흥미성과 다양성, 탐색성은 아이들에게 다감각적인 경험을 주며 점토는 질감과 냄새,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는 신영선(2000)의 연구, 유아들에게 자연물이라는 매체는 자발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보다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동기를 주고 더 적극적으로 관찰과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김선아(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색점토는 영아의 흥미를 끌고 동기를 유발하며, 색깔과 관련한 대상을 떠올리게 돕는다고 보고한 김희진 등(2004)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운 여름에 실외에서 주로 실험을 진행 했는데 모기가 자주 나타나자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모기약을 뿌려 놓으며 편안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피자 만들기 활동에서 가루로 된 커피가루와 모래를 제공하자 영아들은 냄새를 맡아보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만져보는 등 가루로 된 자연물에 관심을 보였고, 점토로 피자를 만들고 피자 위에 모래나 커피가루를 뿌려보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색점토·밀가루 점토·지점토·찰흙·아이클레이 5가지 종류의 점토와 가정과 어린이집 주변의 실외환경에서 채취한 점·선·면·부피·가루의 특성을 가진 자연물을 함께 제시해 주었는데, 이러한 소재가 영아들의 호기심과 자발적 참여를 증가 시키고,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자극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감정이입 영역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감정이입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김기영(2011)이 언급한 친구들의 점토작품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친구를 서로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고, 친구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거나 작품을 감상하면서 친구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윤희(2006)는 영아에 대해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조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를 여럿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 역할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자연물과 점토로 오징어, 물고기, 해파리 등 바다생물들을 만들고 바닷속을 꾸며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협력적 활동 경험이 친구의 정서를 이해하는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 번째 친사회적 또래관계 영역에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또래관계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할 수 있다. Wortham(1990)에 의하면 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기술 획득의 시작은 2세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만 2세 영아는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하며 타인과의 접촉 또한 활발해진다. 또한 한국 영아들의 발달 연구 자료에 의하면 32개월 무렵부터 절반이 넘는 영아들이 규칙을 지키고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릴 수 있음을 볼 때(곽금주 외, 2005), 이 시기는 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점토놀이의 경우에는 점토와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또래 영아들과의 사회적 놀이가 자주 관찰되고 이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조형숙, 이은형(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점토의 부드러움은 직접 주무르는 작업시 촉각에서 오는 쾌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어린이들 마음의 긴장을 해소시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며(고정란, 2002), 자연물이라는 놀잇감과 놀이 환경이 주어진다면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권은희(2003)나 김성미(2008)의 연구 역시 본 연구의 견해를 지지한다. 더불어 점토활동을 실시한 후 사회·정서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 즉, 점토놀이를 통해서 교실내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김미경(2004)의 연구, 점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교류하며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식을 넓혀간다고 밝힌 김민경(2004)의 연구, 협동하여 공동 점토 작품을 함께 완성해 감으로써 친구와의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김기영, 2011; 문순애, 김경미, 2005; 박중규, 2002)와도 일치하며, 자연을 직접 체험하면서 타인과의 협동과 배려 등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조형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매우 흡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채취한 깻잎과 고구마 순을 크기가 작고 큰 잎사귀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 자연물과 점토를 나누어 가지는 활동을 통해 배려·나눔 같은 집단 안에서의 친사회적 경험이 또래관계에서도 긍적적인 발전을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볼 때 교사 주도적인 점토활동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점토로 영아 스스로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물과 점토를 탐색하고 구성해 나가도록 교사는 지지, 조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사전 점수결과 비교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실험집단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후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찰흙은 자연에서 얻은 흙의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휴식을 갖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백중열(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사전 점수결과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실험집단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후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외현적 문제에 대한 평균점수 비교 결과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충동성 영역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격·반항성 영역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외현적 문제 하위영역인 활동·충동성 영역의 감소와 관련하여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을 통해 영아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 행동을 조절하게 되어 부정적 행동이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중열(2016)은 점토는 유연성의 특성으로 인해 적당량의 수분이 있으며, 표면이 부드럽고 감촉이 말랑말랑해서 산만한 아동이 접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산만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워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아들에게 자연물과 아이클레이를 제공하자, 아이클레이로 길게 늘려보고 공을 만들어 보고, 함께 제시한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의 자연물을 충분히 탐색하는 경험과 또 이러한 소재를 아이클레이에 꽂아보며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외현적 문제 하위영역인 공격·반항성 영역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과 비교집단의 영아들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시기가 7월에 시작하여 9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시기는 교사와 또래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탈 중심화 발달의 시작단계에 있어서 공격성이나 반항성과 같은 부정 행동에서 벗어나 영아들 역시 대부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맞이하게 된데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토놀이가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 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난·공격적 상황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 최진홍(2006)의 연구, 점토놀이를 통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유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김미경(2004)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이는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할을 중점을 두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유아의 문제행동은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pierrehumbert(2002)의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주의 환기나, 신호주기 등의 간접적 제재를 많이 사용하고 제안·설득·돕기 등의 반응을 보이면, 유아는 안정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Marion, 1981). 또한 교사가 적절하고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지도하면 유아의 자아통제력과 자아 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으며, 유아가 스스로를 더 유능하게 느끼게 된다. 반대로 교사가 일관성이 없고 거칠게 비난하기, 벌주기, 위협하기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Rollins&Thomas, 1979). 성인들은 부정적인 지도전략을 사용한 직후 유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단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문제행동에는 거칠고 직접적인 지도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뿐 유아들의 문제 행동은 다시 시작되고 심지어 더 강화되기도 한다(류승희, 이승우, 2012). 따라서 외현적 문제행동에 있어 공격·반항적 행동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진행하되, 활동과정 속에서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역할 모델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사전 점수결과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실험집단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두드리고, 치고, 찢어보고, 만들어 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순화시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김기영(2011)의 연구, 점토의 특성중 치료성은 점토를 두들기고 던지면서 내면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여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 촉감성은 여러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해방감과 만족감을 제공했다는 신영선(2000)의 연구,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기 어려운 유아들의 경우 점토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보도록 하는 활동을 통하여 내면적인 감정을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성을 순화시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선영, 남영옥, 김수영(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찰흙을 넓게 펼쳐 찰흙 판을 만들고 손가락 찍기 활동을 하였다. 다섯 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락을 찰흙 판에 깊게 또는 얕게 찍어 보고,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찰흙의 촉감을 즐기면서 고구마 순을 꽂아보고 다섯 손가락을 찍은 구멍 속에 도라지씨 등을 넣어 보면서 자연물과 점토의 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아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감정을 발산하고 정서적인 만족감 등 내면적 문제 행동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부정행동의 내면적 문제에 대한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4개 하위영역 중 일반적인 '불안 수준' 영역을 제외한 '우울·위축,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라는 3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내면적 문제 하위영역인 일반적인 불안수준 영역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과 비교집단의 영아들 간에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과 보편적인 점토활동이 영아들의 일반적인 불안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점토놀이를 통해 안정감이 없고 불안해하던 유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김미경, 2004), 도예치료에서 점토를 활용하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백중열, 2016), 점토놀이가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 불안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최진홍, 2006)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를 학기 초가 아닌 중반기에 실시하였는데, 이시기는 교사와 또래간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점차 기관에 적응하여 일반적인 불안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미 담임교사와 곤충을 접한 기회가 종종 있어 왔던 실험집단의 영아들은 실외에서 개미나 무당벌레 등을 접하자 거부감이 아닌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친근감 있게 다가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내면적 문제 하위영역인 우울·위축 영역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우울·위축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점토놀이를 통해 위축된 유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으며(김미경, 2004), 유아로 하여금 점토를 주무르고 만지는 동안 심리적으로 억압된 감정을 쉽게 밖으로 발산하도록 돕는 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김선현, 2004), 점토놀이가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비난·공격적 상황, 자존감 상함, 불안, 좌절감 경험 순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결과(최진홍, 2006)와 같은 맥락이다. 유아는 점토놀이 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며(김미경, 2004; 최은혜, 2013), 점토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금지되거나 억압된 정서가 점토를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Henley, 2005). 영아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지고 있는 우울하거나 위축된 감정을 놀이로써 표현하게 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이 중재적 역할을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아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을 통해 내적 긴장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보다 많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에서 거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영아들의 경우 답답함과 지루함을 간혹 호소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교사가 "밖에 나가자"고 얘기하자, 영아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표현하였다. 실외에서 자연물을 만나는 활동자체가 영아들에게 '기분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특히 실외에서 점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며 일상 속 친근한 소재인 나뭇가지, 돌멩이 등 자연물을 함께 채취하여 놀이에 활용 하였을 때, 보다 편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놀이하는 적극적인 영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세 번째 내면적 문제 하위영역인 분리불안 영역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분리불안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도움과 관심 애정을 얻기 위한 유아의 의존적인 태도는 점토놀이를 통해 반복되면서 점차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보였다는 김미경(2004)의 연구, 소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는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해소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해주어 불리불안 행동의 감소와 애착 안정성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주연(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토로 판을 만들고 꽃과 꽃잎을 붙여보는 콜라쥬 활동을 하였는데, 손과 손바닥으로 쾅쾅 두들기며 납작하게 점토판을 만들고, 손으로 점토를 떼어서 그 각각의 덩어리를 합하여 점토판을 만들고 야생화, 백일홍, 봉선화, 봉선화 잎을 붙여 보는 콜라쥬 활동을 통해 영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켰으며, 집단생활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효과를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들이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로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내면적 문제 하위영역인 새로운 것에 대한 억제 영역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아들이 비교집단의 영아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또래 간 관계증진과 친밀감형성 증가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낯선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억제행동 감소에 효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초기 유아는 손에 잘 묻는 점토에는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손에 묻지 않는 점토에는 적극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최은혜(2013)와 일치하며, 점토에 대한 경험이 아주 없는 만 1세 영아들로 점토에 관심은 있으나 직접적인 점토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못한 영아들은 다른 영아가 경험하는 점토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이 어떤 행위를 시도해야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점토와 점토 영역에 적응해 간다는 연구(김준아, 2012)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초기에 점토와 처음 접하는 영아들이 낯선 매체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였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움을 요청하기·의사소통하기 등에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종류의 점토로 접근하였는데, 질감이 좀 더 단단한 지점토, 찰흙 보단 질감이 부드러운 밀가루 점토, 색깔이 다양한 색점토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며, 아이클레이가 손에 묻자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활동이 진행할수록 영아들은 점토에 점차 익숙해져 가며 자기 나름의 활동을 통해 적응해 가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점·선·면·부피·가루의 특성을 가진 자연물을 각각의 점토에 붙여보기·꽂아보기·뿌려보기 등을 하며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놀이하는 적극적인 영아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기에 다져지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중 외현적 문제 행동나 내면적 문제 행동들은 이후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정 행동들이다. 따라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과 같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통해 영아의 놀이 촉진을 지원해 주면서 영아의 여러 문제행동들을 주목하고 영아가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유의미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둘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셋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영아의 긍정적, 부정적 사회·정서적 행동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은 영아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될 수 있으며, 유아기관을 처음 접하게 되는 영아들의 바람직한 사회·정서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상품화 되어 있는 점토뿐만 아니라 유점토, 밀가루 점토 등 다양한 유형의 점토를 제시하고, 동시에 획일적이고 상품화된 찍기틀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제한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변적이고 무한한 자연물을 교수매체로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놀잇감을 통해 친환경적 놀잇감을 경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익혀가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자연물을 관찰하는 기회와 관찰 내용을 또래와 나누고, 놀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영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통해 영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은 감소시킴으로 인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결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주의집중 증진, 공격·반항성의 감소, 일반적인 불안수준의 감소와 관련하여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하고 후속 연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써 사회·정서적 행동의 하위범주가 제한적이며, 그에 따른 질적인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못했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영아의 반응과 변화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가를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 연구를 실시하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영아들의 점토활동 양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어 영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점, 선, 면, 부피, 가루의 특성을 지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종류의 자연물이나 가소성이 있는 무형의 재료 등을 활용하여 점토활동에 활용되는 소재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사회·정서적 행동만을 살펴보았으나 영아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보이는 사회·정서적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사와 어머니가 함께 평정하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경희, 오영희(2010). 자기 주도적 주제선정 점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또래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0**(11), 551-564.

강명숙(2009).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학습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인구, 최 경(2006).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이나무.

고은별(2006).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 활동이 유아의 그림 표상 능력 및 미술성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란(2002). **미술교육을 위한 도예부 특기적성교육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유아를 위한 자연체험 활동 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국립 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권가영, 류경희, 강상(2014). 산책을 통한 자연탐색활동이 만1세 영아의 어휘력, 의사소통능력, 사회,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1), 125-144.

권경숙(2002). **어린이집 영아들의 갈등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희(2003). **자연친화적인 실외환경에서의 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인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혜진, 이순형(2001). 보육시설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121.

기금실(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갑순, 김민정(2010). 자연물을 활용한 수학활동에서 나타난 2세 영아의 수학적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논집, 14**(2), 369-39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경은(2011). **리듬타악기 및 음악 감상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수와 고정곤(2005).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김기영(2011). **자연물을 이용한 점토 활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영(2000). **점토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연구: 유아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04). **점토놀이를 통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래(2015). **실외 자연놀이에서 나타나는 2세 영아의 인지적 경험의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자(1995). **영·유아기 탁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 행동과 유아의 순응 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민경(2004). **점토놀이의 교육적 활용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이미영(2014).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경험과 교육적 의미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97-417.

김병희, 황윤세, 김언진(2015). 학습주기를 적용한 산책 통합 자연물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연탐구지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5**(0), 577.

김선아(2006). **자연체험을 통한 주제탐구 표현학습의 의미.**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현(2004). **흙동이의 유아 찰흙놀이.** 서울: 이론과 실천.

김성미(2008). **자연친화적인 체험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령(2007). **자연물을 활용한 창의적 조형 활동 지도 방안 연구: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2009). 어머니의 무표정한 상황에서 6개월 영아 반응과 15개월경, 사회 정서적 행동 간 관련성. **인간발달연구, 16**(2), 1-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수희, 김지현, 나용선, 전대성 (2008). **아동발달.** 경기도: 양서원.

김슬기(2013). **자연물을 활용한 실외 놀이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1999). **찰흙공예를 활용한 어린이 인성발달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아(2009).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이 영아 교사 관계 및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인숙(2010). 보육교사-영아 간 애착안정성과 사회, 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1**(2), 1-17.

김정(1998). **미술교육학 개론.** 서울: 예경.

김정원(2012). **자연친화적 실외활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실태파악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2002). **아동 점토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유효순(2011). 「전래놀이를 활용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305-325.

김준아(2012). **만 1세 영아의 점토와의 상호작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희(2005). **자연물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과학적 탐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선(2009). 가족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 경험에 따른 만2세반 영아의 사회 정서적행동. **어린이교육, 11**, 299-332.

김지현(2010).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인식 및 표현 프로그램이 만 3세 유아의 정서적 능력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59-87.

김현아, 김경숙(2013). 자연물을 활용한 과학, 미술 통합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 **생애학회지, 3**(1), 29-43.

김혜원, 장영숙(2015). 자연물을 활용한 협동 조형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4), 51-70.

김희진·김언아·홍희란(2004a).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제.** 서울: 창지사.

김희진·김언아·홍희란(2004b).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옥선(2007). **음악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만 2세(25-36 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희연(2005) "영아" 관련 연구동향 분석-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7**(4), 227-301.

노희연, 박찬옥(2012). 자연물을 이용한 영아 감각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영아보육학, 72**, 127-151.

류승희, 이승우(2012). 음악을 통한 그림책 읽기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미디어 연구, 11**(3), 315-333.

문순애, 김경미(2005). **유아창작공예.** 서울: 동문사

문지현(2012). **이야기나누기를 활용한 점토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성길(2001). **어린이 발달과 자연.** 한국 어린이 육영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박미정, 성소영(2011). 구성주의에 기초한 점토활동이 유아의 공간능력 및 입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2), 1-24.

박선화(2005). 유아들의 점토활동 전개과정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연구, 11,** 35~46.

박선화(2013). **교사-영아 상호작용이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옥영(2001). 삼성계발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위축, 고립아의 사회적응력 신장 방안. **특수교육총연합회 연구논문집, 60,** 271-293.

박유미, 최인숙, 김은아(2010). 또래간의 신체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행동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2,** 33-54.

박중규(2002). **점토공동작업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희(2015). **실외 모래놀이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경(2012). 점토를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협회, 12**(2), 229-247.

백중열(2016). 뇌 매카니즘과 도예치료 점토 연계성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1-55.

보건복지부(2013). **만 2세 표준 보육 과정.**

_____(2013).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해설서**

봉선화, 김낙흥(2010). 만 1세 영아의 실외놀이 경험탐색. **아동보육연구, 6**(2), 75-96.

사선, 오숙현(2012). 전래동요 속 자연물을 소재로 한 자연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 및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육아지원연구, 7**(1), 5-26.

서민정, 박성혜, 김정주(2009). 자연물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 그림 표현력과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58,** 167-187.

서영경(1998). **만 3, 4, 5세 유아의 점토놀이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희, 김은주(2011). 만 5세반 유아 교사의 생태유아교육과정 운영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0**(2), 103-129.

석지연(1998). **입체조형작품 감상방법이 5세 유아의 만들기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순(1996). **집단상담이 결손가정 학생의 개인 신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선(2000). **점토의 교육적 가치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연(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영옥(2004). 영아미술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도방법연구-12개월에서 36개월을 중심으로, **조형연구 23,** 85-109.

안명자(1995). **점토놀이를 통한 유아기의 조형 감각 계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무영(2005). **유아기 찰흙표현의 태도특성에 관한 근거 이론적 탐색.**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문실(2013).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과 교사-영아 상호작용행동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5**(1), 55-72.

안지영(2015). 또래관계 속에 나타난 2세 영아의 사회적 참조행동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92,** 199-225.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 양육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영아의 발달과 보육**. 서울: 신정.

여성가족부(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

염태진(1996). **유아교육을 위한 창작공예**. 서울: 창지사.

오원선(2008). **초등 미술 교과에서 자연물을 재료로 활용한 표현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현(1986). **유아창작공예.** 서울: 형설출판사.

오정현, 이종순(2007). 교수매체로써의 점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5**(4), 81-96.

유경숙(1999). **구성주의에 기초한 밀가루점토활동 구성방식에 따른 유아의 과학 개념, 과정기술 및 태도의 차이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0). 구성주의에 기초한 밀가루점토활동 구성방식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개념, 과정기술 및 태도의 차이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4**(1), 175-197.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및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윤효숙(2009). **영아의 산책과 놀이의 발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개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이(1998). **대물다툼 상황에서 2세아의 또래 갈등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희(2001). **표현방법을 통한 발상지도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구(2003). **만 1, 2세 영아를 위한 미술 교육의 현황 및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길종(1981). 아동미술에 있어서 조소의 발달과정. **춘천대학교논문 제21집,** 95-112.

이명환(2003).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25-62.

_____(2003). 독일의 숲 유치원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4), 23-48.

이미영(2014). **점토놀이를 통한 2세 영아의 수학적 탐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혜, 최미숙(2010). 자연친화적 유아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 30(2), 33-56.

이부연 외(1999). **도예가를 위한 점토와 유약**.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국.

이부연, 양경전(2009). 전도식기 아동의 인성발달을 위한 생태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 점토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7**(1), 173-190.

이상순(2015). **만 2세 영아(즐거운반)의 숲 체험활동에 관한 실행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간의 관계**. 성신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선영, 남영옥, 김수영(2011). 다감각매체를 활용한 치료적 미술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1**(2), 169-188.

이선형(1999).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을 통한 유아미술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3판)**. 서울: 창지사.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 학회지, 13**(1), 163-183.

이승임, 지성애(2004). 종이접기와 점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8**(4), 239~254.

이영, 조연순(1991). **아동의 세계: 태내기에서 청소년 발달까지**. 서울: 양서원.

이영단(2012). **자연체험활동에서 나타난 만 1세 영아의 경험 탐색**.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임, 주봉관(2006). 영아 사회적 참조에 관한 이론고찰 및 사례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4), 135-159.

이윤희(2006). **신체접촉 전통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학(1999).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자공예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화, 김영옥(1987).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욱, 임수진(2003). **탐색·표현·감상의 통합적 유아미술교육**. 서울: 정민사.

이주연(2002). **소조활동 중심의 미술치료가 아동의 분리불안과 애착관계에 미치는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은(2004).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 연구소 아동교육연구부(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임무근(1992). **도예.** 서울 대원사.

임재택(2002). **생태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임재택, 김은주(2007). 생태유아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탐색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27**(1), 381-404.

임춘연(2005). **자연물을 이용한 찰흙활동이 유아의 공간능력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희(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어머니 및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0). **영아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정계숙, 심미경(1998). 인기아동과 비인기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연구. **인간발달 연구, 5**(2). 101-112.

정미라(2014).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 놀이참여도와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373-401.

정미영, 최임숙(2008). 포스터 논문 발표: 종이접기와 점토를 활용한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미술성향과 공간능력에 미치는 효과 비교. **아동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08**(1), 126-126.

정옥분(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정은경(2009). **2세 영아의 과학적 탐구과정 탐색: 흙, 돌, 나무활동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정(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결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현정(2014). **실외 자연친화적 활동을 통해 나타난 영아의 정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경(2005). 영아미술교육에서의 촉감재료활용에 대한 연구 - 12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 . **한국아동미술학회지, 4**(4), 91-106.

조형숙(2005). 유아를 위한 자연친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유아교육연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5(5), 343-366.

조형숙, 이은형(2010). 만 2세 영아의 점토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 **한국 영유아 교원 교육 학회, 14**(6), 359-382.

조혜경(2006). 1·2세 영아의 또래 갈등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45-262.

주현주(2010). **영아 표현예술놀이가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양윤(2010). **전래놀이 동요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지, 구효정(2009). 유아의 입체표현 발달과 관련한 점토조형의 이해: 유치원 7차 교육과정의 입체조형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미술학회지, 8,** 147-172.

최윤혜(2012). **모자 상호작용을 통한 정원 가꾸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정서 변화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혜(2013). 유아의 점토놀이 과정에서의 경험. **한국유아교육연구, 15**(2), 131~155.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논집, 23**(3), 205-216.

최진숙, 조수철(1990). 소아불안이 측정 - RCMAS의 신뢰도와 타탕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 691-702.

최진승, 김지영(1998). 유아의 자연물에 대한 연상, 유사성, 생명 개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4,** 46-50.

최진홍(2006). **점토놀이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순(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지도**. 서울: 학문사.

표준대국어사전(2011). 서울: 두산동아.

하정연 외(2005).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 서울: 양서원.

하정연, 이숙희, 엄순정(2008). **『자연친화 놀잇감』**. 일산: 공동체.

한미희(2015). **유치반과 연계한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만 1세 영아의 사회적 놀이행동 탐색**.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석실, 박주희(2011). 점토놀이에서의 가작화 요소 분석 도구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429-4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영주(2012). **점토활동에 나타난 영아의 표상과 도구 사용 방법의 미시 발생적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인숙(2008). **산책활동에서 나타난 2세 영아의 자연과의 만남 및 이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영숙, 유영옥(2009). 자연물을 소재로 한 유아들의 조형미술활동 과정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8**(2), 251-274.

허경화, 김자경, 김기주, 강혜진(2007). 점토놀이가 취학 전 뇌성마비아동의 소근육 운동기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0**(1), 279-296.

허윤정(2009). **영아 실외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화동, 윤선영, 김남연(2009). 영아교사의 영아미술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 탐색. **유아교육논집, 13**(4), 319-340.

황윤세, 김언진(2014). 자연물을 활용한 과학-미술 통합 활동이 자연탐구지능과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0), 649-650.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Albrecht & Miller, L.G. (2001). Infant & Toddler development. Gryphon House Inc.

Alvono, E. J. (2000). Ar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 look at art in early childhood setting.(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1124).

Asendorpf, J. B. (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12-919.

Bandura, A.(1997). *Social Leaning Theory*.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Berk, L. E. (2002). *Child development*. Boston: Allyn & Bacon.

Bickel, K. (2001). *Der waldkindergarten, Wyk*: Book on Demand Gmbh.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Vol.* 1, New York: Basic Books Inc.

Bredekamp, S., & Copple, C.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arly childhood programs. washington, D. C: *National Assos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Briggs-Gowan, M. J., & Carter, A. S. (2001). *Infant 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ITSEA) Manual version 1.1.* The Connecticut Early Development project, Yale University.

Caplan, M., Vespo, J., Pederson, J., Hay, D. (1991).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 small groups of one-and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62,* 1513-1524.

Clemens, S. G. (1991). Art in the classroom: *Marking every day special, Young Children, 46*(2), 4-11.

Clouder, C., and Nicole, J. (2008). *Creative play for your toddler.*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Co.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Editor in Chief) and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ition. Volume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Coke, J. S., Batson, C. D. & McDavis, K. (1978).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7), 752-766.

Cote, S. Tremblay, R. E., Nagin, D. S., Zoccolillo, M., & Vitaro, F. (2002).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fearfulness, and helpfulness during childhood: Patterns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609-618.

Crocked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Daum, 백과 사전. http:// daum. net. 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Deci, E. L. & Ryan, R. M. (1991)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umun Press.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licker, J., & Veen, L. C. (1995) A Program of play. for infant and their care givers. *Young Children, 50*(2), 52-58.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Gostev & Weiss, F. M. (2007). Firsthand nature. *Science and children, 44*(8), 48-51.

Gralinski, H. J.,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73-584.

Greenman, J., & Stonehouse(1996). Prime times : A handbook for excellencd infant and toddler care. Redleaf Press.

Hartup, W. W., Glazer, J. A., & Charles worth (1967). Peer Reinforcement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1017-1024.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Henley, D. (2005). 점토를 통한 미술치료 (김선현 역.). 서울: 이론과 실천. (원저 2002 출판)

Holt, B. G. (1991). *Science with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EYC.

Humphryes,J. (2000). Exploring nature with children: *Anatureral connction Young Children, 50*(6), 4-11.

Janet, K. B. Margartet, B. P., & Michael, J. B. (1995). The young child: *Development from prebirth through age eight.*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Kagan, J.(1981). *The Second Year-The emergence of self-awarenes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Kaplan, S.(1992). Environmental preference in a knowledge-seeking, knowledge-using organism. In J. Barkow, L, Cosmides, & J. Tooby(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pp.581-600).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Keefer, L. R. (2005). Defiant Behavior in two and three year olds: A Vygotskian Approach. *Early childhood Educayion Journal. 1. 33,* No. 2.

Keena, K. & Wakschlag, L. S. (2000). More than the terrible twos: The nature and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in clinic refered preschool childer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33-46.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 Contral in Children: Developmentofa rating scale. *Jouranl of consulting and Clinic a Phychology, 47*, 1020-1029.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 hood to age 5. *Development Psychology, 26*, 398-408.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 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 Psychology, 32*(6), 1008-1024.

Lloyold, B. & Howe, N.(2003). Solitary play and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skill in preschool childer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1). 22-41.

Lowenfeld, V.(1957).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Lowenfeld, V., & Brittiain, W. (1975).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 교육연구회). 서울: 미진사. (원본발간일 1995년).

Marion, M. C.(1989). 유아생활지도. (조희숙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81 출판).

Mayesky, M. (1998). Creativ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 Delmar Publishers Inc.

Moore, S. G. (1982). Prosocial behavior in the early Yeats: Parent and peer influence. In Handbook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d.). *Bernard Spodek.*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of Publishing Co. Ind.

Morgan, C. & King, R. (1971). *Introduction to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Muller, E., & Brenner, J. (1977). The Origins of social skills and interaction among play group toddlers. *Child Development, 48*(3), 854-861.

Papalia, D. E., Olds, S., & Feldman, R. (1991). 인간발달 Ⅰ : 아동발달 (박성연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서 1989 출판).

Peggy,D.J.(1998). 재미있는 미술공부-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김수영 역). 서울 : 교육과학사.

pierrehumbert, B., Ramstein, T., Kamaniola, A., Miljkovitch, R., & Halfon, 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2). Quality of child care in the preschool years: A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home care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on chil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385-396.

Reznick, J. S., Gibbons, J. L., Johnson, M. O.,& McDonough, P. M.(1989). Behavioral inhibition in a normative sample. In J. S. Reznick(Ed.). *Perspective on behavioral inhibition* (pp.25-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et a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Free Press.

Schirrmacher, R. (2006). Are and creative development for young children(5th ed.). Albany, NY: Delmar.

Speilberger,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23-49.

Stewart, I. (2005). Principles and standard for school mathematics. Reston, VA: Aythor.

Tilsner, J. (2000). The wonderful world of toddler play. *parenting, 14*(12), p82.

Topal, C. W.(1983). Children, Clay and Sculpture. Massachusetts : Davis Publications.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 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141.

Vygotsky, L. S. (1998). Pedology of the Adolescent. (Orig. 1930-31) In R.W. Rieber (ED.),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ky. Vloume 5: Child Psychology (pp. 3-184). NY: Plenum Press.

Wender(1987). *The hyper child, adolescent and adult: Attention deficit disorder through the life s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son, R. A., kilmer S., & Knauerhase, V. (1996). Developing an environmental outdoor play space. *Young Children, 51*(6), 56-61.

Wortham & Sue C.(1990). Infant-toddle playgrounds for young children. s. Wortha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J. forst (Eds). playgrounds for young children: American survey and perspectives". Reston, Va: 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부록】

부록 1. 보육 교사용 영아기 사회·정서 측정 도구 (ITSEA)
부록 2. 실험집단의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계획안
부록 3. 점토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손유희
부록 4. 점토활동 오감 활동망
부록 5. 실험집단의 장소에 따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부록 6. 자연물을 채집하는 모습과 자연을 느끼는 모습
부록 7. 실험집단의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작품 사진
부록 8. 연구 협조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보육 교사용 영아기 사회·정서 측정 도구 (ITSEA)

영유아기 사회 · 정서적 행동 체크리스트

· 영아 이름 : (성별 : 남 / 여)
· 영아의 생년 월 일 : 201 년 월 일
· 선생님께서 이 영아를 처음 맡으신 정확한 시기는?
년 월부터
· 작성 일시 : 2015년 월 일

* 다음은 영유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영아의 긍정적 정서와 행동들이지만, 어떤 항목들은 영아기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아의 발달에 비해 너무 어리거나 성숙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문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요령

각 항목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영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번호에 √ 를 해주세요.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그렇지 않다.
2 : 그렇다.
3 : 매우 그렇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장소에 가면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10분 이상)				
2. 자주 다치기 때문에 아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3. 자기의 뜻이 좌절될 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4. 새로운 상황에서 조용해지거나 덜 활동적이 된다.				
5. 무엇엔가 성공하고 나면 즐거움을 표현한다. (예: 손뼉을 친다.)				
6. 놀이 후에는 놀잇감을 치운다.				
7. 긴장되어 보이거나 경직되고 두려움을 보인다.				
8. 주의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9. 놀이할 때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엉뚱하게 행동한다.				
10. 자기가 힘을 휘두르려 한다.				
11. 끊임없이 움직인다.				
12. 규칙을 따른다.				
13. 친숙한 보육교사가 떠나면 매우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낸다.				
14. “쉿”했을 때 조용히 한다.				
15. 어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린다.				
16. 요구하는 것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17. 5분 또는 그 이상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다.				
18.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교사에게 매달리거나 무릎에 앉아 있으려 한다.				
19. 공을 교사에게로 굴려 보낼 수 있다. (또는 다른 아이에게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 다른 아이에 비해 덜 재미있는 아이다.				
21. 상당히 시끄럽다. 크게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22.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23. 순종하지 않고 반항한다. (예 :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24. 자기 또래 아이들에 비해 행동이 빨라서 이 놀잇감에서 저 놀잇감으로 잘 옮겨간다.				
25.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한다.				
26. 비겁하게 행동한다.(예 : 나쁜 짓을 하고 숨긴다.)				
27. 혼자서 그림책을 본다.				
28. 옷 입을 때 돕는다.(예 : 소매에 팔을 끼운다.)				
29. 교사가 떠나려 할 때 울면서 매달린다.				
30. 걱정이 많고 매우 심각하다.				
31.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아픈 증상을 보인다.				
32.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낸다.(예 : 면도하기)				
33. 바르게(얌전하게) 잘 행동한다.				
34. 고의적으로 교사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				
35. 많이 그리고 잘 웃지 않는다.				
36. 고집이 세다.				
37. 무엇이든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				
38. 교사가 화가 났을 때 기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39.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시킬 동안 얌전히 있는다.				
40.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41. 책을 읽어줄 때 5분간 앉아 있는다.				
42. 타인이 다쳤을 때 걱정하거나 동요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잘못을 저지른 후에 “만회해 보려고” 노력한다.				
44.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다.(TV보기 제외)				
45. 다른 이의 감정을 알아차린다.				
46. 타인이 다쳤을 때 도우려고 한다.(예: 놀잇감을 집어준다.)				
47. 새로운 어른을 보면 부끄러워한다.				
48. 교사가 영아에게 요구하면 즐거운 소리를 흉내 낸다.				
49. 어떤 물체로 다른 것인 양 흉내 내며 논다. (예: 바나나를 전화기로 사용)				
50. 도전적인 활동들을 좋아한다.				
51. 인형이나 동물인형 등을 끌어안아 주거나 먹여준다.				
52. 완벽 주의적 성향이 있다.				
53. 손뼉을 치거나 “바이……바이……” 손짓하는 것을 따라 한다.				
54. 교사를 미소 짓거나 웃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주거나 장난친다.				
55.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의집중을 잘 한다.				
56.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거나 슬퍼 보인다.				
57.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다.				
58. 영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진다.				
59.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부끄러워한다.				
60. 파괴적이다.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수고 못쓰게 한다.				
61. 힘이 없어 보인다.				
62. 무서운 꿈이나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깬다.				
63. 심하게 떼를 쓴다.(temper tantrums)				
64. 교사를 때리고 물고 발로 찬다.				
65. 의기소침해 보인다.				
66. 매우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인다.				
67.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때 순종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8.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놀잇감을 친절히 요구한다.				
69.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잘 논다.				
70.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때 차례를 잘 지킨다.				
71. 적어도 한명의 친한(특별히 좋아하는)친구가 있다.				
72. 다른 친구들과 엄마, 아빠(상징놀이)를 한다.				
73. 잘 노는 곳이나 놀이집단에 다른 친구가 놀지 못하게 한다.				
74. 다른 친구를 놀린다.				
75.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군다.				
76. 고의적으로 다른 친구를 아프게 한다.				
77. 다른 친구를 때리고, 밀고, 발로 차거나 무는 행동을 한다.				
78.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예: 엄마 화났어, 선생님 화났어)				
79. 무언가 고안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예: 블록 쌓기)				
80. 특정 동물을 두려워한다. 어떤 동물(들)을 두려워합니까?				
81 특정 물건을 두려워한다. 어떤 물건(들)을 두려워합니까?				
82.특정 장소를 두려워한다. (예: 상가, 엘리베이터, 공원 또는 자동차) 어떤 장소를 두려워합니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실험집단의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계획안

활동안 1. 점토야~ 반가워

일 시			2015년 8월 10일 (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점토야 ~ 반가워		
활동 목표			· 밀가루 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활동 준비물			◇밀가루 점토 ◇여러 가지 곡물 - 쌀,보리,조,수수,강낭콩,기장,완두콩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밀가루 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 하얀색이요. · 바닥에 쳐 보면 어떤 소리가 날까? - 탁-탁- 소리가 나요. ·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킁킁 냄새를 맡아볼까? - 밀가루 냄새가 나요. ·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 시원하고 부드러워요. · 여러 가지 곡물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보자. - 쌀이랑 보리를 만지면 까슬까슬해요. 완두콩은 부드러워요. 수수는 빨갛고 조그맣고 동글동글해요.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또 어떻게 놀아볼 수 있을까? - 점토를 찢어서 손등위에 올려 봤어요. 장갑이에요. 바다처럼 시원해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에 구멍을 내어서 하늘을 쳐다봐요. 망원경이에요.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점토에 곡물을 색깔별로 붙여 보아요. 이번에는 곡물을 전부 섞어서 점토에 붙여 주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자연물과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 점토와 자연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무엇을 만들었니? - 뱀 가족을 만들어서 곡물로 꾸며주었어요. 강낭콩을 눈으로 붙여줘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아기 눈사람이에요. 올라프에요. 점토로 납작하게 접시를 만들고 완두콩을 올려 주었어요. 어서 드세요.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길게 만들어 뱀 가족을 만들었어요. 동그란 공이 두 개가 만나 눈사람이 되었어요. 조금씩 떼어서 손위에 붙여 보았어요. 부드러웠어요. · 마음에 드나요? - 뱀을 길게 만들어서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들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밀가루점토를 만지고 주무르면서 기분이 어땠나요? - 자연물을 만져 보고 탐색하며 기분이 어땠나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2. 다양한 모양 만들기

일 시			2015년 8월 12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다양한 모양 만들기		
활동 목표			· 색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모양 블록을 보고 교실에서 모양들을 찾아본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색점토로 창의적으로 구성해 본다.		
활동 준비물			◇색점토 ◇여러 가지 곡물, 솔방울, 잣 방울 ◇모양 블록(모형-○△□), 책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색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색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 바다처럼 시원해요. ②여러 가지 곡물과 솔방울, 잣 방울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 선생님~ 곡물이 빗방울 같아요. 검은 빗방울, 하얀 빗방울 (점토를 뿌리며)빗방울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나비야~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구멍 내어 보자. - 점토가 길게 늘어나 기차가 되었어요. 칙칙 폭폭 ~ 칙칙 폭폭~ 점토 구멍에 토끼가 살아요. 토끼집이에요. 저는 ○○처럼 점토를 두들기니 올록볼록 모양이 되었어요. 재미있다. 울퉁불퉁.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위에 솔방울을 올려주었어요. 점토위에 잣방울을 올려주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점토와 자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형블록과 모양이 나온 책을 보여준다. ·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②우리주변의 여러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 세모, 네모, 동그라미, 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동그라미로 자전거 바퀴 만들어요. ·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함께 만나면 어떠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우리 집을 만들 수 있어요. · ○○야~. 같이 집을 만들자. - 선생님 집이 엄청 많아졌어요. ○○집, ○○집 마을이 되었어요. · 모양 블록을 보고 공원에서 모양블록과 닮은 모양을 직접 찾아보아요. ③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양을 점토로 만들어본 후 자연물로 꾸며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다양한 모양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동그라미, 세모, 네모, 타원, 별모양, 직선을 만들었어요. 세모로 여우얼굴 만들었어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마음에 드나요? 어떤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나요? - 길쭉한 기찻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색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았나요?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3. 무늬찍기

일 시			2015년 8월 17일(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무늬찍기		
활동 목표			· 지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지점토위에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찍어 본 후 찍힌 무늬를 관찰한다.		
활동 준비물			◇지점토 ◇호두, 땅콩, 돌멩이, 나뭇잎, 나뭇가지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지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 호두, 땅콩, 돌멩이, 나뭇잎, 나뭇가지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땅콩껍질이 추울까봐 지점토로 옷을 입혀 주었어요. 나뭇잎을 하나씩 떼어서 손톱위에 올려 주었어요. 손톱 같아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점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오늘은 점토에 자연물을 활용하여 무늬찍기를 해볼 거예요. · 어떤 걸로 자국을 내볼 수 있을까요? 공원에서 찾아볼까요? ②점토를 얇게 밀어 넓게 편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무늬찍기를 해본다. ③자연물을 찍으면 지점토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해 얘기해 본다. ④점토에 찍힌 모습들을 살펴본다. ⑤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무늬를 지점토에 찍어본 후 자연물로 꾸며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무늬를 만들어 보았나요? - 나뭇잎으로 찍어보았더니 무늬가 생겼어요. 어떤 무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나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지점토에 찍어진 무늬를 보니 무엇이 생각나니? 자기가 찍어내고자 했던 무늬가 잘 표현 되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4. 손가락 찍기

일 시			2015년 8월 19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손가락 찍기		
활동 목표			· 찰흙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찰흙판을 만들고 손가락을 찍어 본 후 자연물로 꾸며본다.		
활동 준비물			◇찰흙 ◇봉선화, 분꽃, 야생화, 다양한 조개껍질, 고구마 순, 도라지열매 및 씨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찰흙을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여러 가지 들꽃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음대로 놀아보기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를 길게 만들어 기차를 만들고 꽃을 붙여서 꽃 기차를 만들었어요. 나뭇잎은 창문이에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손가락을 찍어 볼 거예요. 우리 손은 몇 개일까요? 우리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손가락도 이름이 있어요.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②친구와 손가락을 비교해보고 이야기 나눈다. · 엄지와 검지 등을 비교해 보며 이야기 나눈다. 손가락을 점토에 찍으면 어떤 모습으로 점토는 변할까요? 점토를 얇게 밀어 판을 만들고 손가락을 찍어 볼 거예요. 어떻게 찍어 볼 수 있을까요? ○○의 손이 가장 기나요? ○○의 손이 가장 짧나요? ③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찰흙위에 손가락을 찍어본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꾸며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손가락을 찍어본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엄지, 검지를 찍어 보았어요. 손가락을 찍을 때 시원했어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②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③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 한다. · 다섯 손가락이 잘 찍어 졌나요? 찰흙을 만지고 주무르면서 기분이 어땠나요? 자연물을 만져보고 탐색하며 기분이 어땠나요? ④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5. 내 얼굴, 친구 얼굴 만들기

일 시			2015년 8월24일(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내 얼굴, 친구 얼굴 만들기		
활동 목표			· 찰흙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거울을 이용하여 내 얼굴과 친구얼굴을 관찰한 후 이야기 나누고 자연물과 찰흙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활동 준비물			◇찰흙 ◇양배추 잎, 옥수수, 솔잎, 상수리열매, 깻잎, 나뭇가지, 참깨 줄기 ◇거울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찰흙을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놀아보기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양배추 잎, 옥수수, 솔잎, 상수리열매, 깻잎, 나뭇가지, 참깨 줄기,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에 짧은 나뭇가지, 긴 나뭇가지들을 순서대로 꽂아볼 수 있어요. 점토를 동그랗게 만들고 솔잎으로 고슴도치 가시처럼 꽂아볼 수 있어요. 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 나뭇가지에 꼬치처럼 꽂아볼 수 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내 얼굴과 친구얼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얼굴과 친구얼굴을 관찰해 보고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관찰해 본다. 나와 친구들의 재미있는 표정이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친구 얼굴을 보고 별명을 지어줄까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관찰해 본다. ②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와 친구얼굴의 특징을 살려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내 얼굴과 친구의 얼굴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내 얼굴과 친구얼굴을 만들었어요. 마음에 드나요? 내 얼굴이 잘 만들어져서 집에 가져가서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저 보다 얼굴을 크게 만들었어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 친구는 피노키오처럼 코를 길쭉하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들었네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내 얼굴과, 친구 얼굴이 표정이나 특징을 살려 잘 표현해 보았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 한다.

점토활동 6. 과일 만들기

일 시			2015년 8월 26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과일 만들기		
활동 목표			· 아이클레이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수박파티’노래를 들으며 과일모형과 책을 본 후 이야기 나누고 자연물과 아이클레이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본다.		
활동 준비물			◇아이클레이 ◇동백꽃잎, 감잎, 나뭇가지, 포도 줄기 ◇과일 모형 및 자연관찰 책 ◇‘수박파티’음원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아이클레이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아이클레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나뭇가지, 나뭇잎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납작한 나뭇잎에 점토를 올려서 상차리기를 했어요. 밥이랑 반찬을 만들었어요. 나뭇가지는 젓가락이에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과일 만들기를 할 거예요. '수박파티' 노래를 들으며 동기유발을 한다. 친구들이 먹어본 과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는 과일도 있나요? ②과일의 생김새와 맛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③과일모형과 자연관찰 책을 보며 과일 이름 말해보기, 이름을 따라해 보기, 퀴즈 맞추기 활동을 한다. ④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이 가는 과일을 특징을 살려 자연물과 점토로 만들어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과일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과일을 만들어 보았나요? - 포도, 사과, 배, 귤을 만들었어요. · 점토로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드나요? - 저는 작은 귤이 귀여워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과일을 만들기에 재료들이 충분했나요? 더 필요한 자연물이 있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7. 장신구 만들기

일 시			2015년 8월 31일(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장신구 만들기		
활동 목표			· 색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장신구를 관찰하고 이야기 나눈 후 자기가 좋아하는 장신구를 자연물과 색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든다.		
활동 준비물			◇색점토 ◇들국화, 강아지풀, 봉선화, 코스모스,각종조개껍질 ◇다양한 장신구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색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색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들국화의 꽃, 잎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②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로 그릇을 만들어 들국화를 넣어 주었어요. 꽃밥이에요. 많이 드세요. 강아지풀은 반찬이에요. 먹기 쉽게 작게 뜯어 줄 거예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장신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장신구를 보여준다. 주위에서 장신구를 본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 나,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②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장신구를 자연물과 색점토를 활용하여 만들고 끈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착용해 본다.
마 무 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아빠, 엄마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동생 반지를 만들었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장신구가 잘 만들어 졌나요? 장신구를 만들어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나요? 내가 만든 새로운 장신구가 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8. 꽃과 꽃잎 콜라쥬

일 시			2015년 9월 2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꽃과 꽃잎 콜라쥬		
활동 목표			·밀가루 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밀가루 점토위에 콜라쥬 기법을 활용 하여 붙여본다.		
활동 준비물			◇밀가루 점토 ◇야생화, 사랑초, 크로버 꽃, 백일홍, 봉선화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밀가루 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여러 가지 야생화, 사랑초, 크로버 꽃, 백일홍, 봉선화의 꽃과 잎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놀아보기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꽃을 점토위에 하나씩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붙여 봤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점토로 판을 만들고 다양한 자연물을 붙여보는 콜라쥬 활동을 할 거예요. 점토로 어떻게 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연물을 이용해 콜라쥬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②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토판위에 다양한 자연물을 붙여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저는 점토위에 많은 풀을 붙여보았어요. 저는 분홍꽃(백일홍)을 붙여 보았어요. 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②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③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콜라쥬에 붙인 자연물이 마음에 드나요? 더 붙여보고 싶은 자연물이 있나요? ④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9. 과일나무 만들기

일 시	2015년 9월 7일 (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과일나무 만들기		
활동 목표	· 찰흙과 아이클레이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공원에서 나무를 관찰한 후 자연물을 직접 채집 후 찰흙과 아이클레이로 창의적으로 만든다.
활동 준비물			◇찰흙, 아이클레이 ◇실물 - 과일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 포도, 나뭇가지, 자갈, 나뭇잎 ◇그림카드(과일과 야채)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찰흙과 아이클레이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찰흙과 아이클레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 포도, 나뭇가지, 자갈, 나뭇잎의 모양, 냄새, 만져 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③바나나,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일을 먹어 보고 미각을 활용해 맛을 본다. · 과일은 어떤 맛인가요? - 달콤하고 맛있어요.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바나나 껍질위에 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 올렸어요. 콩이 되었네요. 나뭇잎위에 점토를 동그랗게 올려주었어요. 사탕이에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관찰한 후 점토로 만들어 볼 거예요. ② 공원에서 나무를 관찰해 보고 자갈과 나뭇가지 나뭇잎을 직접 채집해 본다. · 어떤 나무를 보았니? - 감나무, 잣나무, 단풍나무를 보았어요. ③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나무를 만들어 보자. ④찰흙을 화분의 흙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 ⑤실제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활용해 아이클레이로 다양한 과일을 만들고 각종과일 나무를 표현해 본다. ⑥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일나무를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고 자연물로 꾸며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과일나무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과일나무를 만들었는데 점토를 브로콜리위에 붙이니 예뻤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자기가 만든 과일 나무를 잘 표현해 보았나요? - 과일 나무에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10. 바닷속 꾸미기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바닷속 꾸미기		
활동 목표			· 색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바다생물들의 사진자료를 본 후 이야기 나눈 후 자연물을 활용해 색점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활동 준비물			◇색점토 ◇감자, 솔가지, 솔잎, 고구마 잎과 줄기, 다양한 조개껍질, 곡물, 돌멩이 ◇전지, 사진자료, 음원, 고기 잡기 교구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색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색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조개와 돌멩이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놀아보기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점토위에 조개랑 돌을 두 개 붙였어요. 저번에 만들었는데 재미있어서 또 만들었어요. 점토를 돌처럼 만들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바다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진 자료를 보며 바다 친구들에는 누가 있는지 이야기 해본다. 고기 잡기 교구로 바다친구들을 낚아본다. - 해마, 상어, 고등어, 불가사리, 미역이 있어요. ②점토를 활용해서 물고기 등을 만들어 본다. · 물고기는 어떤 모양,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물고기는 어떻게 헤엄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③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바다생물들을 자연물과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뽀로로에 나오는 상어를 만들었어요. 자연관찰에서 본 오징어를 만들고 무늬를 꾸며 줬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바다친구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 해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불가사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 더 필요한 자연물이 있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11. 피자 만들기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피자 만들기		
활동 목표			· 밀가루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로 표현해 본다. · 피자의 종류와 생김새 등에 대해 말해본다.		
활동 준비물			◇밀가루점토(파랑, 빨강, 녹색) ◇양파, 블루베리, 피망, 빵가루, 커피가루,모래 ◇인쇄물, 실물 - 피자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밀가루 점토를 소개한다.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②빵가루와 커피가루, 모래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 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모래, 커피가루, 빵가루를 점토위에 뿌렸어요. 점토의 색깔이 변했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맛있는 피자 만들기를 할게요. 피자는 어떤 피자가 있을까요? 인쇄물을 보여주며 피자에는 치즈피자, 야채피자 등이 있어요. ②자연물을 이용하여 피자를 꾸며본다. ③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자연물과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야채피자를 만들었어요. 모래피자를 만들었어요. 커피피자를 만들었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자신이 맛있는 피자를 잘 만들어 보았나요? 만들기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오늘 만든 피자를 누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나요? - 엄마, 아빠께 맛있는 피자를 드리고 싶어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점토활동 12. 동화 듣고 구성하기(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일 시	2015년 9월 16일 (수)	대상	실험집단 17명
점토 활동 제목	동화 듣고 구성하기(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활동 목표	· 찰흙과 밀가루 점토에 대해 소개 하고 오감을 활용해 직접 탐색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한다. · 동화를 듣고 동화책에 나오는 똥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자연물과 찰흙과 밀가루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동 준비물			◇찰흙, 밀가루 점토(회색) ◇곡물, 옥수수, 커피 가루, 양배추 잎 ◇동화책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활동 과정			
도입	1단계	점토 소개하기	①찰흙, 밀가루 점토를 소개한다. · 친구들은 점토를 본적이 있니? 가지고 논적이 있니? 친구들 앞에 있는 점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찰흙과 밀가루 점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전개	2단계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점토 탐색하기	①제시한 점토와 자연물을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해 본다. · 어떤 색깔의 점토가 있니? 같은 색끼리 모아보자(분류) 바닥에 딱딱 쳐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점토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를 맡아볼까? 눈을 감고 점토를 만져볼까? 느낌이 어떠니? 여러 가지 곡물,옥수수,양배추,커피가루의 색깔, 모양, 냄새, 만져본 느낌에 대해 얘기해본다.
	3단계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기	①영아와 점토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아본다.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토로 동그랗게 굴려보자. 손바닥으로 두들겨 보자. 길쭉하게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자.
	4단계	자연물과 점토를 아울러서 (함께 모아서) 놀아보기	①자연물과 점토를 제공한다. · 점토로 마음대로 놀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점토에 자연물을 섞어 놀아보자. 어떻게 놀 수 있을까? - 악어들을 만들어 옥수수를 주었어요. 모두 배부르데요. 이젠 옥수수 잎을 덮고 코~ 자야 해요
	5단계	자연물을 활용하여	①오늘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오늘은 '누가 똥 쌌어'란 동화책을 보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토를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점토로 다양한 똥을 만들어 볼 거예요. ②동화 '누가 똥 쌌어'를 들려준 후 이야기 나눈다. · 동화에는 누가 나왔나요? - 두더지, 비둘기, 말, 토끼, 염소, 젖소, 돼지, 파리, 개가 나왔어요. · 두더지 머리에 똥을 쌌는지 누가 찾았나요? - 두더지가 파리에게 물어봐서 알아냈어요. · 두더지 머리에 누가 똥을 쌌나요? - 정육점집 개 뚱뚱이 한스요. · 동물들의 똥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 비둘기는 물똥, 말은 까만 사과, 토끼는 까만 콩, 염소는 초콜릿, 젖소는 누렇고 커다란 소똥무더기, 돼지는 묽은 똥무덤, 두더지는 곶감씨처럼 생겼어요. ③영아들에게 다양한 똥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자연물을 활용하여 똥을 만들어 본다. · 어떤 똥을 만들어 보고 싶니? ④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똥을 자연물과 점토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마무리	6단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자기와 친구가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 오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았나요? - 비둘기 똥, 말똥을 만들었어요. 전 제 똥을 만들었어요. ②친구의 작품을 보니 어떤가요? · ○○가 만든 점토에 대해 궁금한 친구가 있나요? ③각각의 작품을 어울리게 전시하고 감상한다. ④오늘의 활동에 대해 회상하고 평가한다. · 똥을 만들기에 재료들이 많았나요? 더 필요한 자연물이 있었나요? ⑤활동하는 동안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3. 점토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손유희

제목 : 안녕~

1절: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

2절: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

제목 : 무얼 만들까?

1절: 동글동글 점토로 무얼 만들까?

동글동글 점토로 ○○○만들지.

2절: 말랑말랑 점토로 무얼 만들까?

말랑 말랑 점토로 ○○○만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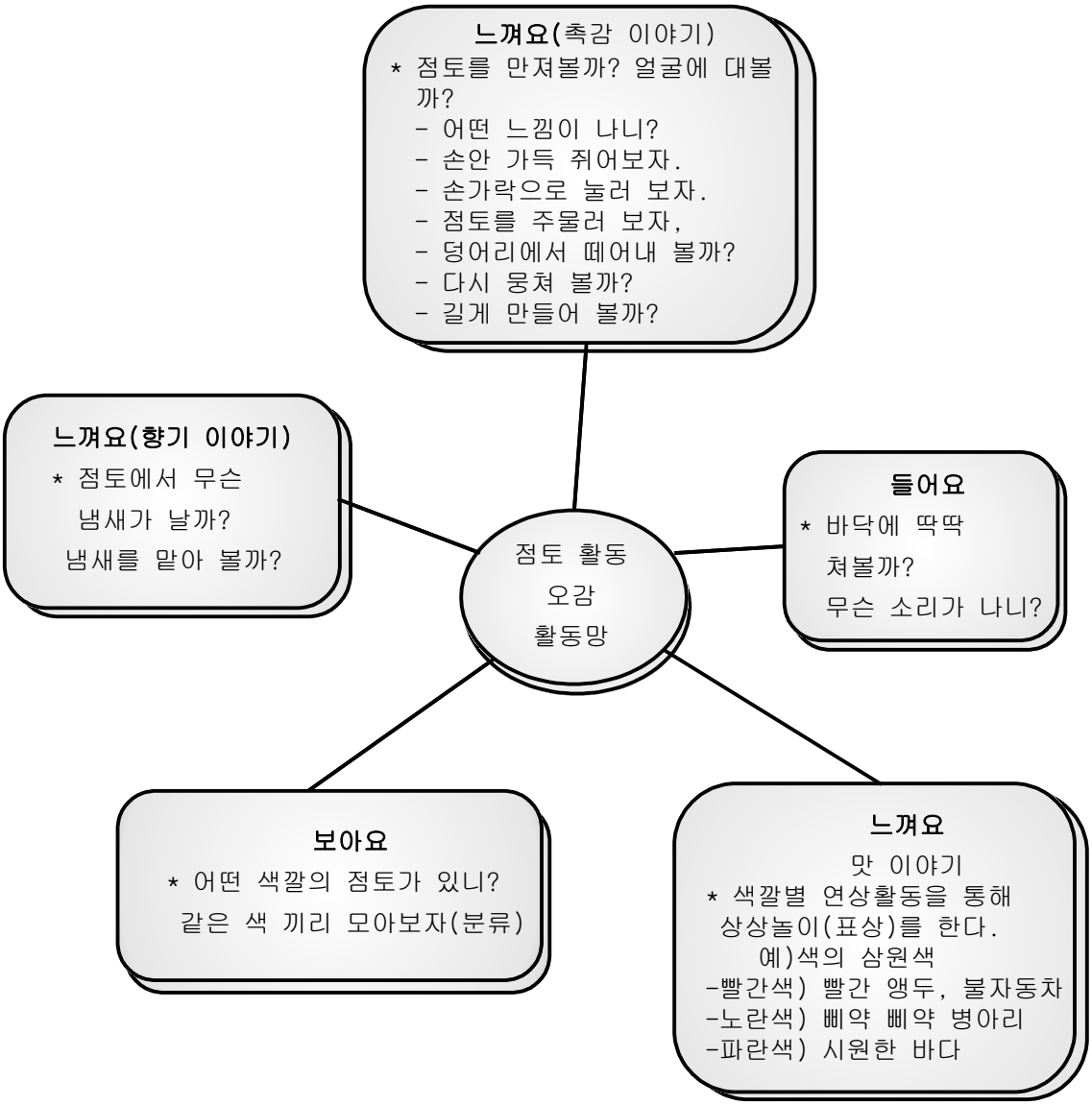
3절: 길쭉길쭉 점토로 무얼 만들까?

길쭉길쭉 점토로 ○○○만들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4. 점토활동 오감 활동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5. 실험집단의 장소에 따른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

실내 : 교 실	
실외 : 정자 1	실외 : 정자 2
실외 : 정자 3	실외 : 어린이집 입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6. 자연물을 채취하는 모습과 자연을 느끼는 모습

나뭇가지 줍기	사랑 초 관찰하기
고구마 순 관찰하기	돌멩이 줍기
코스모스 관찰하기	하늘 쳐다보기, 매미 소리듣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7. 실험집단의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 작품 사진

1회 : 점토야 반가워	2회 : 다양한 모양 만들기
3회 : 무늬찍기	4회 : 손가락 찍기
5회 : 내 얼굴, 친구 얼굴 만들기	6회 : 과일 만들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회 : 장신구 만들기	8회 : 꽃과 꽃잎 콜라쥬
9회 : 과일나무 만들기	10회 : 바닷 속 꾸미기
11회 : 피자 만들기	12회 : 동화 듣고 똥 만들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8. 연구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자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나지인입니다. 연구자는 영아를 대상으로 6주간 주 2회 20분씩 약속된 날짜에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을 시행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영아와 교사가 가정과 어린이집 주변 환경에서 자연물을 직접 수집 및 채취하며 영아가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의 주체자가 되어 적극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서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되며 모든 활동과 검사는 무료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점토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연물을 수집하여 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연구자 : 나지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유아교육	학 번	20148001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나지인 한문 : 羅智仁 영문 : Na, ji - i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05 명지 A				
연락처	E-MAIL : nmj-082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자연물을 활용한 점토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어 : The Effects of Activities Involving Use of Clay and Natural Objects on the Social-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6년 07월

저작자: 나지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Collection @ chosun